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8월 10일) 2018년 9월 19일 수요일



"비방 없는 공명선거 약속"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비방과 흑색선전 없는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했다. 혜총 스님을 제외한 후보들은 9월 11일 자격심사 이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의장실에 모여 공명선거를 약속했다. 사진 왼쪽부터 기호3번 정우 스님, 기호4번 일면 스님, 기호2번 원행 스님, 중앙선관위원장 세영 스님. 기호1번 혜총 스님은 개인 일정상 불참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후보들 공약 발표… '표심 잡기' 시동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들 12일 일제히 회견

교구중심제 · 비구니 권익 공통
승가복지 · 교육 · 포교도 비슷해
각 후보 선거대책본부 소규모로
세력 과시하는 선거분위기 지양
모두 해인사승가대학 동문 출신

신성민 · 노덕현 · 윤호섭 기자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자격심사가 끝난 다음날인 9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종책발표 기자회견은 물론 종정 진제 스님 예방 등 28일 투표일 전까지 선거인단 표심 공략에 총력을 쏟는다. 또한 각 후보들이 제시한 종책들이 대동소이해 선거운동이 당락의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호1번 혜총 · 기호2번 원행 · 기호3번 정우 · 기호4번 일면 스님은 9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총무원장 후보 정견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자의 종책을 홍보했다.

혜총 스님 "수행하는 종단"

먼저 혜총 스님은 △수행하는 종단 △전법하는 종단 △함께하는 종단 △존경받는 승단이라는 4대 운영기조와 28개 종책과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수행하는 종단'을 위해 혜총 스님은 원로 중심의 안거 수행과 일상 중심의 생활 수행을 비롯해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제도 마련, 수행자를 위한 평생교육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전법하는 종단'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신도시에 거점 포교사찰 설립 · 지원 △포교원 행정을 전략 개발로 전환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등을 공약 사업으로 제시했다. '함께하는 종단'은 사부대중의 종단 참여가 핵심이다.

혜총 스님 선거대책위원회에는 이전 선거부터 혜총 스님을 도운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 한국불교문화예술인협회 대표 동성 스님이 참여하고 있다.

원행 스님 "대중공의 우선"

원행 스님은 前총무원장 설정 스님 불신임 과정서 불거진 종단안팎의 갈등을 인식한 듯 '소통과 화합을 통한 대중공의'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스님은 △하심의 마음으로 소통과 화합 △대중공의 통한 지속적 혁신 △노후 걱정 없는 승가복지 △교구중심제 안착 △새로운 불교문화 시대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포교 △지혜와 자비, 이웃과 사회에 회향 등을 골자로 한 7대 중점 종책을 제시했다.

원행 스님은 이번 선거에서 별도의 선거대책본부를 꾸리지 않았다. 불미스런 일로 인한 전임 총무원장 궐위 상황에서 선거가 열려 조용한 선거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대변인 일감 스님을 비롯해 前사서실장 삼혜 스님, 금산사 문중 몇몇 스님들만이 실무를 도울 뿐이다.

정우 스님 "교구중심 종무행정"

정우 스님은 선거 공약으로 '10대 운영기조 36대 사업과제'를 제시했다. 스님이 약속한 10대 운영기조는 △교구본사 중심 종무행정 △소통과 자문 통한 종단 운영 △불교문화 창달 △전법과 포교활동 지원 △출가 인재 육성하는 승가교육 △승가복지제도 확립 △비구니 특별교구 설립과 위상 강화 △종단의 사회적 역할 강화 △종헌 종법령 재정비 △수행가풍 진작과 화합종단 구현이다.

정우 스님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선대위원장으로 현문 스님(영축문화재단 이사장)이, 본부장으로는 조계종 前기획실장 승원 스님이, 대변인은 중앙종회의원 성화 스님과 (사)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일면 스님 "종단 위상 제고"

일면 스님은 '시대정신으로 새롭게 불교발전을 이끌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8대 핵심종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면 스님이 공약한 8대 핵심 종책은 △종헌 질서 확립과 종단 위상제고 △종무행정 교구 이관 △사찰 재정관리 투명화 △승려복지 종단의무화 확대 및 내실화 △종단 교육혁신 강화 및 포교종책 다각화 △불교전통 문화 육성과 지원 △종단의 사회적 책임과 공동선 실천 △불교관련 제법령 및 종법 제개정 등이다.

일면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공동선대위위원장으로 거창 아림사 회주 선용 스님, 前선운사 주지 법현 스님, 대변인은 가평 축령사 주지 혜철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제36대 총무원장선거에 입후보한 스님들은 모두 해인사승가대학 동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해인사승가대학 동문회에 따르면 혜총 스님은 4기, 일면 스님은 9기, 정우 스님은 14기, 원행 스님은 24기다.

선거기획 특집 A4~7

"자리이타 정신 구현 노력" 韓中日 불교도 '한 목소리'

21차 고베대회서… 선언문 채택

3국 불교도 300여명 모여
세계평화 정착 기여 다짐
태풍 피해 희생자 위로도

한중일 3국 불교 지도자들이 일본 고베에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최근 일본에 발생한 지진과 태풍으로 희생당한 이들의 넋을 위로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중국불교협회는 9월 12일 일본 고베시 입정교성회 고베교회에서 제21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일본대회 본행사인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 문덕 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불교대표단 90여 명, 일본불교 대표단(단장 다케카쿠쵸 스님 ·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100여 명, 중국불교 대표단(단장 연각 스님 ·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100여 명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평화기원법회는 일중한 국제불교교류협의회장 이토 유이신(伊藤 唯眞) 스님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토 유이신 스님은 개회사에서 "한국, 중국, 일본 삼국 불교도가 하나 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고, 화합공생(和合共生)의 가르침을 세계 인류가 귀의할 기본 이념으로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삼국 불교도의 단결이 한층 강해지고 깊어지며,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염원했다.

이어 일본 · 중국 · 한국 순으로 각국 전통불교의식이 이어졌다. 한국측 불교의식은 오분향례 · 칠정례, 석가모니불 정근, 축원(부회장 홍파 스님), 반야심경 독경으로 진행됐다.

의식 후에는 단장 문덕 스님이 세계평화기원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국 측 단장 문덕 스님은 세계평화기원 메시지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었던 한반도에서 화해와 평화의 꽃이 피어나고 있다. 남과 북, 그리고 관련 국가들이 한마음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삼국의 불자들은 세계일화,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평화를 앞당기는 정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세계 평화를 위해 불교도들이 노력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평화기원문 발표에 앞서 문덕 스님은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아 홋카이도에 발생한 지진과 오사카 등 태풍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자비광명으로 속히 재난을 극복해 평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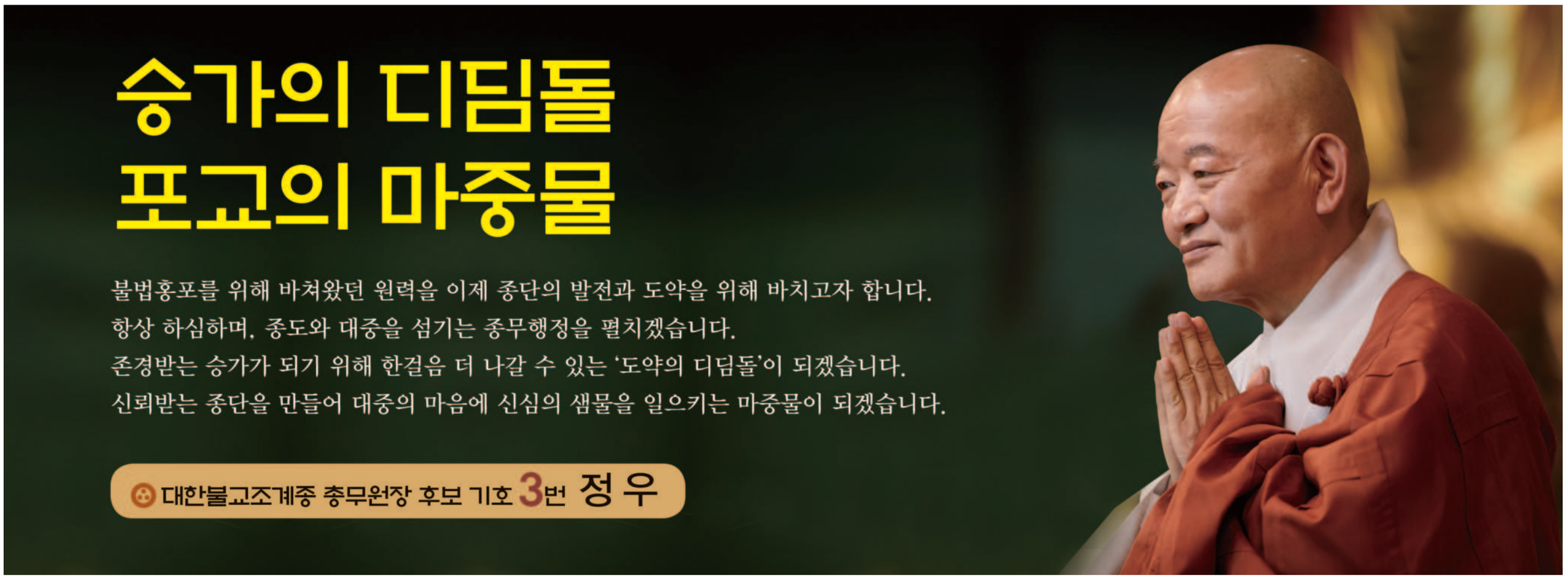
삼국 불교도는 또 공동선언문을 채택, "자비심을 근본으로 삼아 현대사회에 알맞은 형태로 사람들의 마음에 한층 다가서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윤호섭 기자



제21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일본대회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이 세계평화기원법회서 전통불교의식을 올리는 모습.

다음호는 추석 연휴 관계로 배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교구분권, 교구 內 견제기능 필수”

조기룡 교수, 불교사회연구소 공청회서 기조발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교구본사주지가 교구종회 당연직 의장을 맡으면서 교구 내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권력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구분권 또는 교구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조기룡 동국대 교수가 조계종단 내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인 교구중심제 실현과 관련해 본사주지의 권한에 대한 견제기능의 필요성을 이 같이 역설했다. 조 교수는 9월 13일 서울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서 ‘교구활성화 연구 공청회’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서 기조발제를 맡았다.

宗家보다 대찰 성격 짙어

조 교수는 현재 교구의 문제점을 ‘교구본사’와 ‘교구자치’로 구분했다. 교구본사와 관련해서는 △종가(宗家) 역할 부족 △문중위주 폐쇄 운영 △재가신도 참여 형식화 △종무행정 전담인력 부족 △본사주지 독단 견제기능 미비 등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재 교구본사는 교구를 아우르는 종가보다는 개별 대찰의 성격이 짙다. 즉 수행과 전법의 기능이 떨어지고, 종무행정의 중심지 역할이 더욱 크다”며 “불교정화 이후 문중 개념이 수행가풍 전승에서 경제적 · 물질적 성향으로 변하면서 문중 중심의 폐쇄적 운영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현재 교구본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본사주지 견제기능 미비를 꼽았다. 현재 본사주지는 종헌종법상 교구종회 당연직 의장을 맡는다. 조 교수는 이를 사회에 빗대 ‘시장이 시의회 의장을 맡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조계종 교구활성화’ 주제로
교구본사별 규모 차이 크고
주지 행정권이 입법권 압도
제도적 뒷받침돼야 문제해결



특히 교구종회 구성원에 해당하는 본사 부주지와 본사 각 국장, 말사주지의 임명권을 본사주지가 갖는 데다 사찰운영위원회 의장까지 겸임하도록 한 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같은 제도로 인해 교구 내에서 본사주지의 행정권이 교구종회의 입법권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조 교수는 교구 간 성장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소속 사찰이 가장 많은 직할교구가 가장 적은 23교구보다 12.9배, 승려 수는 36배에 달했다.

“교구 재획정도 고민해야”

조 교수는 이 같은 문제 해결방안을 종교 · 행정적 역량 강화로 나눴다. 우선 종교분야서는 말사 단위의 포교를 넘어 교구차원의 자체 포교사업 기획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행 3직(총무 · 재무 · 교무)에 포교를 추가해 4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분야서 △본사업무가 아닌 교구차원의 행정업무 전담기구 설치 △본사 7직 말사주지 겸직 금지 △교구종회의장 의원 중 호선 △교구종회 감사권 부여 △현행 지방종정법 대신 ‘교구자치법’ 제정 △재가신도의 종무회의 참여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 교수는 현행 교구구역과 국가행정구역의 미일치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교구 재획정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지역과 무관하게 본사별로 창건한 말사의 인위적 교구 획정이 갈등을 유발한다. 총무원과 각 교구 협의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와 함께 비대 교구의 분구가 뒤따라야 한다. 가장 큰 직할교구의 경우 강남과 강북 또는 인천까지 나누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 교수는 끝으로 “총무원장 선거철만 되면 ‘교구분권’이 핵심 종책으로 나온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 변해버린다”며 “본사주지가 교구자치보다 인사권과 재정권에 관심을 갖는 것도 제도변화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 토론자로는 불교사회연구소장 주경 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가섭 스님, 황진수 한성대 명예교수, 이석심 포교원 차장 등이 참석했다.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자 8명 확정

10개 분야 20명 지원해 선거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자 8명이 확정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9월 11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서 제17대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8명의 종회의원 후보를 선출했다. 투표결과 율원에 상덕 스님, 교육에 대현 스님, 포교에 정운 스님, 사회에 철우 스님, 복지에 정관 스님, 문화에 진명 스님, 법제에 정운 스님, 행정에 혜도 스님이 선출됐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오는 10월 8일 전국비구니회가 추천한 8명의 비구니 종회의원 선출의 건을 다룬다.

비구니 종회의원선거에는 총 10개 분야 20명의 스님들이 지원했으며, 4명은 서류 미비와 불참 등으로 인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불교성전〉 편찬 본격 추진

포교원, 9월 4일 편찬위운영령 입법예고… 23일까지

총무원장 편찬위 위원장으로
포교원 · 교육원 등 역량 결집
2020년까지 3개년 사업 계획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불교성전〉 편찬을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포교원은 9월 4일 조계종 홈페이지에 ‘불교성전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공시했다.

〈불교성전〉은 초기경전과 대승경전 등에서 현대인들이 수지독송해야하는 핵심부분을 선별해 편찬하고 모바일과 뉴미디어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불교성전〉은 일본에서 처음 간행됐다. 근대 불교학의 발전 과정에서 경전을 총 망라한 현대화된 종합집 간행의 움직임이 일었고, 1905년 최초로 간행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만해 스님 등의 불교성전과 함께 1972년 동국역경원에서 〈불교성전〉을 발간했다. 이후 지금까지 13종 16권이 유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에서 인증한 표준불교성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불교성전〉 편찬을 위해 ‘편찬위원회’와 ‘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사무국 등이 구성된다.

편찬위원회는 총 21인으로 총무원장이 편찬위원장을 맡으며 수석부위원장에 포교원장, 부위원장에 교육원장과 중앙종회의장이 참여한다. 연 2회 회의를 통해 〈불교성전〉의 최종 결과물을 승인한다.

기획위원회는 총 10인으로 기획위원장은 포교원 포교연구실장이 맡는다. 월 1회 회의를 통해 불교성전의 각종 내용 수록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총 10인 이내에 자문과 연구조사를 위한 전문위원을 두게 된다.

편찬위원회 사무국은 불교사회연구소와 교육원, 포교원 일반직 종무원과 실무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

불교성전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필요시 연장 가능하며 불교성전 편찬 기금을 조성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기간은 9월 23일까지로 의견은 서면과 이메일, 팩스 등으로 수렴한다.

조계종 포교원 측은 “최근 변화하는 모바일 미디어 등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계획”이라며 “종단 차원의 역량을 한데 모아 불교성전 편찬이 한국불교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추석선물과 주는 행복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합니다. 받을 사람을 생각하며 선물을 고르고 주는 마음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정(情)을 담은 선물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나눔’입니다.

아주 오래전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시골 할아버지가 마을 입구에서 객지에서 찾아올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명절에 자식이 노부모에게 못 갈 경우 인사를 드리는 것이 효도의 선물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후배가 선배에게, 또 이웃에게 조건 없는 관심을 가질 때 추석은 풍성해집니다.

선물에 무엇을 바라는 ‘조건’을 담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 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이 부패예방에 기여했으나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선물은 사랑과 배려 그리고 감사의 뜻을 담은 순수한 나눔일 때 의미가 있고 빛이 납니다. 주었으니 받아야 하고 받았으니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행복을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은 주는 행복을 멀리하고 ‘받는 행복’에만 집착합니다. 받는 행복은 일시적이며 갈애(목마름)의 원인입니다. 갈애에서 원망과 미움이 생깁니다. 행복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탐심이 분노로 바뀌어 살인과 방화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갈애는 번뇌 중에서 가장 심한 번뇌장으로 집착을 일으키는 근원입니다.

*‘주는 행복’은 비움을 깨닫는 수행이며 갈애가 없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참다운 행복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산승이 40여 년 전 삼천사에 처음 왔을 때 사하촌에는 춥고 배고픈 이웃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삼천사는 겨우 가람의 흔적만 있는 상태였으나 사하촌 이웃들과 쌀이며 국수와 연탄을 나눴습니다. 그 ‘나눔의 묘목’에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 탄생했습니다. 무엇을 나누고 받아줄 이웃이 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주는 마음은 이웃의 고통을 대신하는 자비심입니다.



나눔-주는 행복과 추석선물 그림 · 조향숙

선물은 조건없는 情 나눔
주는것은 비움의 수행
받아줄 이웃있어 행복

〈삼국유사〉권5에 나오는 정수 스님 이야기는 널리 알려졌지만 되새겨 보겠습니다.

신라 애장왕 때였습니다. 황룡사의 정수 스님은 추운 겨울날 삼랑사에 갔다 오는 길에 맨 땅에서 해산을 한 거지여인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폭설에 얼어 죽게 된 여인을 안아서 몸을 녹여준 후, 옷을 벗어 여인과 갓난아이를 덮어주고 벌거벗은 채 황룡사로 돌아왔습니다.

정수 스님의 자비행은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는 무주상의 가르침입니다. 주는 행복은 이처럼 무주상을 깨닫는 무량공덕의 자리입니다. 광명의 자비가 넘쳐흐르는 이고득락의 행복입니다. 이웃에 대한 조건 없는 측은지심의 나눔을 연습하다보면 보살의 공덕을 쌓아 후득지가 나오고 생활 속의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의 무집착을 통과할 때 지혜를 만납니다. 그 지혜는 행복을 끝없이 생산합니다. 올 추석에는 명절이 있어 더 외롭고 쓸쓸한 이웃의 손을 정겨운 마음으로 잡아줍시다. 보름달처럼 환한 마음으로 주는 그 자체가 ‘주는 행복’이자 공덕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소통과 화합으로
미래불교를 열겠습니다

화합이 필요한 시대, 존중과 섬김의 리더십을 구현하는 원행스님

기호 2
원행스님

7대 중점 종책

1 소통 하심의 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하겠습니다.
2 혁신 대중공의를 통한 지속적 혁신으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3 복지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가 복지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4 교구 중심 교구 중심제 안착을 위한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겠습니다.
5 불교문화 전통 불교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새로운 불교문화 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6 교육과 포교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포교에 힘쓰겠습니다.
7 회향 지혜와 자비를 이웃과 사회에 회향하겠습니다.

수행 이력
1973년 법주사에서 혜정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해인사승가대학 대교과, 중앙승가대학교 졸업.
금산사 서래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수선 안거.
안국사, 금산사, 개운사 주지 역임.
제11대, 제12대, 제13대 중앙종회의원,
호계원 사무처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2005년 제17교구 금산사 주지(8년),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제16대 중앙종회 의장 역임.
나눔의 집 상임이사, 지구촌공생회 상임이사 등 역임.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후보
원행스님 선거대책위원회

범어사, 불교문화 거점으로 우뚝선다

9월 11일 성보박물관 시삽, 2020년 완공 예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연면적 890평 1개동 규모
12월엔 사하촌 상마마을에
禪 체험의 문화교육관 완공
"성보 및 선문화 알릴 기회"


범어사와 사하촌 상마마을이 불교문화를 알리는 거점으로 변모한다. 사진은 9월 11일 열린 성보관 개토식 모습.

범어사 사하촌 상마마을이 새로운 불교전통문화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9월 11일 성보박물관 '성보관 건립 개토식'을 개최했다. 성보관 개토식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부주지 범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산재로 시작한 행사는 주지 경선 스님의 인사말, 테이프 커팅 및 시삽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이후 새롭게 건립될 성보관은 대지면적 1만㎡(3025평), 연면적 2951.55㎡(890여 평)의 건물 1개동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뤄져 있다. 불사 기간은 2년으로 완공 후 범어사 성보를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동안 범어사 안팎에서는 기존 성보박물관의 규모가 작아 새로운 성보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범어사는 부산시 문화재의 1/3인 100여 건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사찰 중 유일하게 〈삼국유사〉를 소장하고 있다. 보물인 〈삼국유사〉는 현재 국보 승격을 신청한 상태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의 사천왕도를 비롯해 조선 후기 불화 70여점 및 40여점의 진영 그리고 책판 16종, 편액 23종 등 불교문화재가 있다.

주지 경선 스님은 "2003년 급작스럽게 건립된 성보박물관은 수많은 범어사 문화재에 비하면 턱 없이 작은 규모였다"며 "세미나실이 없고, 직원 사무실도 열악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보를 대중들에게 잘 보여 줄 수 없어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성보관 개토는 범어사의 성보를 알리기 위해 20년을 기다린 중요한 불사다"고 강조했다.

성보박물관 불사 소식과 함께 다가올 12월에는 범어사 상마마을에 불사 중인 선문화교육관이 완공된다. 선문화교육관은 국비 21억, 시비 20억, 구비 1억, 범어사 자비 28억 등 총 70억이 투입된 불사로 상마마을 사자암 일대에 위치한다.

선문화교육관은 대지 면적은 5315㎡이며, 건축면적은 1832.58㎡, 총 연면적은 2981.27㎡ 규모로 선체험교육관 및 선문화관 등 2개동으로 구성된다.

선문화교육관은 숙박형 템플스테이, 명상 체험, 사찰음식 체험, 다도 체험 등이 가능하도록 꾸며지며, 한국의 고유문화인 선(禪)을 보급하고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명상의 세계를 소개할 공간이다.

이와 함께 상마마을 진입도로도 10월 중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확대 개통돼 접근성도 높아져 활기를 더하고 있다.

한편, 범어사는 9월 10일 53선지식 1000일 화엄대법회를 열고 추석맞이 사랑의 백미 20kg 200포를 부산 금정구청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새롭게 임명된 박수관 범어사 신도 회장의 인사말도 이어졌다. 박 회장은 "범어사는 불도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찰이고 도량"이라며 "함께 정진하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 조력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버드나무 심기도 '방생' 입니다"

불교환경연대 방생법회 모집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9월 29일 영산강, 10월 20일 낙동강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버드나무 방생법회를 추진한다.

불교환경연대는 2017년부터 3개년 중점사업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버드나무 심기' 운동을 추진 중이다.

버드나무는 1주당 1만원으로 버드나무 방생법회 동참금은 2만원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청소년은 무료로 봉사시간 4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9월 15일 금강 합강공원에서 불교환경연대 회원들과 논산 지장정사 법원 스님, 신도들이 참여한 방생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일 스님은 "강에 물고기를 놓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강을 살리기 위해 버드나무를 심는 것 역시 방생"이라고 강조했다. (02)720-1654

김지원 기자

장학퀴즈대회 더한 '제10회 나란다축제'

9월 8일 동국大 서울캠퍼스서 개막



2인 1조로 총 8개 팀이 참여한 장학퀴즈 고등부 대회.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과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9월 8일 동국대 서울캠퍼스서 '제10회 나란다축제'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나란다 장학퀴즈대회'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2인 1조로 총 8개 팀이 참여한 장학퀴즈 고등부 대회는 1단계 연상퀴즈, 2단계 객관식, 3단계 주관식으로 진행됐다. 대상 장학금 300만원의 주인공은 칠곡도량 대표 정태현 · 권기현 학생이었다.

정태현(고1) 군은 "고학년 형, 누나들이 교과 · 시사상식 문제를 더 잘 맞출 거라 생각해 우승할 줄 전혀 몰랐다"며 "어릴 적부터 포교사인 아버지와 함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나란다 축제는 불교교학 프로그램인 '불교교리 경시대회' '나란다 장학퀴즈' '우리말 독송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와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인 '붓다야! 놀자' '전통문화체험마당' '나란다 K-댄스 경연대회' '전통예술 경연대회' 등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독송대회 무대 주변으로 동국대 학생회 등이 준비한 다양한 놀이부스들이 펼쳐졌다.

지홍 스님은 "청소년과 청년들 신심이 건강하게 자리잡고, 미래사회 큰 인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한다"며 "축제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인 지혜와 자비를 즐겁게 배워 앞으로 삶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전! 범종을 울려라' 결선은 충남 계룡대서 마무리된다. 동국대서 진행된 일반부와 초등부에 이어, 10월 6일 5개 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결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조계종, '베트남 민간희생자' 위해 나서다

사노위 · 원오사, 9월 9일 베트남戰 양민 추모제 봉행



추모제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아미타불 정근을 하는 모습.

베트남 '하미마을 학살사건'
50주기 기려 희생자 추모…
정부에 공식사과 · 배상 촉구

"베트남 전쟁기간 국군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은 80건, 희생자 수는 9000여 명에 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상처와 아픔을 보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베트남 불교사찰인 인천 원오사(주지 틱 뜨엉 탄)와 9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서 '베트남전쟁 양민 희생자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날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 사회국장 해공 스님과 사노위 소속 스님, 베트남 팃 정 만 스님을 비롯, 전국 재한 베트남인 250여 명이 추모에 동참했다.

이번 추모제는 한국 불교계가 베트남 전쟁 당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역사를 반성하고, 희생자 극락왕생을 발원하고자 마련됐다. 사노위원장 혜찬 스님은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나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올해 '베트남 하미 양민 학살 사건' 50주기를 기리며 늦었지만 희생된 베트남인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1968년 2월, 한국 해병대 소속 청룡부대는 베트남 꽝남성 소재 하미마을의 비무장 민간인 135명을 학살해 가매장했다. 2시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무고하게 희생당한 이들은 이미 피신해버린 남자들이 아닌, 노인, 여성, 어린아이들이 주를 이뤘다. 그간 공론화되지 않았던 해당 사건에 대해 스님들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사회부장 진각 스님은 "베트남전 양민 희생자 분들이 한국 스님들의 목탁과 염불소리를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위안삼아 좋은 세상에 태어나시기를 부처님께 간곡히 청원한다"며 "한국정부는 이 분들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희생자 유가족 · 베트남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 및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불교계도 한국 불교계와 함께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 베트남불교협회 중앙예식국 부국장 팃 w찌 스님은 팃 정 만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서 "최근 한국 사람들은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양민들의 아픔을 달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부처님 제자로서 포용과 자비로 아픈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을 함께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통역을 맡은 원오사 부대표 루이엔(41) 씨는 "조계종 스님들의 말씀을 듣고 중간 중간 감정이 북받쳐서 울먹이며 통역을 계속했다"며 "베트남도 아닌 머나먼 한국에서 베트남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행사를 마련해준 것이 감동적이다. 한국인들이 과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한 것도 고맙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심경이었다"고 말했다.

사노위 측은 한국서 치른 추모제에 이어 내년 베트남 현지서 양민 희생자 위령제를 거행할 계획이다. 김지원 기자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포럼 개최

9월 6일 현황점검 · 해법모색

서울시가 만 50세 이상 어르신들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센터장 희유)는 서울시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공동주최로 9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강당서 '제1회 시니어일자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성미선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종국 서울시의회 종로구 시의원을 비롯, 시니어 구직자 · 구인처, 일자리 지원기관 실무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니어를 위한 내-일(Job&Future)을 실험하다'란 주제 아래, 행사는 공공 · 민간 양 부문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참여해 1부 기조강연(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2부 패널토크로 나눠 진행됐다.

센터장 희유 스님은 "시니어 일자리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시니어일자리포럼을 마련했다"며 "본 포럼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모델 발굴 및 민관 협력방안 모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지원 기자

大韓佛教 曹溪宗 第14教區 本寺
金井叢林 梵魚寺
부처님 마음
한가위 마음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불기 2562년 9월 10일 실시한 사랑의 백미 전달식 모습
방 장 지유 큰스님
주 지 경선
총무국장 보운
범어사 신도회 회장 박수관 합장
매월 초하루 큰스님 모시는 화엄대법회
[화엄천일기도]
www.beomeo.kr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051)508-3122

1번 혜총 스님

“수행 · 전법하는 종단 구현”

사부대중 종단 참여… 전국 포교 공간 확보 ‘주력’

“수행하며 전법하는 종단,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종단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자와 국민에게 존경받는 승단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기호 1번 혜총 스님(前 대각회 이사장)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한국불교 역사상 지금처럼 불교가 불자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혜총 스님의 공약은 △수행하는 종단 △전법하는 종단 △함께하는 종단 △존경받는 승단이라는 4대 운영기조로 정리된다. 또한 각 기조마다 7개씩 총 28개의 종책과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수행하는 종단’을 위해 혜총 스님은 원로 중심의 안거수행과 일상 중심의 생활 수행을 비롯해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제도 마련, 수행자를 위한 평생교육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전법하는 종단’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신도시에 거점 포교사찰 설립 · 지원 △포교원 행정을 전략 개발로 전환 △계층, 직능 법회 활성화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등을 공약 사업으로 제시했다.

‘함께하는 종단’은 사부대중의 종단 참여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스님은 종단 운영기조를 사부대중 참여기조로 전환하고 교역직 비구니 스님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구니 교구 설립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혜총 스님은 “현재 비구니 스님들의 참정권은 많이 적은 편”이라며 “비구니 교구를 만들어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세우고 등용하겠다. 교역직 참여율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소 스님의 지론인 ‘동진 출가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인구 감소가 출가자 감소로 이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영아원을 만들어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받아들여 사부대중의 힘으로 키우자는 게 스님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승가 영아원 · 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교 등 동진 승가교육기관을 건립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존경받는 승단’을 위해서는 △총무원장 임기단임제 실시 △호계위원으로 율사 충원 △종교법인법 도입 △승려노후복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혜총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직선제 전환과 포교 공간 확대 방안 등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특히 포교 공간 확대에 대해 스님은 “500개 신행포교단체들이 기거하고 10만 명 이상이 모여 법회하며, 불교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전국의 포교전법회관 건립을 총무원장이 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혜총 스님은 “수행하지 않는 불교, 전법하지 않는 불교, 함께하지 않는 불교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기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전법하며 함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행과 포교를 잘해서 불법이 융성하면 불자들이 신명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포교 현장에서 평생을 살아온 원력과 노하우로 발전하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혜총 스님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역할도 당부했다.

스님은 “이번 선거는 실패한 지난 총무원장선거를 다시 치르는 불사로 더 이상 종도들로부터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단 선출부터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도 한 점의 후유증도 남지 않는 원만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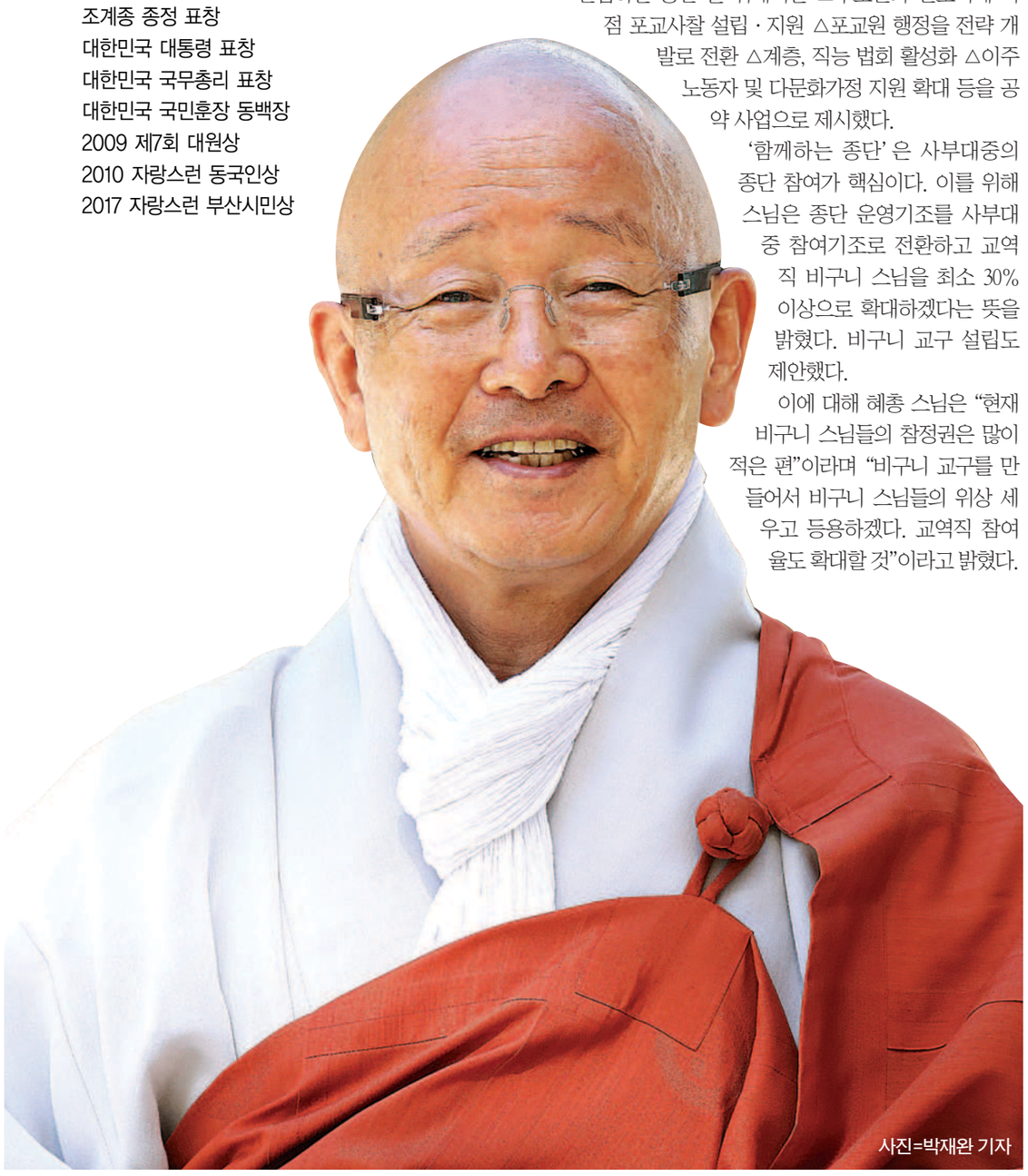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경력 및 이력

보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56년 통도사서 자운 스님에게 사미계 수지
1963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에게 구족계 수지
1972년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1974년 동국대 석사과정 수료

동국대 석림동문회장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대한불교 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부산용호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이사장
(사)참여불교운동본부 이사장
조계종 포교원장

조계종 포교대상
조계종 종정 표창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국무총리 표창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2009 제7회 대원상
2010 자랑스런 동국인상
2017 자랑스런 부산시민상



사진=박재완 기자

후보와의 질의응답

Q. 현 불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A. 현재 한국불교의 선결과제는 ‘화합’이다. 스님, 신도, 대사회 관계 전반에 걸쳐 불목하고 있다. 화합을 하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 위치에 서 있을 때 가능하다.

Q. 비구니 교구 설립이 눈에 띈다
A. 이제는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부 · 국장들도 40~50%는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해야 한다. 최소 30%이상은 비구니 스님들이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총무원장 임기 단임제를 이야기했다.
A. 총무원장 단임제를 하게 되면 4년동안 자기의 역량을 100% 몰두할 수 있다.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탄력적이면서 연속적으로 운영토록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4대 운영기조

1. 수행하는 종단
2. 전법하는 종단
3. 함께하는 종단
4. 존경받는 승단

눈여겨볼 종책과제

수행
원로중심 안거수행과 승풍 진작
간화선의 대중화를 위한 법 · 제도 마련
사부대중 함께하는 중장기적 수행프로그램
수행자 소양교육 위한 평생교육원 설립

전법
수도권과 신도시 거점 포교사찰 설립
포교원 행정시스템 지원 · 전략 개발
총무원 기능 교육원 · 포교원 지원 시스템 전환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활성화

화합
종단 운영 사부대중 참여기조로
자치책임제 도입, 지역 업무 본사 이관
총무원 교역직 비구니 참여 확대
동진 승가교육기관 설립

신뢰
총무원장 임기단임제로 갈등 해소
호계위원, 율사에 준하는 승려 발탁
호법부 교역직, 청렴성 검증해 임명
한국불교 문화예술 국제교류로 전파



포교원장 재직 당시 열린 2009년 포교원장배 축구대회서 혜총 스님이 시축하고 있다.

제47차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귀의 삼보 하옵고

그렇게도 무덥던 더위도 어느새 지나가고 산뜻한 가을 향기 문 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과 소중한 인연이 깃 든 운문도량에서 선, 후배스님들을 모시고 총동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뜻있는 시간 함께 해 주시길 청합니다.

일 시 | 불기 2562년 (2018년) 양력 10월 4일 (음력 8월 25일) 오후 2시
장 소 | 운문사 선열당
안 건 | •동문회 임원 선출 건
•장학금 전달식 (필히 본인 참석)
•기타, 모교 발전에 관한 건
전화 | 054-370-8800 (운문사 종무소)
054-632-7217 (동문회 회 장)

※ 장학금 신청자는 9월 20일까지 운문사종무소로 재학증명서를 제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심제 합장

“소통과 화합으로 미래불교를”

2번 원행 스님

대중공의에 ‘중점’… 종단 현안 해결 최우선

“참회로 시작합니다. 화합으로 열겠습니다. 혁신으로 가겠습니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기호2번 원행 스님은 얼마 전까지 중앙종회의장이라는 중책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과 교육, 포교, 복지, 불교문화, 사회적 역할 등 종단 전반에 걸친 종책을 마련했다.

우선 원행 스님은 △하심의 마음으로 소통과 화합 △대중공의 통한 지속적 혁신 △노후 걱정 없는 승가복지 △교구중심제 안착 △새로운 불교문화 시대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포교 △지혜와 자비, 이웃과 사회에 회향 등을 골자로 한 7대 중점 종책을 제시했다.

이 중 최우선 가치로 꼽은 것이 바로 종단 안정과 소통·화합이다. 원행 스님은 자신에 대해 “큰 장점이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렇기에 종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불어 화합하면서 나아가자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공의를 통한 지속적 혁신으로 대중과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종책기조 역시 맥을 같이 한다. 원행 스님은 ‘종단 및 사회 각 분야별 대중공의 체계 마련’을 실천과제로 세울 정도로 소통과 화합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도 승가복지와 교구중심제 등 종단 현안에 대해서도 세세한 실천과제들을 정리했다.

원행 스님은 “중차대한 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단 화합이 우선이다. 종정 예하와 제방의 원로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사부대중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소수의 지적과 제안도 크게 듣겠다”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소외받는 종도가 없도록 살피면서 갈등을 종단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각 종책별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교구 특별분담사찰 지정 △전국비구니회 종법기구화 및 비구니특별교구 설립 △공원에 편입된 사찰토지 보상 추진 △교구별 노스님 수행관 건립 지원 △계층별 포교 콘텐츠 생산 △사회노동위원회 활동 지원 및 강화 등이 눈길을 끈다.

특히 교구 발전을 위한 교구행정 책임제를 도입하고, 말사주지 인사권을 교구에 이양해 종무행정 시스템에 변화를 주겠다는 공약은 교구별 특성화 전략을 세우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임의단체인 전국비구니회를 종법기구로 격상하는 것은 종단 내 명확한 역할이 부여되지 않은 비구니스님들의 권익 향상을 이끌 복안으로 풀이된다.

원행 스님은 이번 선거가 범계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물러난 전임 총무원장의 궐위로 진행되는 만큼 낮은 자세로 조용히 선거운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선거대책본부도 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산사 문중 등 원행 스님과 인연 닿는 몇몇 스님들과 종책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견발표 기자회견에도 대변인 일감 스님을 비롯해 前사서실장 삼혜 스님, 중앙종회의원 화평 스님과 덕산 스님 등 비교적 적은 인원이 배석했다.

원행 스님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축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상처를 보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선대본을 구성하지 않았다”면서 “오직 사부대중을 믿고 사부대중과 함께 안정과 화합, 혁신으로 새로운 조계종을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호섭 기자

후보와의 질의응답

Q. 해묵은 과제 중 하나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원칙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정신에 맞게 대중갈마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치들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만, 대중이 충분한 공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으로 제도를 택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Q. 사회노동위원회 활동 강화가 종책에 있습니다. 불교 내 노동문제 개선책은 없으신지요?

A. 그간 절집에서는 노동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도하고, 별도 기구를 통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재정적인 한계 내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총무원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A. 먼저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하긴 애매하지만 현재 종단 구성원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어진 간극을 좁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대 중점 종책

1. 하심의 마음으로 소통 화합
2. 대중공의 통한 지속적 혁신
3. 수행·전법에 전념하는 복지
4. 교구중심제 안착 위한 노력
5. 전통불교문화 창조적 계승
6.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포교
7. 지혜와 자비 이웃에 회향

눈여겨볼 종책과제

소통	대국민 신뢰회복 과제 수립 분야별 대중공의체계 마련
행정	교구 특별분담사찰 지정 교구행정 책임제 도입 전국비구니회 종법기구화
문화	공원 사찰토지 보상 추진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
복지	생애주기별 복지모델 구축 교구별 노스님 수행관 건립 권역별 의료시설과 MOU
포교	재가불자 신행프로그램 개발 계층별 포교 콘텐츠 생산



2014년 만해대상을 수상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현재까지 원장을 맡고 있는 원행 스님이 무대에 올라 올바른 역사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력 및 이력

월주 스님을 은사로 금산사서 출가
1973년 법주사서 혜정 스님에게 사미계 수지
1985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에게 구족계 수지
1984년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과 졸업
1991년 중앙승가대 졸업
2006년 세한대 졸업
2009년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행정학 석사
2013년 동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11·12·13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역임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역임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역임
중앙승가대 총장 역임
제16대 중앙종회의장 역임



사진=박재완 기자

제 11회 선운문화제에
초대합니다

제 11회 The 11th Seonun cultural festival
선운문화제
2018. 09 29-30

1,500년의 값진 인연, 선운사 보은염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제 24교구 본사 선운사
후원 문화재청 전라북도 고창군 GOCHANG COUNTY
협찬 한국동서발전㈜

고창군 선운사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선운사 Tel. 063-561-1422 / www.seonunsa.org

행사 일정

본행사 2018. 9. 29(토)

13:00 ~14:00	헌다례
14:00 ~15:00	보은염 이운식
15:00 ~16:00	경판이운식
17:00 ~19:00	선운사 산사음악회

부대행사

9월 29일 ~ 30일	불교문화체험
9월 30일	전통놀이체험전, 국악 버스킹 공연

연계행사

9월 20일 ~ 30일	꽃무릇시화전

3번 정우 스님

"불교 발전 디딤돌·마중물 되겠다"

교구 중심·포교 지원 초점… 비구니 역할 증대

"평생의 원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승가가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신바람 나는 포교를 위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선거 기호 3번 정우 스님(서울 강남 구룡사 회주)이 제시한 공약은 평소 스님의 지론이 담겨있다.

천막법당이었던 구룡사를 강남 포교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등 포교 현장에서 평생을 활동해왔던 정우 스님은 '총무원장'이라는 소임은 승가가 편안하게 수행과 포교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고, 포교 일선의 재가 단체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제시하는 자리임을 강조해왔다.

정우 스님이 공약으로 제시한 '10대 운영기조 36대 사업과제'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스님은 10대 운영기조로 △교구본사 중심의 종무행정 △소통과 자문을 통한 종단 운영 △불교문화 창달 △전법과 포교활동 지원 △출가 인재를 육성하는 승가교육 △승가복지제도 확립 △비구니 특별교구 설립과 위상 강화 △종단의 사회적 역할 강화 △종헌 종법령 재정비 △수행가풍 진작과 화합종단 구현을 제시했다.

집중된 중앙의 권한은 나누고 어려운 지역 포교 현장에 더 지원하는 것이 정우 스님이 제시한 10대 운영기조의 핵심이다.

이는 첫 번째 기조로 제시한 '교구본사 중심의 종무행정'에서 잘 나타난다. 종단 구성의 중추이자 수행·포교의 중심인 교구본사가 활성화되기 위한 구체적 사업 과제로 정우 스님은 교구별 특별분담사찰 운영 △중앙분담금을 교구 포교·전법 사업에 활용 △중앙종무기관 기능 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스님은 "중앙분담금이 현재 73억 원 정도가 올라오고 있다. 이를 중앙 행정이 아닌 낙후된 지역의 포교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구 말사 주지 임명권도 교구에 이양하고 총무원에서는 주지 인사에 대한 신상 파악만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구본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연 4회로 본사주지회의를 확대하고 종단행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인사를 비롯해 종단 주요 사항을 자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포교활동 지원 공약도 눈길을 끈다. 정우 스님은 시대에 맞게 지역·계층별 새로운 포교 전략 수립과 대안 제시를 비롯해 신도시 밀집 지역에 도심사찰 건립, 해외 포교 활성화 등을 구체적 사업과제로 내놨다.

스님은 "총무원·포교원·교육원이 협력해 새로운 포교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특히 인구 밀집 도심에 사찰을 건립해 전법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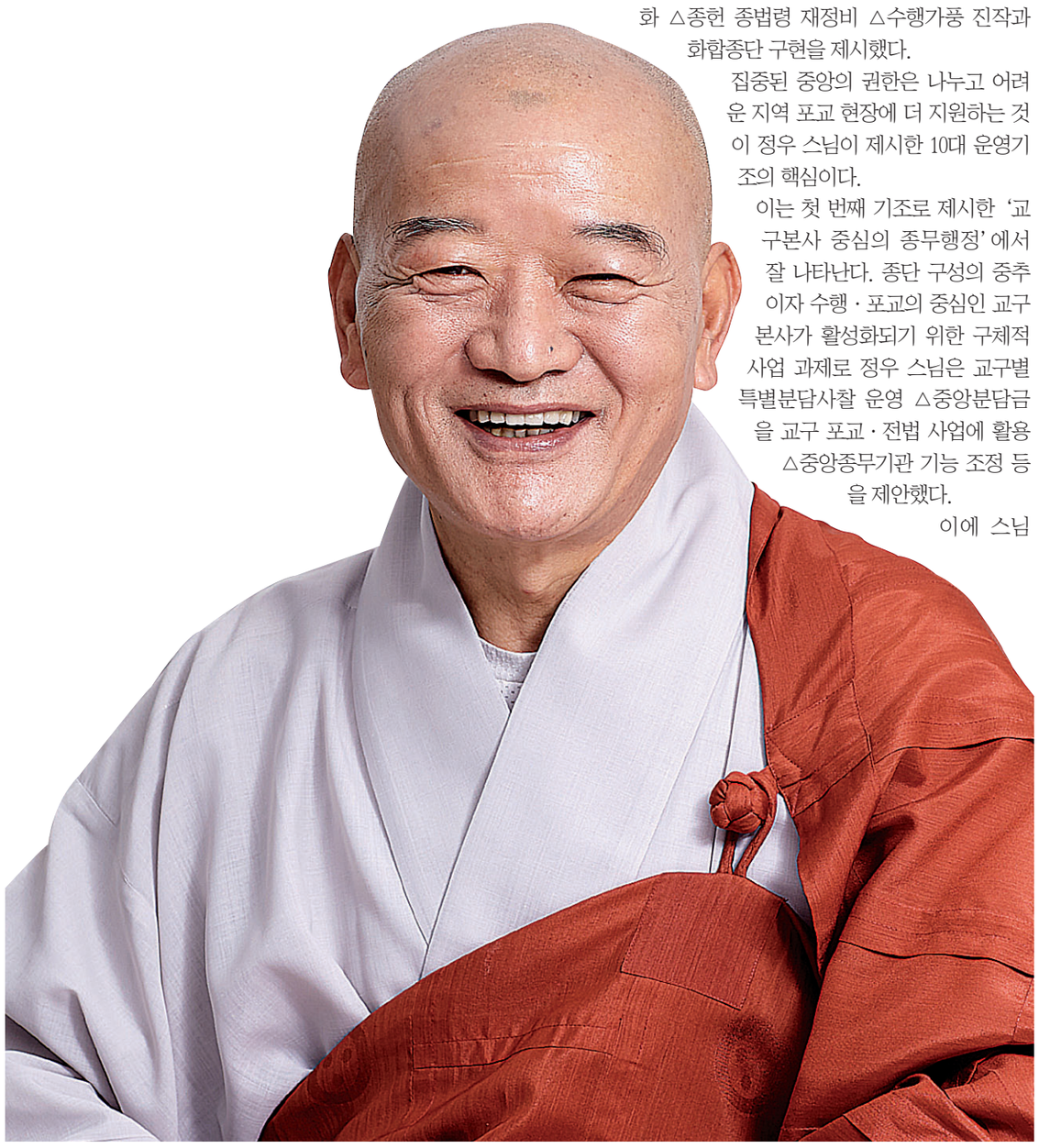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에 대한 공약도 제안했다. 정우 스님은 비구니 특별교구를 설치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종책과제를 제시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종단과 교구가 함께 책임지는 승가복지제도 확립을 위해 교구별 노스님 수행관 건립과 장례지원, 중증질환 의료비 확대, 안정된 승려복지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다.

시대에 맞는 종헌 종법·령 정비를 통한 징계와 양형기준 정비, 선거 공영제 운영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스님은 "무엇보다 선거공영제 운영 등을 통해 임기 내 바른 선거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정우 스님은 '화합'하는 종단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이에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 불교의 모습에 우려를 전하고 있다. 이는 불교를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며 "이부대중의 틀을 개선해 사부대중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화합 종단의 기틀을 만들겠다. 반목과 갈등서 벗어나 열린 종단과 청정수행 가풍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력 및 이력

홍법 스님(前 통도사 주지)을 은사로 출가
1968년 통도사서 월하 스님에게 사미계 수지
1971년 통도사서 월하 스님에게 구족계 수지
1974년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
1978년 월정사서 탄허 스님에게 화엄학 수학
1985년 서울 양재동에 통도사 서울 포교당 구룡사 건립, 현 구룡사 회주

제11·12·13·14대 중앙종회의원
제15교구 통도사 주지 역임
제3대 군종특별교구장 역임
총무원 총무부장 역임

후보와의 질의응답

Q. 가장 먼저 시행할 종책과제는?
A. 모든 종책이 중요하지만, 교구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최종적으로 총무원은 교구 발전을 위한 윤활유이자 비타민의 역할을 해야 한다.

Q. 비구니 역할 증대 방안은?
A. 현재 비구니 스님들은 수도 많고 교육 수준도 높다. 그 스님들이 마음껏 효율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비구, 비구니로 구분져선 안된다.

Q. 징계와 양형기준 정비 공약에 대해
A. 해방 이후 230명 정도의 스님들이 멸빈됐다. 이중에는 억울하게 징계받은 스님도 많다. 총무원장이 된다면 멸빈자 사면을 중앙종회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10대 운영기조

1. 교구본사 중심의 종무행정
2. 소통과 자문을 통한 종단 운영
3. 불교문화 창달
4. 전법과 포교활동 지원
5. 출가 인재를 육성하는 승가교육
6. 승가복지제도 확립
7. 비구니 역할과 위상 강화
8. 불교의 사회적 역할 증대
9. 종헌 종법령 재정비
10. 수행가풍 진작과 화합종단 구현

눈여겨볼 종책과제

종무행정
- 교구활성화 T/F 구성
- 교구별 특별분담사찰 운영제도 마련
- 중앙분담금 교구포교·전법 사업 활용
- 본사주지회의 연 4회로 확대
- 비구니 특별교구 설립

전법·포교
- 사회 변화 부합하는 포교 전략 수립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교 시행
- 신도 등록 등 신도 종책 재정비
- 신도시 사찰 건립과 해외포교 활성화

승가복지
- 교구별 노스님 수행관 건립 및 장례지원
-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 안정된 승려복지기금 조성

문화
- 템플스테이 특성화와 확산 전략 수립
- 불교문화사업 육성 및 확대
- 성보 문화재 보호와 유지관리 강화



제3대 군종특별교구장 당시 정우 스님이 일선 장병들에게 핫팩을 나눠주고 있다.



지역	사찰명	일정	프로그램명	참가대상
서울	경국사	9.22~9.26	추석맞이 특별 휴식형	누구나
	금선사	9.22~9.26	추석연휴(休) Just Hue(休)	누구나
	봉은사	9.22~9.23	다도배우기 템플스테이	성인
	화계사	9.21~9.22	한가위를 북한산에서	초등~성인
대구	동화사	9.23~9.26	휴식형 템플스테이	성인
경기	법륜사	9.23~9.25	달님에게 말해봐~	누구나
	봉선사	9.23~9.26	달과 함께 쉬어가다	누구나
	백련사	9.23~9.25	한가위, 마음 달을 찾아서	중등~성인
	용문사	9.24~9.25	보름달밤의 캠프파이어	누구나
	용주사	9.22~9.24	한가위 집중 명상 템플스테이	고등~성인
	육지장사	9.22~9.26	경제가 어렵더라도 몸이라도 건강해야지요 (단식형, 체험형 템플스테이)	성인
		9.22~9.26	한가위 게르마늄 스파+디톡스 체험형 (단식형 템플스테이)	성인
	흥국사	9.22~9.27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	누구나
강원	낙산사	9.23~9.26	휴식형 템플스테이	중등~성인
	백담사	9.23~9.24	제15회 한가위 템플스테이	초등~성인
	설악산신흥사	9.23~9.26	한가위엔 한가하게	성인
	월정사	9.22~9.23	추석맞이 달빛포행 템플스테이	초등~성인
충북	석종사	9.23~9.26	달빛 머무는 날에	성인
충남	갑사	9.23~9.25	한가위 템플스테이	누구나
	마곡사	9.24~9.26	마곡사 전통놀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무량사	9.22~9.26	한가위를 한가롭게 무량사에서	누구나
	서광사	9.23~9.26	나를 찾아서...	누구나
전북	수덕사	9.23~9.25	2018 한가위 템플스테이	누구나
	내소사	9.22~9.24 9.24~9.26	추석 달빛따라~	누구나
전남	도갑사	9.22~9.23	꿈에 그린 달빛(체험형)	누구나
		9.22~9.26	꿈에 그린 달빛(휴식형)	누구나
	대흥사(해남)	9.23~9.25	추석 디디고 특별 템플스테이	누구나
	미황사	9.23~9.25	추석 달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화엄사	9.21~9.25	한가위 보름달아!	누구나
경북	골굴사	9.22~9.26	달을 품은 움직이는 선	누구나
	심원사(성주)	9.23~9.26	추석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직지사	9.22~9.26	내 마음의 작은 쉼표	누구나(외국인)
		9.22~9.26	내 마음 바로보기	초등~성인(외국인)
	축서사	9.22~9.26	쉬고 쉬고 추석도 쉬고	누구나
경남	문수암(산청)	9.22~9.26	문수암 달빛 아래 노닐다	성인
	통도사	9.23~9.25	통도사 달빛아래	누구나
	쌍계사(하동)	9.22~9.25	2018 내 안의 달빛을 머금다(체험형)	초등~성인
제주	관음사	9.21~9.26	마음 숲 여행	초등~성인
		9.21~9.26	율로 옵서예	초등~성인

“시대정신으로 불교를 새롭게”

4번 일면 스님

8대 핵심 종책

1. 종헌질서 확립과 종단 위상 제고
2. 종무 교구 이관, 교구중심제 실현
3. 재정투명화, 종단 · 교구 기반 구축
4. 승려복지 종단 의무화 확대
5. 종단 교육혁신 및 포교종책 다각화
6. 불교전통 문화 육성과 지원
7. 종단의 사회적 책임과 공동선 실천
8. 불교 법령 제개정 통한 불교 발전

눈여겨볼 종책과제

위상
- 종단 사법권 강화
- 종헌종법연구위 설치 및 종회 전문화
- 사부대중 종단 혁신위 구성

행정
- 교구별특성화 전략 지원
- 인사권 이양 등 교구인사제도 개선
- 교구종무행정인력 양성

복지
- 종단 책임제 명문화
- 교구별 승려복지기금 운영사찰 지정
- 교구별 승려노후수행관 설치 입법화

포교
- 교구별 신도시 거점포교사찰 건립
- 신도 자원봉사센터 설립
- 불교시민사회단체 지원 확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으로 일면 스님은 수많은 사회 소외계층을 만나고 이들을 지원했다.

전문위원회 구성 및 교구 행정 이양 강조

“열린 마음으로 총무원장의 권한이 있다면 내려놓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다 함께 손잡고 가겠습니다. 승단 외에도 외부의 훌륭한 전문가들을 모셔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기호 4번 일면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은 처음 만나는 이라도 편안함을 느끼는 미소로 마음을 열게 한다. 스님의 공약에는 이런 열린 마음, 대중이 함께하는 종단 운영의 의지가 담겨있다.

불교대표 장기기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안착시킨 스님은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다시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들었다. 이를 위해 스님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행정의 전문화를 꾀함과 동시에 교구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종단 행정을 쇄신해 갈 것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시대정신으로 새롭게 불교발전을 이끌겠다’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8대 종책으로 △종헌질서 확립과 종단 위상 제고 △종무행정 교구이관 및 교구중심제 실현 △사찰 재정관리 투명화 △승려복지 종단의무화 확대 △종단 교육혁신 강화 및 포교종책 다각화 △불교전통문화 육성과 지원 △종단의 사회적 책임과 공동선 실천 △불교관련 제법령 및 종법 제개정 통한 종단 발전 등을 들었다.

스님이 말한 시대정신은 대중들의 종단 운영 참여에서 드러난다. 총무원장의 권한을 나눠 보다 많은 이들의 지혜를 모으겠다는 것이다.

스님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총무원장이 되려는게 아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원장, 그리고 종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님은 종헌종법연구위 설치와 종단혁신위 구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무엇보다 종단 위의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진력하겠다”며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각 현안마다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를 구성해 열린 마음으로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구중심제 실현을 위해서 전면적인 행정시스템 개선도 제시했다. 교구중심제를 위해 먼저 교구행정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교구별 특성화 전략 수립을 중앙에서 지원한다. 또 말사 주지 인사권의 교구이양, 중앙 종무인력 교구 지원도 이뤄진다. 개별 교구의 재정기반을 다지기 위해 조계종 빅데이터 분석센터 설립해 지역별 수익사업 다각화하고 사찰운영위 활성화 통한 재정 투명화 실현도 약속했다.

스님은 또 승려복지의 확대도 주장했다. 승려복지의 종단 의무화 확대를 위해 종단 책임제를 법령에 명문화하고, 교구별 승려복지기금 운영지원사찰을 지정해 재원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교구별 승려노후수행관 설치 및 운영도 입법화된다. 출가수행자의 중증질환 의료지원 확대도 꾀한다.

스님은 초대 군종교구장 역임 등 포교 일선에서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포교종책의 다각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교구별 신도시 거점 포교사찰 건립이다. 스님은 “본사에서 부지를 마련하면 본사와 중앙에서 불사비용을 마련해 본사별 1개 도시의 거점 포교사찰을 만드는 것”이라며 “기금 확보는 중앙과 지역본사에서 모연조직 활성화, 모연 다각화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도 자원봉사센터 설립, 불교시민사회단체 지원 확대와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기능 강화 등 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스님은 “종단 백년대계가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일불제자의 결연(結緣)에 있음을 명심하고 있다”며 “대중 여러분이 믿고 성원해 주신다면 기꺼이 백척간두에서 온몸을 내던지는 구법정신을 발휘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후보와의 질의응답

Q. 스님이 생각하시는 행정에 달통함은 무엇입니까?

A. 1980년대 일본에서 유치원, 복지관, 학교 등의 운영을 배워 왔습니다. 행정에 달통하는 것은 사찰 운영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등 사회에 밀접한 부분까지 깊게 알고 함께 경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Q. 다른 후보보다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이번 선거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훌륭한 분이시고 장점이 많습니다. 굳이 장점을 꼽으라면 전부 아울러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총무원장의 권한이 있다면 내려놓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다 함께 손잡고 가겠습니다.

경력 및 이력

합천 해인사에서 명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4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에게 사미계 수지
1967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에게 비구계 수지
1968년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
1979년 동국대 불교대학 승가학과 졸업

現조계종 원로의원
現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現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제9 · 10 · 11 · 12 · 13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제3대 교육원장 역임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역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초대교구장 역임
조계종 호계원장 역임
학교법인 동국대 제38대 이사장 역임



사진=박재완 기자



불화승 신겸 조성 추정 감로도 어디에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⑰ 안동 용담사의 도난 성보





1984년 8월 21일에 도난된 안동 용담사 신중도(사진 왼쪽)와 용담사 감로도(사진 오른쪽). 두 불화 모두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성보이지만 도난당했다. 현재는 조계종 문화부에만 신고가 돼 있는 상황이다.

용담사, 안동 지역 중요 사찰
100년 전까지 191점 성보 존재
1984년 감로도 · 신중도 도난돼
산내 암자 조사 진영도 '묘연'
종단만 알려…문화재청 신고 안돼

일반적으로 경상북도는 민속학계에서 북부내륙권, 중서부권, 동부해안권으로 나누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근접성과 인간들의 활동범위를 근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권역의 구분은 조선후기 불교미술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이다.

이 가운데 북부내륙권의 중심지는 유교문화의 산실인 안동이다. 안동은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이지만 불교문화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특히 광흥사, 봉정사 등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많은 성보물이 남아있는 사찰이다.

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찰이면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찰이 용담사(龍潭寺)이다. 이 용담사는 황학산과 금학산이 맞닿는 계곡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황학산, 화부산, 연점산, 금학산, 그리고 천지갑산(天地甲山)이 모여 있는 안동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골짜기로,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청정지역이다.

사찰이 번창할 당시에는 많은 승려들이 수도를 하여 쌀 씻은 물이 멀리 7km 떨어진 묵계까지 이어질 정도였다고 한다. 그만큼 용담사는 스님과 신자들이 많았고, 부속암자도 3개나 있었을 정도로 사찰 규모가 제법 컸던 것으로 보인다.

용담사는 1913년 2월 사찰령(寺刹令)에 의하여 고운사 본말사법(本末寺法)이 시행된 후, 현재 조계종 제16교구 고운사의 말사이다.

용담사는 664년에 화엄(華嚴)이 창건하여 몇 차례의 중수를 거쳐 1574년에 혜증(惠證)이 중건하였다. 18세기 후반 이후에 편찬된 〈신증안동부여지지(新證安東府輿地誌)〉 '불우(佛宇)' 조에 용담사가 적혀 있고, 19세기 초에 위규(瑋珪)가 어려서 이 절로 출가하여 완첨(玩沾)의 법맥을 이었다는 기록을 통하여 임란 이후에도 사찰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 사찰에 관련된 문헌이 남아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불사 내용은 알 수 없다.

현재 사찰 내에 남아있는 성보문화재는 무량전(경북 문화재자료 40호), 금정암 화엄강당(경북 문화재자료 317호)이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무량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집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구조이고, 화엄강당은 앞면 8칸 옆면 3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왼쪽 2칸을 부엌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칸 앞에는 툇마루를 두었으며 그 뒤에 법당과 온돌방, 창고를 배치하였다.

20세기 전반에 용담사에 소장되었던 성보문화재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조선총독부 관보본에 자세히 적혀 있다.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에 의하면 용담사와 암자에 봉안된 성보는 50건 191점으로, 이 중에 불상 4점, 불화 26점(아미타불탱 등 9점, 진영 10점)이 소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1932년 12월 24일에 작성된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불상 4점, 불화 22점(아미타불탱 12점, 진영 10점)으로 4점이 줄어들었다.

20세기 전반 사찰에 봉안된 불화의 종류는 관세음보살도(1점), 아미타회상도(3점), 지장보살도(2점), 신장도(4점), 감로도(1점), 독성도(1점), 산신도(4점)과 금정암에 봉안되어 있던 진영인 청허선사(淸虛禪師)진영, 영허선사(映虛禪師)진영, 송계선사(松桂禪師)진영, 용파선사(龍波禪師)진영, 금파선사(錦波禪師)진영, 회성선사(晦惺禪師)진영, 웅파선사(雄坡禪師)진영, 풍암선사(豊岩禪師)진영, 남악선사(南岳禪師)진영, 반학선사(伴鶴禪師)진영이다.

그러나 용담사에서 도난당한 불화는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신고되지 않았고,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 감로도(1984년 8월 21일 도난), 신중도(1738년 제작, 1984년 8월 21일 도난), 독성도(1984년 8월 21일 도난)만이 도난 신고되어 있다.(〈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 2016년 간행)

1984년 8월 21일에 도난당한 감로도는 영혼을 천도하는 불교의식을 화면에 표현한 불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6세기 이후부터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목련존자가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 천도재를 지냈다는 〈우란분경〉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조선총독부 관보 제1790호 9면(1932년 12월 24일)					비고
명칭	품질	수량	명칭	수량	품질	형태	크기	
觀世音菩薩	紬幀	1	觀世音菩薩幀	1	紗製	괘도	縱 6尺2寸 橫 7尺	유출
阿彌陀佛	〃	3	阿彌陀佛幀	3	同	同		유출
地藏菩薩	〃	2	地藏菩薩幀	2	同	同		유출
神將	〃	4	神將幀	4	同	同		도난1점 유출3점
甘露幀	紗幀	1	甘露幀	1	同	同	縱 7尺2寸 橫 8尺2寸	도난1점
聖尊者	紬幀	1	獨聖幀	1	同	同	同 3尺1寸 同 2尺5寸	도난1점
山靈	〃	4	山靈幀	4	同	同		유출
淸虛禪師	紗幀	1	祖師影幀	10	紗製	掛圖		유출
映虛 〃		1						
松桂 〃		1						
龍波 〃		1						
錦波 〃		1						
晦惺 〃		1						
雄坡 〃		1						
豊岩 〃		1						
南岳 〃		1						

즉, 지옥 아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망자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고자 하는 천도의식의 불화로 이해할 수 있다. 용담사의 감로도 또한 1811년(가경 16년) 영가천도를 목적으로 그려졌다. 불화의 크기는 세로 257cm 가로 229cm이다. 또 붉은색 바탕 위에 먹색으로 화면 하단 좌우에 화기를 적어두었다.

일반적인 감로도의 구성은 화면 상단권역에는 극락의 일곱 여래가 지옥중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와 있는 장면을 그리고 제단을 차리고 천도의식을 봉행하는 장면을 화면 중단에 그리고 하단부에는 풍속화 같이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의 육도세계를 묘사한다.

용담사 감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형식을 답습하지 않은 화면구도와 채색을 통한 대담한 표현력과 역동적인 필선에서 경상도 문경 대승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신겸 또는 그 계보에 속하는 불화승이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화승 신겸은 괄허취여의 법맥을 잇고 있는데 1788년 상주 남장사 불사에 참여한 스님들을 적은 〈불사성공록〉에 대승양공으로 적혀 있어 문경 대승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불화승임을 알 수 있다. 또 스님은 1820년에 의성 고운사 백련암 산신도 화기에 조실(祖室)로 나와 있다. 그의 진영은 문경 대승사 대성암에 남아있다.

용담사 감로도 상단에는 일곱 여래(다보여래 · 보승여래 · 묘색신여래 · 광박신여래 · 이포외여래 · 감로왕여래 · 아미타여래)와 함께 제단이 차려져 있는데 사발 가득 밥을 담아 공양올린 모습은 시식의례를 현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또 바라를 들고 춤을 추고 있는 작법승과 고깔을 쓰고 승무를 추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여 의식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소나무를 삽도해서 녹색을 두드러지게 사용하였고 불을 내뿜는 모습은 붉은색으로 강조한 용담사 감로도의 화면구성은 아귀와 지옥, 재를 지내는 장면, 북과 피리가 등장하는 굿판에서 춤을 추는 무당 등 각 내용마다 둥글게 에워싸고 있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군도형식은 19세기 후반까지 이어져 내려가는데 다양한 인물 군상표현을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감로도를 통해서 당시 인간들의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다.

감로도와 같이 잃어버린 용담사 신중도는 기존 연구에 따르면 1739년(건륭 4년)에 조성된 작품으로, 크기는 세로 120.5cm 가로 94.5cm이다. 화면 하단부에는 삼지창과 보검 등을 손에 쥐고 있는 8금강 가운데 4위를 그려 넣었는데 화면 중앙 두 금강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여 대칭구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옆의 금강은 화면 정면을 향하게 하거나 화면향좌를 향해 시선을 두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그 상단 좌우로는 원권형의 두광과 함께 합장한 모습의 위태천과 제석천을 표현했다. 천동과 천녀가 그 곁에 시립해 있는 등 단순한 구획의 신중도 화면하단 중앙에는 화기를 적어두었다. 녹색과 적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백토와 금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채색하였고 여백없이 채운으로 화면을 꽉 채우고 있다.

부처의 설법을 듣고 감화 받아서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선신에서 유래한 안동 용담사의 신중도는 화기를 통해 제작연대와 봉안처 그리고 제작과 관련된 시주자와 증명, 화원, 화주비구와 수화승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18세기 신중도의 흐름을 분석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에 도난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보다 더 세심한 사찰의 관심과 성보보존관리방안정책이 아쉽다. 그럼에도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적해 들어간다면 충분히 소명되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기해보는 바이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 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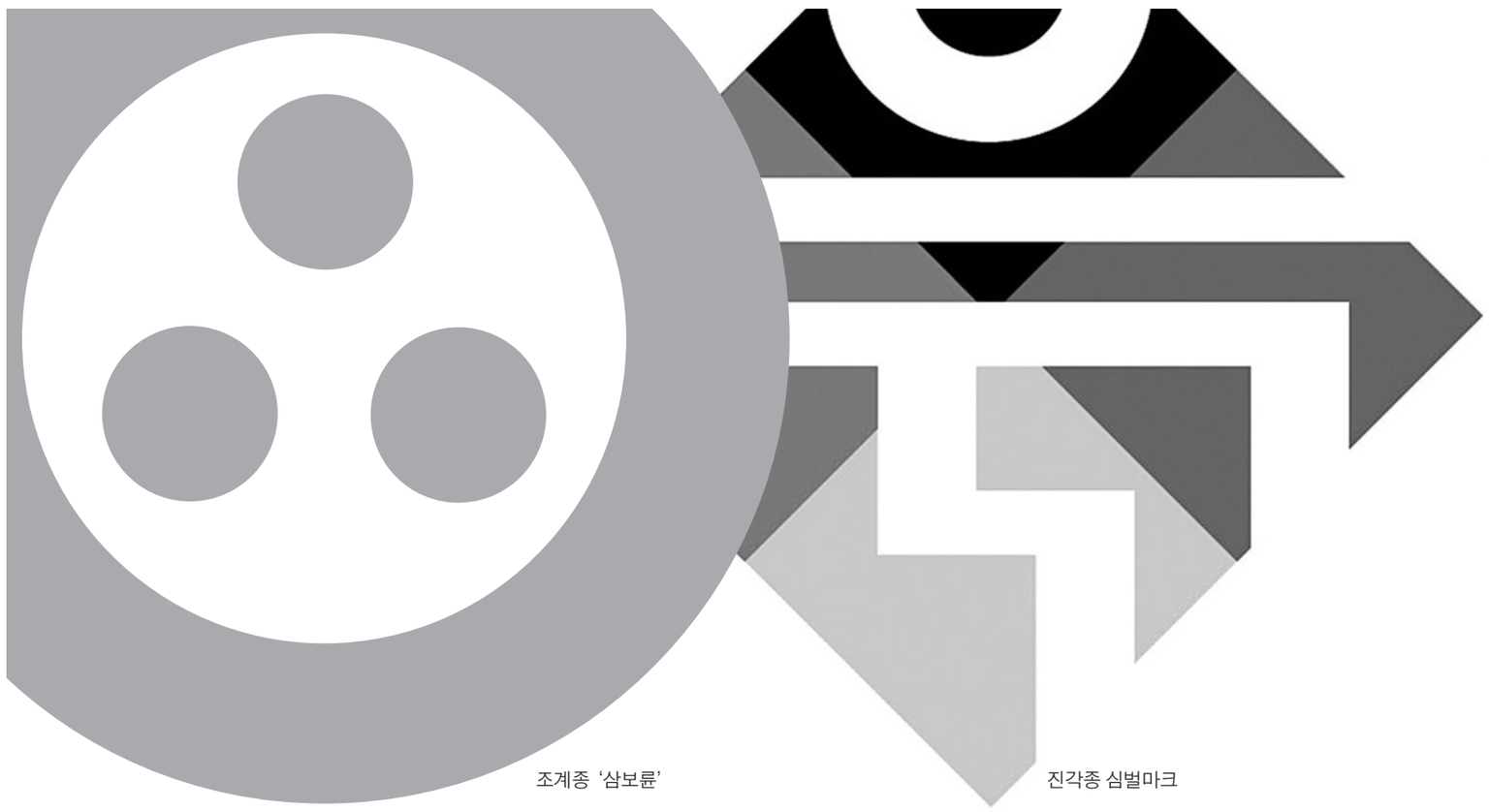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9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



조계종 '삼보륜'　　진각종 심벌마크

Temple Identity를 만들자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⑰ TI의 필요성

TI는 Temple Identity의 약자로 기업의 CI(Corporate Identity)에서 차용된 용어이다. CI는 기업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디자인 전략이다. 기업의 시각적 상징을 만들어 기업 이미지의 통일화를 꾀하는 것이다. CI의 대표적 사례로는 로고(logo)를 들 수 있으며, 흔히 CI를 로고라고 부른다. 애플, 삼성, 나이키, 아디다스, 샤넬, 스타벅스, 코카콜라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저마다 로고가 있다. 사람들은 로고만 보고서도 해당 기업을 알아본다. 때문에 기업들은 CI에 기업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담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한다.

불교적으로 이해하면, '만(卍)'자는 불교의 대표적 로고이다. 하지만 만(卍)자는 개별 사찰을 독립적으로 상징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전체를 상징하는 만(卍)자와는 달리 개별 사찰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TI가 필요하다. TI는 개별 사찰의 고유 문장(紋章)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각각의 사찰을 구별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징인 것이다.

각 불교종단의 문장을 연상하면 TI에 대한 이해가 보다 쉽다. 사람들은 종단 고유의 문장만을 보고서도 각각의 불교 종단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삼보륜' 마크를 종단 문장으로 사용한다. 삼보륜은 조계종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상징으로, 삼보의 신앙과 선교양종의 조계종의 이념을 담았으며, 사부대중의 화합 그리고 신앙과 포교를 통한 불국정토의 구현을 의미한다.

대한불교천태종은 금강저와 삼제원융이 결합된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 개의 청색 원을 포개어 놓은 위에 황색 금강저(金剛杵: vajra)를 상하로 세워 놓은 문양이다.

대한불교진각종은 금강계구회만다라(金剛界九會曼荼羅)를 원(圓)으로 표현하고 그 가운데 5불(佛)을 표시한 '금강륜상'과 전체적으로 사각의 다이아몬드(金剛)에 범어 '옴' 자를 새긴 형상을 TI로 사용하고 있다.

요즘에는 종단 이외에 개별 사찰과 재가수행단체들에서도 TI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봉은사는 좌선하고 있는 모습을 심플하게 표현한 TI를 홈페이지는 물론 명함, 공문서, 사보 등에 사용하고 있다. 수원 봉녕사 TI는 800년간 봉녕사를 지킨 향나무 위로 봉황이 날고, 아래에는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한마음선원 TI는 한마음선원의 칠보탑을 형상화한 것으로 세 개의 원은 과거 · 현재 · 미래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삼세(三世)가 공한 이치를 의미한다. 한마음선원은 TI를 상표 · 서비스표로 등록해 국내외 지원에서 발행되는 책과 정기간행물 등 각종 인쇄물과 판촉물, 웹사이트 등에 활용하고 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법륜 스님이 이끄는 정토회도 연꽃을 단순화한 TI를 플랜카드, 홈페이지,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물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TI를 단순한 시각적 미술품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TI는 사찰(Temple)의 정체성(Identity)이 담긴 대중적 이미지의 총체이다. 해당 사찰의 고유한 특성을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대중들에게 사찰을 친근하게 알리는 것이다.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선 TI에 사찰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함축되어 있어야 한다. 사찰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 그리고 미래의 비전이 담겨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TI의 제작은 시각적 디자인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찰의 역사와 비전을 담아내는 이념적 작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 TI가 필요한가?

첫째, TI는 사찰 브랜드 포교이기 때문이다. 브랜드(brand)란 특정 조직이 다른 조직과 구별되기 위해 사용되는 이름이나 기호, 의장(意匠)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바로 심벌마크, 로고, CI, 그리고 TI가 곧 브랜드다. 사람들은 브랜드만 보고서도 해당 기업과 상품을 떠올린다. 브랜드가 인지도를 높여주는 것이다.

TI는 사찰의 인지도를 높여줄 수 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국보 및 보물이 없는 사찰의 이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차별성 있게 인지되지 못한다. 불국사의 이름을 대면 석가탑과 다보탑이, 해인사의 이름을 대면 팔만대장경이 연상되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 사찰의 이름을 대면 그냥 별 차이 없는 절로만 인식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찰이 TI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TI로써 해당 사찰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대중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으로써 그 만큼 포교에 유리해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포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교화하는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선 우선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TI는 사찰의 막연한 이미지를 구체화하여 인지도를 높여줌으로써 사찰의 대중 접근성을 강화시켜준다. 그리고 사찰의 대중 접근성은 포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는 TI가 사찰 브랜드로서 사찰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만큼 포교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불교 종단별 상징 큰 효과
재가수행단체도 TI도입
사찰별 특성 반영해 개발해야

둘째, TI가 신도들에게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과 단체의 로고를 보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낀다. 외국에서 태극기를 보거나 국내 기업의 브랜드를 보면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도 그와 같다.

불자 역시 자기 사찰의 TI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것이다. 아마도 아파트 현관문에 붙어있는 교회의 CI(Church Identity)는 교인들에게 그와 같은 느낌을 주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국불교에 TI가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술한 각 종단의 문장들은 신도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함양시켜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불자들은 일 년에 한 번씩 범종단적인 행사인 '연등축제(Lotus Lantern Festival)'를 한다. 여러 종단이 모인 이 행사에서 각 종단의 신도들은 자기 종단의 문장에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 종단에 대한 종도 의식이 별로 없는 한국불교의 상황에서 이는 특별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붙어있는 종단 문장의 스티커를 보고 느끼는 반가운 감정도 소속감과 자긍심의 발로라고 하겠다.

셋째, TI는 고급 디자인된 사찰 관련 상품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종교조직, 더구나 무소유로 인식되는 불교교단에서 상품을 개발한다는 자체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 이후 우리불교는 무위도식(無爲徒食)한다는 사회적으로 왜곡된 인식을 극복하고자 선농불교와 생산불교를 도모하여왔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수행만으로는 교단과 사찰이 운영되지 못하는 실존의 문제로 인하여 사찰에 경영이 실재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사찰들은 전통적인 목탁, 염주, 부채, 열쇠걸이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머그컵, 에코백, 핸드폰 케이스 등에 이르기까지 불교 문양이 새겨진 각종 불교문화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품들은 사찰별 특성이 없다. 전국 어느 사찰에서나 대동소이한 상품들을 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고급스럽게 디자인된 TI가 로고로 찍힌 불교문화상품은 매력적인 기념품이 된다. 사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교용품들이 고급스런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급 디자인이 새겨진 기념품은 눈에 띄는 차별성을 줄 수 있다. 또한 TI는 사찰의 불교용품점에서 팔고 있는 중구난방인 상품들에 통일감을 주는 효과도 있다. 사실 불교용품점의 상품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그 진열도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돈된 느낌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동일한 TI의 로고가 상품마다 새겨있다면 여러 상품이지만 단일한 통일감을 줄 수 있음은 물론 사찰의 로고로 인하여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감까지도 주게 될 것이다.

TI를 도입한다고 하여서 당연히 사찰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TI의 도입 못지않게 그 운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일단 TI가 도입되면 종무원은 물론 신도들에게 그 의미를 우선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TI는 말 그대로 사찰(Temple)의 정체성(Identity)이 통합된 이미지이기에 그 안에 담긴 사찰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사찰이 소식지인 사보(寺報)를 간행하고 있다면 그곳에 게재하는 것이 전달에 보다 효과적이다.

TI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필요로 한다. TI 도입 시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다가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TI는 일시적인 쇼(show)가 아니라 사찰의 이념과 행동 그리고 비전이 담긴 정신 운동이자 이미지 운동이므로 사찰의 대중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는 TI가 절대불변이 아니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불변이지만 TI는 시대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본질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 물론 너무 잦은 수정과 보완은 사람들의 혼동을 초래하기에 지양해야 한다.

기업의 이미지 통합 작업으로 금융권에서 시작된 CI가, 이제는 전자, 패션, 유통, 건설 등의 회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은 물론 대학(UI, University Identity)에까지도 확산되었다. 현재는 종교단체, 특히 교회에서 CI도입이 활발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대사회 사찰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올바른 사찰상을 정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TI를 도입하여 브랜드 포교를 통한 사찰 성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2018년 하반기 신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 접수 공고

01 신청대상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지역가입자에 한함)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기존 가입자 포함)**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 · 관리인의 도제,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 · 관리인 · 임직원의 도제는 제외함

02 지원금액

1인당 월36,000원(정액)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 2017년 월10,800원, **2018년 월18,000원**, 2019년부터는 월36,000원 지원함

03 지원신청 및 심사

■ 신청기간 : 하반기 ☞ **10월 1일 ~ 10월 31일**
2019 상반기 ☞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서류 : **국민연금보험료지원신청서**(종단양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발급방법 : ①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②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인터넷 ③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전화신청하여 팩스로 받음)

■ 접 수 처 : 승적상 재적교구본사
(기존에 지원 신청한 스님은 재신청할 필요없음)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교구본사 : 교구본사는 접수내역을 정리하여 승려복지회로 이관함

■ 지원심사 : 승려복지회는 교구에서 이관된 지원신청 서류마감 후 30일 이내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정함(신청과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종단 홈페이지 참조)

※참고 : 2017년도부터 각 안거 결계미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승려복지회 : 02-2011-1726~27, 팩스 02-733-3603
■ 기타 :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진우

부처님 가르침으로 행복 기준 재설정을…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㉝〈밀린다팡하〉 2

〈밀린다팡하〉는 불교를 만난 많은 이들이 지니는 궁금한 모든 질문을 부처님과의 인연 속에서 각각의 사연을 담아 파노라마처럼 펼치며 인생의 해답을 주는 상쾌한 책이다. 불자라면 이 경전을 반드시 읽어보라 권하고 싶다. 이미 한글로 잘 번역된 책이 많으니 푸른 하늘로 구름이 흐르는 것처럼 세월가는 것이 아쉬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도 돌아볼 겸, 한 번 만나보시길 권한다. 몇 년전 나는 BBS신행상담을 했었는데 그 때 내 손에 항상 들려 있던 것이 바로 이 책이었다. 모든 이들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그들의 인생에 맞추어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4개의 틀로 이루어졌다. 제1장은 〈서론〉으로 메르난데스왕과 나가세나 스님의 전생스토리를 통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으로 시작된다.

제2장은 〈대론의 시작〉이다. 메르난데스왕이 평생동안 궁금해 하던 불교에 관련된 궁금증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장장 3일간 멈추지 않고 서로 대론(對論)하였다고 한다. 나가세나를 만나자 왕은 '나는 세상의 현자라 부르는 이들을 만나 많은 대론을 해보았지만 그들을 보고 놀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만나니 너무나 압도적인 느낌 때문에 놀랍고 두렵다. 왠지 불길하다. 오늘은 아무래도 내가 패하고 스님이 승리할 것 같다. 오늘은 왠지 불안하다. 아무렴 어때, 그동안 궁금한 했던 일에 대한 답은 온전히 들을 수 있으리라. 아, 마음이 왜 이리 떨리는 것일까?'

첫 질문이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부르는가, 그대의 행동의 주체는 무엇이냐였다 . 또 그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오온으로 존재하느냐고 꼬치꼬치 묻자 나가세나는 바지라라비구니의 시를 한 편 소개하며 연기법으로 답을 합니다.

"마치 여러 부분이 모이므로 '수레'라는 말이 생기듯 다섯 가지 구성요소(五蘊)가 존재할 때, 생명 있는 존재(有情)라는 이름이 생기노라."

왕은 나가세나에게 대론을 계속하겠냐고 묻자 나가세나는 현자의 입장으로 한다면 언제나 환영하나 왕의 입장에서 청한다면 거절하겠다고 한다. 왜냐하면 현자는 토론을 통해 성숙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 어떤 답도 수용하지만, 왕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왕은 스님의 영특함에 미소를 지으며 왕이 아닌 현자로 대론을 청했다. 목 마른 이가 물을 마시듯이 왕의 입에서 끊임없는 질문이 나오고, 스님의 지혜로운 답이 속속 등장한다. 영혼이 있는가, 출가는 왜 하는가,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가, 지혜는 무엇이며 완성될 수 있나, 해탈하면 지식이 사라지는가, 해탈한 이도 고통을 느끼는가. 개인존재의 형성력은 무엇인가. 업과 업의 존재를 증명하라, 인격의 평등과 불평등에 대하여, 불교의 우주론, 부처님은 실재하는가, 열반하신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출가자에게 육신은 소중한 것인가. 불교의 실천적 성격에 대하여, 부처님의 모습에 관해서, 부처님은 지혜와 계행을 지닌 최고의 인격자다. 해탈을 얻은 이의 생존에 관해서, 신통력을 가진 이의 능력, 수행의 목적에 대해,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더 나쁘다. 신통력과 마음의 자재력과 심리현상에 관하여 분석을 하며 대론을 마친다.

제3장은 〈불교에 지녔던 모순된 생각을 정리하는 대론〉이다.

부처님은 전지자인가, 데바닷다는 왜 출가했는가, 왕이 눈을 보시한 사건에 대해 말하라. 부처님은 지은 모든 죄를 소멸하고 부처님이 되셨는가. 교단의 규정은 버릴 수 있는가, 죽음에 대한 공포. 보시의 장애, 부처님의 추종자들이 갖는 아집에 대해, 사리신앙에 대해, 실성한 사람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자살금지, 여자의 마음, 거짓말의 경중, 최상의 의사인 부처님, 존경과 비난에 대하여, 스승 없이 홀로 깨치신 부처님에 대한 질문을 통해 왕은 맺힌 원결을 풀 듯, 모든 해답에 만족했다.

제 4장은 〈수행자가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한 질문으로 재가자와 출가자의 차이, 단식고행의 포기와 난행의 실천, 선악의 과보, 꿈, 열반의 경지, 무소유에 관한 가르침 등을 끝으로 불교의 의문에 대한 대론이 끝난다. 이 경에 등장한 보편적이며 합리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평소 우리 삶의 방식과 관점을 바꿔 행복의 기준을 재설정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란다.

〈서울 반야사 주지〉

탐·진·치 벗고 '위대한 존재' 깨달아야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㉜금강경식 지혜에 이르는 길

현대를 살아가다보면, 뜻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CEO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절체절명의 난제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지극히 제한적인 현실 앞에 인류 전체는 모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무엇이 근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금강경식 지혜에 이르는 첫 단계는 자신이 부처님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는 구족의 진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실제로 시시각각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시겁으로 지어온 죄업 즉 탐진치로 인하여,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차단되어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탐욕심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 소멸하는 것입니다. 탐욕심으로 말미암아 무한 능력의 소유자에서 열등한 존재로 타락하였기에, 이 탐욕심이 소멸되면서 자신은 무한 능력의 소유자로 다시 회복되고 각종 능력이 발현하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은 마음 밖의 모든 현실이 자신의 선입견의 표현임을 아는 일 즉 일체유심조의 진리, 다음은 현실을 만든 이 선입견이 착각이요 본래 없는 것이라는 공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선입견을 구체적으로 닦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루 24시간 오로지 선입견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색(色)에 취해서 살고, 식(食)에 취해서 살고, 잠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탐·진·치에 취해서 살고 있으며, 부귀영화에 취해서 살고 있으며, 처자식에 대한 애정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평이라는 마약에 취해서 무능해졌고, 오만이라는 술에 취해서 무지해 졌습니다. 취해서 사는 삶은 음주하면서 제 정신 잃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음주함으로 잘 보이던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각종 사고를 내듯, 우리가 취해서 사는 삶은 스스로가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임을 망각하게 하고, 스스로 탕자가 되어 각종 고난을 받으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부처님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되 습관적이나 타성적으로 하지 말고 원을 세워서 하라."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실천행은 무슨 뜻인가?

바로 취함에서 벗어나 제 정신을 차려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씀씀이에서 벗어나 부처님 마음이 되어보라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삶에서 벗어나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타성적으로 살 때, 또 이기적으로 살 때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각을 바칠 때 제 정신이 차려지고 취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와같은 〈금강경〉의 부처님 가르침과 함께 한다면 세상의 어떤 난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생활선(生活禪) '이 뭣고'

참선(參禪)은 무슨 생각이 일어나건 그 한 생각을 발판으로 해서 '이 뭣고'로 돌아 오는 것이다. 육조 스님의 일행삼매에 "일상시(日常時)에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직심을 행해야 한다. 마음에 아첨하고 굽은 생각을 갖고 입으로만 법의 곧음을 말하지 말라, 오직 직심으로 행동해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一行三昧)라 한다"고 하였다.

직심은 순수한 마음이요, 분별을 떠난 마음이며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다. 소리에 접하되 그 소리에 구속되지 않는 마음이며, 어떤 형상을 접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마음이다. 자신이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삼매를 실현하고 지혜를 발현하는 일, 공부, 운동 등 일체처 일체시에 어디에서도 '이 뭣고'로 걸림이 없고 분별, 집착을 끊으면 그것이 생활선의 실현이고 평상심의 시도인 것이다.

남악 회양선사께서 마조 스님이 항상 좌선만 고집하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 하루는 좌선중인 마조 스님에게 물었다.

"수좌는 좌선만해서 무엇을 하려는고?"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자 회양 선사는 앞뜰서 벽돌을 하나 집어와 마조 스님 앞에 놓고 앉아 정진하기 시작했다.

한참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여쭈었다.

"스님, 벽돌을 갈아서 무엇 하시렵니까?"

> "망념인 한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제 8아뢰야식에 저장된 전생 업식을 재연 못하도록 그 한 생각의 뿌리를 '이뭣고'로 잘라내고 사(邪)가 아닌 반야지혜를 살려 쓰는 것이 참 수행"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한다면, 좌선을 한들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를 수레에 매서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쳐야 옳을까 아니면 소를 때려야 옳겠는가?"

마조 스님이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그대는 좌선(坐禪)을 배우는가, 좌불(坐佛)을 배우는가?"하고 다시 물었다.

"앉아서 참선 하는 것을 배운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데 있는 것이 아니니 선을 잘못 아는 것이고, 앉은 부처를 배운다면 부처님은 어느 하나의 법이 아니니, 자네가 부처님을 잘못 알고 있음이네. 무주법(無住法)에서는 응당 취하거나 버림이 없어야 하네. 그대가 앉은 부처를 구(求)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고, 앉은 모습에 집착 한다면 선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네"라고 말했다.

그러자 마조 스님은 여기서 크게 뉘우치고 좌선만을 고집한 생각을 버리고, 행주좌와 어묵동정 가운데서 일여(一如)하게 화두를 참구하여 순일(純一)을 이루어서 마침내 크게 깨쳤다.

우리가 생활속에서 망념(妄念)인 한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제 8아뢰야식에 저장된 전생의 업식을 재연 못하도록 그 한 생각의 뿌리를 '이뭣고'로 잘라내고 동시에 사(邪)가 아닌 반야지혜를 살려 쓰는 것이 참 수행이 된다. 즉 번뇌가 사라진 청정한 본래의 자기로 회향하게 되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한국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한국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300번지 (오정산 백봉사)
■ 종무소 : 전국대표번호 1577-1016 / 054)571-6973 / 054)571-1030 / 054)571-7497 / 팩스 054)571-7498
■ 한국불교방송 :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107 예림빌딩 606호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는 신라시대 5교9산의 선문(禪門)전통에 따라 비로서 종문(宗門)이 개창(開創)되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천태, 조계종을 필두로 종파(宗派)가 설립되어 제종파(諸宗派)가 제각기 부종수교(扶宗樹敎)의 일념으로 불조(佛祖) 혜명(慧命)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면면히 계승해 오다 조선조에는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제종을 통합하여 오다가 그후로는 조계종(曹溪宗)만의 단일종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제종파 시대가 열리고 또한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불교 수 많은 종단이 창종되고 소멸되고 이제 그 실체를 파악하여 관계부처에 자료제공과 신문과 방송, 불교언론에 널리 홍포코자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종승(宗承)을 선양하니 해동대한민국에 불일(佛日)이 중휘하고 자비광명이 삼천리 강토에 비추리라. 이와같이 종지 종풍으로 일가를 성립할 수 있어 각기 종명을 세우고 이 땅에 불일중흥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한국불교 조계종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방송신문사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606호 / 전화 1670-2012

일 주 문



오대산 문화축제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10월 6~10일 사찰 일원서 제15회 오대산 문화축제 '바람의 빛깔'을 개최한다.



복지 공로 대통령 표창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은 9월 7일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서 이웃돕기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화합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정임숙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장



"자신을 낮추고 서로의 소리를 들어야 완성되는 합창처럼 화합하는 모습으로 정진할 것입니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9월 12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정임숙 제7대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취임식에서 정임숙 회장은 '화합'을 강조했다. 이어 11월 5일 오후 7시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할 '2018부산불교합창제'에 대해 "축제와 같이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합창제에는 9개 사찰합창단과 부산불교연합합창단 그리고 각 사찰 합창단 지휘자로 구성된 남성 중창단이 무대에 올라 격조 높은 찬불가의 세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음악은 행복을 줘야 한다. 축제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행사들로 회원들의 사기를 북돋을 것"이라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응공조계종 대만 성지순례

종정 · 원로스님 등 40명 동행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9월 2~6일 대만 장향사 해외성지순례 및 응공조계종 종도 스님 제2차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성지순례에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과 원로의원 흥원 · 수덕 스님과 혜운 · 지암 · 정묵 경봉 스님 등 종단 국장소임스님들과 임원신도 40여 명이 동행했다.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은 대만 현지 장향사에서 수행자로서 연수교육의 목적과 중요성, 초발심 수행자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인간은 복이 있으면 즐겁고, 없으면 괴로워한다. 하지만 복은 불로 태우지도 못하고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는다"며 "천상에서나 세속에서 닦은 복이 있으면 편안하니 우리는 살면서 복 짓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승가인재 활용과 소통 교육에 방점"

Interview

신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출가 후 첫 소임 소회 남달라
재가자 위한 교수법 개발 관심
승가교육 보탬 되도록 노력을

"출가 이후 공부하고, 스님들과 일반 학생을 가르쳐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종단에 무언가를 회향하는 일은 없었네요. 이번 기회에 승가교육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조계종 불학연구소장에 임명된 정운 스님은 임명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정운 스님은 직할교구를 재적본사로 명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4년 수계했고,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출가 이후 종단 장학승으로 동국대서 석 · 박사를 받았고, 2011년부터 시작된 종단 교육아사리로 위촉돼 활동해왔다. 오로지 공부와 강의, 저술 활동에만 집중한 정운 스님은 사실 이번이 출가 이후 첫 종무직 소임이다. 사찰 7직 소임도 살아본 적이 없다.

하지만 학승으로서의 내공은 상당하다. '마조선 연구'로 2009년 박사학위를 받은 스님은 이후 연구와 강의, 저술활동에 전념했다. 저서 중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로 선정된 책들도 2권이 있다.

강의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운 스님은 2009, 2010년 연속으로 동국대 교수평가에서 '최고 강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구 열심히 하고 잘 가르치는 스님이 종단 승가교육 방향과 아젠다를 만드는 불학연구소의 수장을 맡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인다.

정운 스님은 첫 종무직 소임인 만큼 차근차근 일을 배우고 승가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또한 승가 인재 활용 방안에 대한 종책들에 관심을 갖겠다고도 했다.

"요즘 많은 스님들이 석 ·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논문집을 발간하는 등 고급 인재들이 종단 안팎에서 연구 ·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려 합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자신이 최근 천착하고 있는 대중들과의 소통을 교육현장에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어엿한 수행자를 양성하는 승가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재가자들에게 바르게 불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교수법 개발에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무엇보다 스님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처음 발심을 유지하며 천천히 하나하나를 이뤄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금 거창하게 무엇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용두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제 자리에서 승가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 합니다.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명살림' 야단법석 전국서 성황

불교상담개발원, 9월 1~10일
30여 사찰서 5000여 불자 동참



9월 10일 봉은사에서 열린 생명살림대법회서 선언문을 낭독하는 불자들의 모습.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 조계종 포교부장)이 보건복지부 민관협력사업으로 실시한 '2018 생명살림 대법회'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법회는 전국 30여 사찰 및 신행단체의 동참 아래 5100여 불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회 법사로는 지운 스님, 선업 스님, 가섭 스님, 효록 스님, 원영 스님 등이 나섰다. 먼저 9월 1일 목우선원에서 진행된 대법회는 인경 스님이 법문했다. 이어 9월 8일 김제 금산사에서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이 포교사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법문했다.

또 9월 9일 조계사, 길상사, 범어사, 마곡사, 수덕사 등을 비롯한 12개 사찰에서 1000여 명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법회가 진행됐으며, 9월 10일 봉은사, 화계사, 목동국제선센터, 광주 증심사, 동원사, (사)자비신행회, 서산 서광사 등 14개의 사찰에서 1100여 명을 대상으로 법회가 진행됐다.

법회에 참여한 불자들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불교계 자살예방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생명살림 발원문을 함께 읽고 그 뜻을 새기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불교적 생명존중 · 자살예방의 생명살림 서약문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면서 자살예방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전북은 9일 전북불교대학서 효록 스님을 법사로 법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서 전북불교대학과 불교상담개발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와 교육 및 사회활동 증진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불교상담개발원 측은 "참여한 사찰 및 신행단체를 대상으로 '생명지킴 프로젝트-자살예방 교육상담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해 전국적인 자살예방 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53순례단 선운사 도솔암 순례

선묵혜자 스님 등 2000여 명 운집해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53선지식을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가 9월 7~8일 고창 선운사와 도솔암을 방문했다. 선운사에 도착한 2,000여 명의 순례단은 혜자 스님과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함께 대웅보전에 평화의 불 점등과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어 국내 유일의 미륵도량과 지장도량인 도솔암 마애불 앞에서 53기도도량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공양미 4천kg 군청 기탁

9월 11일 저소득가정 돕고자 구례군에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9월 11일 지역 저소득 이웃을 위해 공양미 4,000kg을 구례군에 전달했다. 사회국장 해덕 스님 등은 구례군청을 방문해 김순호 군수에게 공양미를 전달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달한 공양미는 신도들이 법당 공양미로 올린 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순천 대승사 중창불사 기공

유치원 터에 3층 건물 신축 계획



순천 대승사(주지 보리)는 9월 11일 '대승사 중창불사 기공식'을 봉행, 도심포교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 터에 현대식 3층 건물 신축을 시작했다. 주지 보리 스님은 "대승사는 대표적 도심 포교당이었으나 오랜 세월 속에 모든 전각이 낡아 어려움이 많았다"며 "불자들의 정성으로 대승사가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청암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 합니다.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청안하십니까?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과 더불어 한가위가 성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눈감으면 아련히 떠오르는 불령동천과 한가위 만큼 넉넉한 불령산자락의 품에서
좋은 날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날 짜 불기 2562(2018)년 9월 29일
(음 8월 20일) 토요일

■ 시 간 오후 3시

■ 장 소 청암사 자양전

■ 문 의 054) 432-2652



청암사승가대학총동문회 회장 유화 합장

‘저출산 극복’ 힘 보탠 해운정사

10년간 세 자녀 가정 장학금… 10억 원 소요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한국사회. 사찰서 이 같은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나서 눈길을 끈다.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9월 10일 원통보전에서 ‘제5회 세 자녀 가정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장학대상 가정에는 10년간 설날과 추석 명절에 각 50만원씩 전달되며, 총 10억 원이 소요된다. 해운정사는 2016년 40가정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7년 30가정을 추가했으며,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 40가정을 더해 목표했던 100가구를 채웠다.

진제 스님은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효를 실천하며 신의와 사랑을 갖춘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구 감소현상이 계속되면 우리 조상들이 이뤄놓은 5천년 민족 문화가 무너진다”며 “한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꽃 피우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세계문화유산 보전, 모두의 몫”

안동 봉정사, 세계유산 등재 고불식 · 음악회

안동 봉정사는 9월 1일 경내에서 봉정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고불식과 축하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제16교구 본말사 주지스님 50여 명과 전우헌 경상북도부지사, 김광림 국회의원, 권영세 안동시장, 정훈선 안동시의장, 이재업 안동불자연합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봉정사 주지 자현 스님은 고불문을 낭독한 뒤 “오늘 자리는 세계유산으로서의 봉정사 가치를 되짚어보고, 이를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이제 봉정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하는 모두의 것이 됐다. 우리 모두 주인의 자세로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피는데 힘쓰자”고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우헌 부지사가 대독한 치사를 통해 “봉정사는 677년 능인대사가 창건한 이래 1400년 가까이 법등을 밝힌 유서 깊은 고찰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쾌거와 함께 관광자원 활성화로 경북 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룸비니 아이들 학업성취 기원”

빛고을나눔나무, 자전거 지원 후원금 모연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지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후원행사가 열렸다.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보응)는 9월 8일 세심정사 잔디마당에서 ‘룸비니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행복자전거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행사’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지암 스님(태고종 원로의원),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월인 스님(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이어진 후원행사는 연잎밥과 가을 꽃차로 가을을 만끽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행사서 모연된 기금은 네팔 룸비니에서 하루 2~4시간 도보로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위한 자전거 100대 구입에 사용된다.

기념식에서 상임이사 보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룸비니에서 많은 시간을 도보로 이동하며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만났다. 대부분 저소득 가정으로 자전거를 집안의 큰 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화사 울려 퍼진 ‘부루나 하모니’

첫 무대 준비하는 동화부루나 어린이합창단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대구 동화사에 어린이의 맑은 음성이 가득 찼다. 동화부루나 어린이합창단이 새롭게 창단된 지 4개월 만에 첫 무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여 명의 단원들은 멋진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캠프까지 열고 맹훈련 중이다. 어린이 단원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모인 자모들까지 참가해 동화사에는 포교 새바람이 불고 있다. 9월 9일 동화부루나 어린이합창단 캠프가 열린 현장을 방문했다.

캠프 장소인 동화사 템플스테이관에서는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아이들이 손을 이리저리 돌리며 현란한 율동을 선보였다. 무대에서 보여줄 춤이다. 이내 맑은 음성으로 힘차게 노래를 부른다. 9월 8~9일 동안 춤과 노래만 계속 연습한 아이들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다.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에 이지윤 지휘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난 아이들이다. 밤에도 친구랑 이야기꽃을 피워 잠도 못 잤을 텐데 정말 힘이 넘친다”며 웃었다.

참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즐겁다”며 입을 모아 말했다.

안서현(지묘초3) 학생은 “평소 음악과 춤을 좋아해 참여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하니 신난다.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서 좋다”고 말했다.

조민솔(지묘초3) 학생은 “친구들과 같이 자고 노는 것 같았다. 연습이라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 행복하다”고 답했다.

대구 동화사(주지 효광)는 오는 10월 6~9일 4일간 축제 ‘승시’를 개최한다. 승시는 대구지역 불교 대표 문화축제로 매년 동화사 일대에서 옛 장터를 재현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구성한다. 동화부루나 어린이합창단은 첫날 오후 4시 설

올 5월 창단 30여명 활동 중
뛰어난 실력 향상 입소문 타
10월 6일 어린이 산사음악회
“종교색보다 어린이 행복 우선”

법전 앞 특설무대에서 ‘어린이 산사음악회’로 첫 무대를 장식한다.

동화부루나 어린이합창단은 올해 5월 창단됐다. 창단 당시 10명도 안 되는 적은 인원이었지만 자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금세 30여 명이 모였다. 불교라는 종교색보다는 먼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어린이를 위한 활동무대를 마련한 것이 성공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성악을 전공한 전문 지휘자가 지도해 아이들의 실력을 높여 흡족하다는 평가도 한몫을 했다. 게다가 지난 1월 동화사는 임회에서 어린이 포교 확장 방안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0월 6일 산사음악회에 앞서 무대를 준비하는 동화부루나 어린이합창단. 최근 열린 캠프에서 율동 호흡을 맞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단원들이다.

동화사 기획국장 미수 스님은 “어린이를 위해 공간을 열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설명했다.

미수 스님은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우리 합창단도 실력 있는 아이들로 성장해 세계무대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사찰에서 뛰어 놀며 즐겁게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포교다.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창단원 자모들의 반응이다. 자모들은 “아이들이 싫다면 억지로 시킬 수 없는 것이 부모 마음인데 연습 때마다 먼저 일어나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돌이키긴 늦었다”며 미소지었다.

강문자 자모회원은 “연습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가 차 안에서 그날 배운 ‘꿈꾸지 않으면’이란 곡을 계속 흥얼거렸다. 창작동요를 전문적으로 배울 곳이 없는데 정말 좋은 기회라 느꼈다”고 말했다.

서보경 자모회장은 “처음엔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다. 옆에서 지켜보면 좋은 무대에 대한 욕심도 생긴다”며 “준비 기간이 많이 짧지만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이다. 이렇게 연습하면 좋은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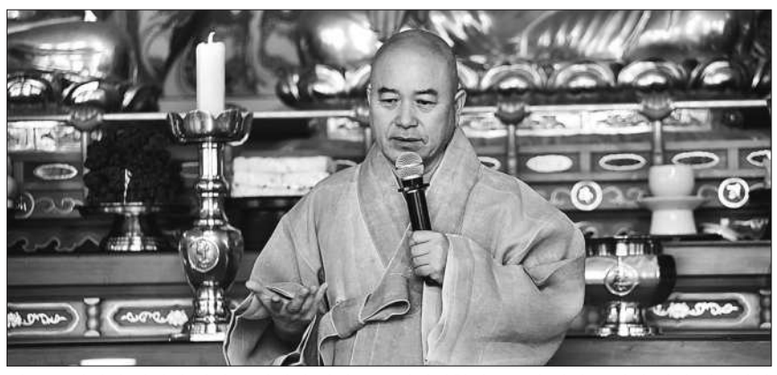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회문제 해결, 명상에서 답을”

광주 증심사, 미산 스님 초청 ‘과학기술시대와 명상’ 특강

과학기술시대에 만연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상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는 9월 12일 대웅전에서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을 초청해 ‘과학기술시대 명상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연광 스님,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해 200여 명의 신도들이 참여했다.



광주 증심사가 마련한 명상 특강에서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이 명상 대중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교육청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미산 스님은 명상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서양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가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명상 대중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미산 스님은 “최근 서양사회는 명상을 보편화하기 위해 종교적 편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속적인 명상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 예로 영국의회는 명상을 기반으로 한 심리치료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비즈니스, 법조계 등에서 심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급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보고했다”며 “특히 미국은 각 학교에서 명상프로그램을 교사들이 직접 배워 보급을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서양문명은 지금껏 ‘개인이 사회와 어떻게 소통하고 성공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발전했지만 그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한국은 더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이루면서 서양과 마찬가지로 사회문제들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제는 명상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구체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이끌어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움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후원한 장휘국 교육감은 “이제 한국사회는 물질적 성공을 위한 교육보다 생명과 평화, 인격적 완성을 이루기 위한 인성교육이 대중화되는 시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심사에서 운영하는 대원장학회는 9월 8일 광주 동구청(청장 임택)을 방문해 지역 아동을 위한 ‘소원우체통 사랑의 선물’ 1000만원을 관내 아동 30명에게 전달했다. 소원우체통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을 미리 신청 받아 구입해 ‘사랑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비록 많이 들었다 해도 만약 수행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것과 같다. 마치 사람이 음식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것과 같다.

〈능엄경〉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 모집

- 주1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실용교육
- 예불,불공,사십구재,천도재 등
- 북,징,경쇠,요령,목탁 다루는 법
- 바라작법, 오공양무

영남범음범패 염불선원

(경산시 경산역 부근)

010-5315-3589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기도와명상

"신간 책 소개!"
기도와명상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국서점 구입!
책이름검색 손재찬선사 북갤러리 인터넷 구입!



모든불교인의 '필독서'입니다
문의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천기누설 운

"엄청난 책내용"
천기누설 운
검색!!
토굴기도실와
운명점술학박사1호 손도사왕



책제목 검색 후 인터넷 구입
문의010-5105-5000

풍수지리 신통력

음택명당 이장하는데 해무리, 무지개 3시간 1년에 30회 뜹니다

무지개 스님

010-4413-3377

율곡 범음 대학 (광주전남 범음범패)

의식교육 학인 모집

- 대상 : 스님, 법사, 보살 가능, 사찰행사 함께 하실 분

초급 · 중급반	상 급 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6시

광주무형문화제 제23호 범음기능보유자
문의 010-6241-8499

최면 전수생 모집

①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② 최면치료는 부작용이 없다.
③ 빙의(신들림)에서 우울증, 자살충동 까지.
④ 최면치료는 재발이 없다.
⑤ 사고장요법까지 전수해준다.

HOMEPAGE :www.hypnosis.or.kr
최면치료사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교수

010-4844-7002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모집안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명상 (무료)

"누구나"

T.1588-5654

화태명상원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3길 31
전철 2호선 홍대역 2번출구

수준높은 기도법 전수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수리 비술
- 수리의 비밀과 의미를 알려 드립니다.
- 손 하나만으로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전 후의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운세 작법
- 명리나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사)한국불교 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범음범패 교육도량

각단예불 및 천수바라
육법공양무(작법)나비무
법고,송주북,정근북

사찰행사 문의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불교 공부와 철학을 배우면서 사찰을 같이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35세 ~ 50세 차후 사찰을 무료로 인도해줍니다

010-6536-0120

육임선봉문, 귀장술 배우실 분

누구나 도인이 될 수 있다
육임 단기간 3개월 코스로
성공의 기회
정확한 점괘를 뽑을 수 있다
신을 받아도 상담이 안되시는 분
절 포교에 힘드신 스님
모두 연락주세요

학장님 010-8973-7994
무 산 010-9150-0029

사찰 처사 (운전가능)님 모십니다

숙식 필수
(55세 이상, 경기도)

010-5264-8312

시다림, 천도재, 사십구재 등 각종행사 저렴하게 정성껏 모셔드립니다

토굴암 합장

010-8482-0075

청정한 제주에서 기도하며 함께 살아갈 비구스님 모십니다

010-3516-6375
(문자로 남겨주세요)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010-7344-1881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2004-8216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정진으로 이루어진 갑옷은 금강과 같이 견고하니 그 무엇으로도 뚫지 못하리라.

〈출염송경〉



청도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 법당. 요사채. 삼성각. 토지 5,000㎡
- 주변산 사찰. 기도도량. 저수지 전망
- 양도 : 15억 2천만원 (융자가능함) (위치 알려드리지 않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 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시 치악산 자락
- 대지 : 900평
- 건물 : 대웅전 28평 (전통 목조)
- 요사채 2동, 산신각(4평) (각 3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010-4028-88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7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진주부근사찰(급)안내
- 지리산 기도도량. 토지5,000㎡
- 목조법당.요사채.삼성각.공양간
- 조용하고 풍광일품 위치좋음
- 운영잘됨. 스님사정상 양도
- 양도가액 : 9억5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구입의사 있으신 스님만 모심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대금산하 총부지 1100평
- 종교집회장 300평 허가득
- 토목공사,700평 완성되어있음
- 주택 34평,임법당, 삼존불 27평 소불700불,산신각,심야보일러 농사용전기,산업용전기,수도시설
- 포교원, 전원주택 모두 가능함
- 가액 : 6억(은행 2억있음)

010-9113-0015

광진사찰안내
◎ 위치 : 수도권 ◎ 위치 : 서울 북한산
◎ 부지 : 150평 ◎ 부지 : 100평 사용
◎ 법당 : 40평 ◎ 인법당 : 약 60평
◎ 요사 : 70평 ◎ 산속, 무허가 건물
◎ 양도가 : 11억 3천 ◎ 양도가 : 5천 5백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등기필
- 대지 : 도지료1년 35만원
- 넓은 마당 및 텃밭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3백만원

010-8525-1959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소백산
-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적합
- 불기 일체, 집기 일부, 수도, 전기, 보일러 유
- 벽돌기와건물,35평,텃밭,대형주차
- 총평수 7백14평
- 개인사정으로 (급)양도가 2억
- 낮 12시 이후 4시전 통화가능

010-474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87-25
- 시장을 끼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 주지스님이 일본가시는 관계로 급히 인연을 찾고자 합니다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2천 월 1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3102-5102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3층 40평
- 법당, 삼존불, 시설원만 방2,주방,화장실,옥상사용함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5분거리
- 전세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010-7536-25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송면 성리 529-5
- 대지 : 740평
- 건물 : 법당 12평, 요사채 50평, 무학대사 자연동굴 약 70평 (무속인 기도처)
- 불교용품 판매 가능
- 보증금 : 3천에 월세30만원 전세 가능합니다

010-2078-959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소재
- 부지 : 1500평(대지,밭)
- 법당 : 30평(목조,단청)
- 요사채 : 2동 60평
- 기타 : 산신각,용왕당,석불,석등
- 가액 : 5억2천만원
- 특징 : 도심외각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와 기도처로 정말 좋습니다
- 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 부지 : 150평(종교용지)
- 건평:100평(법당,요사채,종무소,기타)
- 가액 : 3억8천만원
- 특징 : 신도구성이 잘되어있어 사찰운영이 아주 용이하며,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포교지로 적지입니다

전국소재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010-4942-04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339-9
- 법당 30평
- 방1개, 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010-7257-424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봉양읍
- 법당, 거실, 주방, 방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2,500만원

010-5258-1570

사 찰 안 내
- 법당, 요사체, 토지 3,971.1 ㎡ / 1,201.26평
- 전북 군산의 조용하고 불심을 다스리기 좋은 최적의 도량
- 인가도 멀지않아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주변이 둘레길산책로가 형성되어 접근성이 좋음

010-5870-3358
063)451-2505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353-20 외
- 대지 약 380평, 전290평
- 전통한옥ㄱ자형, 본채, 별채 (2채 약70평,부속건물포함)
- 준공일 : 2012년 12월
- 가액 : 8억 5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0-7449-292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해남읍에서 5분 거리
- 대지 : 1,500평 남짓
- 시설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등 모두 방 10칸
- 외부 : 부속사, 대영주차장 등
-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 모두 합 2억 9,500만원 (부득이한 사정)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영덕. 바다와 10분 거리
- 대지 324평,건물40평2동,임법당
- 공업용, 농업용 전기공급
- 별도 산신각, 지장노천불, 공양간,창고2개,방6개, 넓은 거실
- 사찰 마르지 않는 우물 있음
- 인근 공기 맑고 조용
- 가액 : 1억 7천만원

010-2008-037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구의사거리
- 시설 : 법당(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산신각(산신탱화), 상담실, 주지실, 공양간
- 최상의 시설, 2층 60평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50만원 시설비 1,300만원(절충가능)

010-4047-013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사거리 지하철 근접
- 4층 건물 중 2층 34평
- 총무실1.침실. 화장실2. 시설A급
- 보증금 2,000만원,월세 40만원 (관리비, 부가세 없음)
- 5년째 법당으로 사용하다 현재 비어있음

010-8448-67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동두천시
- 대지 : 350평
- 법당 30평, 요사채 : 20평
- 가액 : 4억 5천만원
- 전철 인접 (도보 20분, 차량 +2~3분) 공인중개사는 사절합니다. 사진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세요. (문자로 사진요청은 안보냄)

010-6559-0913

펜션 별장 토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일월산 자락에 아담한 곳
-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마당 계곡, 법당 부지 있음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 대지: 121평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소불당 1동(600불 봉안) 요사채 1동, 주지실 1동
- 용왕당, 사시사철 자연수
- 사찰 연력 130년 완전고찰
- 가액 : 4억

연락처 010-7273-1529
010-2720-158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대지 : 220평
- 건물 : 대웅전(50평, 공양간, 종무소 포함), 요사채 2동
- 특이사항 : 법당 바로 법회가능 (불상, 불단, 냉방시설완비)
- 가액 : 9천 오백만원

전화 : 010-6241-84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탑동길 92-45
- 대지 1,000평 / 임야 4,000평 총 5,000평, 법당 37평, 요사 65평
- 천혜의 명당이며 지하암반 석수있고 수목장하기 좋은 위치임
- 마산근교 10분 거리 단독도로와 경관이 좋습니다
- 가액 : 11억원.대출 : 2억 5천만원

010-4547-4990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방2,화장실2, 법당, 난방 완비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 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900만원(가격 절충)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사찰안내(전세)
- 위치 : 부산시 시청부근 자동차로 10분 거리
- 대지 : 200평, 100년 사찰, 주차시설완비
- 법당 : 목조 20평, 요사채 : 20평
- 전세 : 2억

010-4561-63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집현면
- 대지 : 약 1,000평, 산 약 1만평
- 건물 : 법당 30평, 요사 25평, 산신각 3평, 기도방1칸
- 가액 : 5억 4천 8백만원

010-6520-585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몽땅 : 1억 1천만원

010-8861-1785

명당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광도면
- 산중턱에서 바라보면 청정바다가 보이는 멋진 곳, 계곡물 전기
- 평수 : 150평
- 평당 60만원(조절 불가)
- 직접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8643-5235

일본포교원안내
- 위치 : 오사카 쯔루하시 재래시장 입구 한국인들 집중 거주지역
- 2017년 건립, 3층 건물 전체사용, 각층20평,법당,신중당,공양간, 접견실,침실,휴식처
-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문제로 급 안내함
- 가액 : 문의 후 상담

010-3545-5060
일본 080-5358-5060
무료 070-8836-5060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 신도시
- 신축 2년
- 대지 470평
- 건물1층 60평, 2층 60평 식당 23평, 산신각 7평
- 법당안 1년등 1,450개
- 양도가 13억

주인직 055-346-290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단독 주택 약 50평
- 법당, 방3, 화장실 2
- 법당(아미타 삼존불), 청동불(3자)
- 교통편의,지하철 1호선 안지랑이역에서 5분거리
- 보증금 1천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청동불 인수 포함 1천만원

010-9735-8032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칠순, 돌잔치, 명절 등 각종 행사, 가족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日 '불교 이탈' 원인 1순위는 '승려'

'사람 대하는 태도' '금전감각'에 부정적
일본불교계, 도쿄서 긴급 심포지엄 열어

박영빈 객원기자

신도들의 이탈이 늘어나고, 젊은 세대의 유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일본불교. 이러한 '사찰 이탈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심포지엄이 도쿄에서 열렸다고 9월 7일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지난 8월 23일 도쿄에서 '사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종파를 초월해 많은 주지스님들이 모였다.

심포지엄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전국에 소재한 사찰은 약 7만7200곳. 그러나 이 중 2만여 사찰이 현재 주지가 없는 무인 사찰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사찰의 유지와 경영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일본 최대종단인 정토진종 혼간지파가 실시한 조사에서 해당 종단에 소속된 사찰들 가운데 연 수입이 300만엔(한화 약 3천만원) 이하인 사찰은 45% 이상, 연 50만엔(한화 약 500만원) 미만인 사찰도 10%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더욱이 "계속되는 보시금이 부담"이라는 이유로 신도회에서 탈퇴하거나, 사찰에 모셔둔 선조의 묘나 위패를 반환받는 등의 '사찰 이탈'이 심각하다는 보고도 나왔다.

최근 '사찰 이탈'에 관해 일본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는 '불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원인'으로 '승려'

일본불교 사찰 7만7200곳
연 수입 500만원 안 되는
빈곤사찰 수두룩해 '위기'
전통vs현대화 화두 떠올라

가 25.3%로 집계됐다. 이는 사찰의 '인적구조(6.7%)'나 '교리의 내용(4.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져 일본불교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스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22.8%로 제일 많았고, '일반인과 다른 금전감각'이 18.5%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예불이 여법하지 않다(4.8%)', '법문의 역량부족(13%)' 등 기존 불교계에서 중요하게 여긴 항목은 비교적 낮게 집계됐다.



심포지엄에서 토론하는 주지스님들.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스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1. 사람 대하는 태도 22.8%
2. 금전감각 18.5%
3. 법문 역량부족 13%
4. 여법하지 않은 예불 4.8%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야시마 죠쥰 스님은 "승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근간에 둔 서비스업자"라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죠쥰 스님은 "현대사회와 사찰간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며 현재 일본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스님들에게 법문을 듣거나 장례를 맡기는 현상을 예로 들었다. 스님은 이와 함께 "여법한 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새로운 인연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는 출가자 스스로에게 달렸다"고 역설했다.

교토에서 온 타나카 류겐 스님은 "소비자가 상품을 고르듯, 대중이 스님들을 선택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류겐 스님은 "되레 이러한 현상이 스님들 간의 경쟁심리를 일으켜 스스로의 행동과 말을 관리하고, 대중에게 더욱 접근하기 위해 연구하는 계기가 된다"며 경제적인 원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파격적인 주장들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나라에서 온 타나카 젠기 스님은 "절에서 대대로 이어온 전통과 역사를 전하는 것에 불법이 깃들어 있다. 불법을 어떻게 전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제적 측면으로 불교를 해석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한편 최근 일본불교계에서는 기존의 포교법과 사찰경영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생기고 있다. 사찰에서 카페를 운영하거나 지역 이벤트에 함께하는 등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달라이라마 병환설, 중국 측 선동"

달라이라마 일본 대표부, 공식입장 발표

지난달 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달라이라마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보도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일본에 소재한 '달라이라마 법왕 일본대표부 사무소'(이하 일본 대표부)는 달라이라마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묻는 본지의 질문에 9월 6일, 인터넷 메일 공식계정을 통해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매우 건강하시다"고 밝히며 건강이상설을 일축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또한 일본 대표부 측은 앞서 보도된 기사에 대해 "해당 기사는 중국 측의 선동이며, 친중국 경향의 기자가 받아서 보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일본 대표부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13일 공식적으로 밝힌 보도자료를 통해 "전립선암이라는 말은 와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달라이라마의 주치의인 체탕 도르제 씨는 "지금까지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쉴 틈 없는 일정을 보내셨지만,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언론보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치병, 혹은 심각한 건강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일정을 병자가 모두 소화하겠는가. 존자님께서는 그 연령에 비하면 매우 건강하신 편이다"고 단언했다.

이어 체탕 씨는 문제가 된 전립선암이라는 병세에 대해 "2015년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암의 전조가 포착됐고,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 대학병원의 의료진에 의해 치료했다. 최근 동일한 의료진이 재검했으나 병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완치됐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건강이상설에 대해서는 달라이라마 스스로도 일축한 바 있다. 지난 8월 북인도 라닥지역에서의 법문을 마치고 다람살라로 귀환하는 자리에서, 달라이라마는 건강상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금 피곤할 뿐, 몸에는 아무런 이상 없이 건강하다"고 직접 밝혔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지난 9월 4일부터 7일까지 다람살라에서 한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권 불자들을 위한 법회를 가졌으며, 오는 11월에는 일본에서 법문이 예정돼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중병도 못 꺾은 재가불자 불사 원력

美 웨스트민스터 불교공동체
화재로 소실된 사원 재건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최근 건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 '특별한' 건물을 짓고 있다고 더댄버채널이 9월 10일(현지시간) 전했다.

해당 매체는 "당신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여행할 때 웅장하면서도 곡선미를 뽐내는 빨간 지붕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라오스 불교 사원의 재건축 소식을 보도했다. 해당 사원은 앞서 2011년 전기 화재 사고로 일부 소실됐다. 보험금은 단지 화재 수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용됐다. 그 후 지역사회 라오스인들이 모여 불교 공동체 재건축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본업에도 불구하고, 자투리 시간을 쪼개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수니 기스트(Sunnie Gist)는 "진척은 느리지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일을 해내고 있다. 이로 인해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현재 보이는 작업량의 90%가 우리 손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화재로 소실된 라오스 불교 사원 재건축에 나선 수니 기스트.
사진출처=더댄버채널 방송화면

기스트는 건축에는 문외한이지만, 지역 불교 공동체가 결집하기를 희망하면서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시간과 건축재료를 기부해 줄 시공사를 찾기 위해 애썼다.

특히 그는 심각한 투병 중에도 사원 재건축을 위해 열의를 보이고 있어 다른 불자들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는 폐병과 루푸스(lupus), 폐성고혈압 등을 앓고 있다.

그의 남편 대런 기스트(Darren Gist)는 "아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그녀는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매우 용감하다"고 찬사했다.

허브 애치슨(Herb Atchison) 웨스트민스터 시장은 "그녀는 오직 '마음'과 '영혼'으로 이 일을 해내고 있다. 지금까지 이뤄낸 일만으로도 놀랍다"며 "많은 어려움에도 사원에 대한 헌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격려했다.

불자들은 현재 임시 텐트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이들은 내년 4월 라오스의 고유 명절인 새해 행사 전까지 사원 재건축을 완료하기를 희망한다. 그 이유는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기스트에 대한 걱정과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주변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스트는 "웨스트민스터 시장과 지역사회의 도움에 감사하다"며 "사원이 완성되고 모든 불자들에게 하루빨리 공개될 수 있길 바란다"고 웃어보였다. 그러면서 "사원은 치료 받고 싶은 사람, 불교를 배우고 싶은 사람, 우리(라오스)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까르마파 거취로 인도-중국 기싸움

印 '불교 본거지' vs 中 '지도자 묶어두기'


17대 까르마파 오겐 틴레 도르제.
사진출처=더텔레그래프

달라이 라마와 함께 세계적 불교 지도자로 꼽히는 17대 까르마파 오겐 틴레 도르제(Ogyen Trinley Dorje · 33)와 전통불교 유산을 두고, 인도와 중국 정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유라시아타임즈가 인용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는 달라이 라마의 존재와 함께 자신들이 '불교의 본거지'라고 주장하며 도르제에 대한 영향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정통성'을 내세우며 미국에 까르마파를 자신들에게 인도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도르제는 지난 1년간 건강상 이유로 미국에 머물러 왔다. 일각에서는 '망명설'도 제기됐으나 도르제 측은 '단순 건강상 문제'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도르제가 올해 말 인도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며, 향후 양국의 이해관계에 각종 추측이 일고 있다.

현지 관계자는 "인도는 티베트 불교 지도자의 존재와 함께 불교 사상의 요람이 되기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달라이 라마 이후 시나리오에 주목하면서 영향력 있는 성직자들을 자국에 묶어두려는 계산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까르마파는 티베트 망명정부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속한 겔룩파보다 200년 이상 앞선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종파다.

환생을 믿기 때문에 티베트 중부지역에서 출생한 도르제는 지난 1994년 11살 때 17대 카르마파로 추대됐다. 인도와 중국은 현재 모두 도르제를 17대 까르마파로 인정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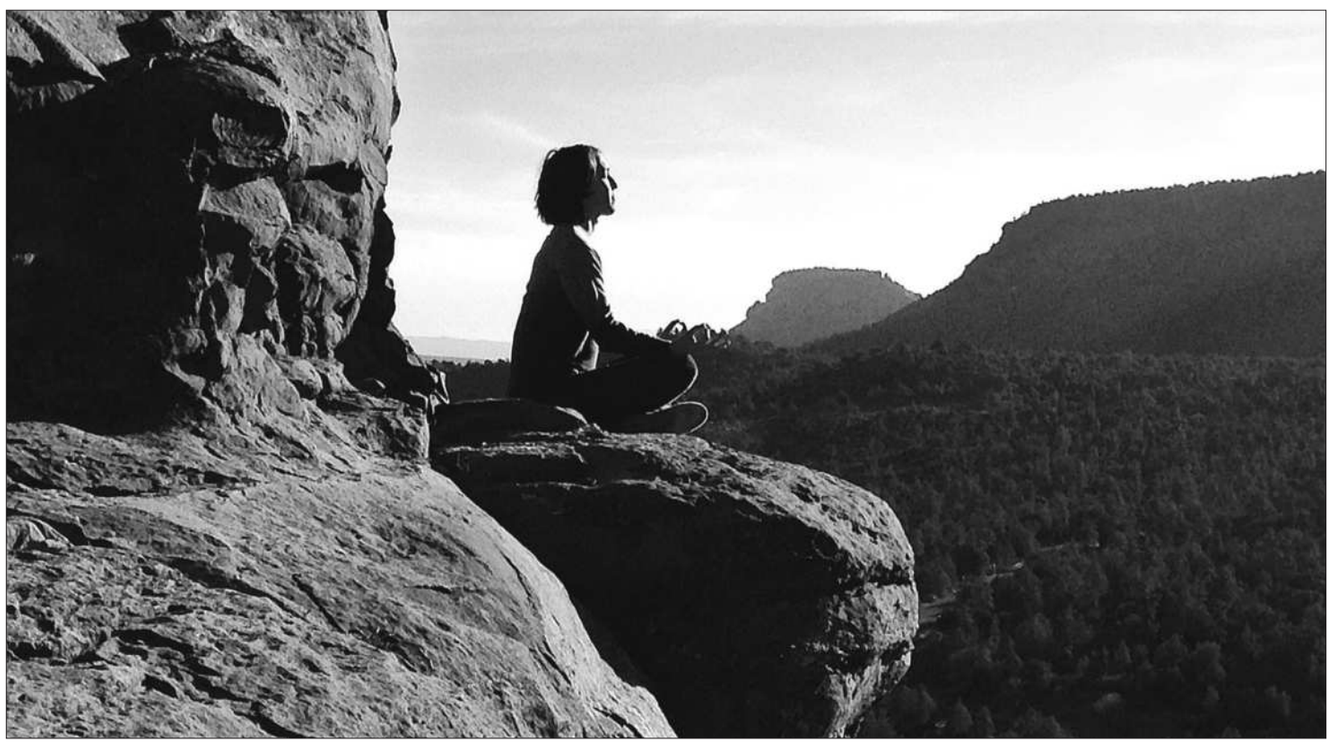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아잔 브람

〈6〉 의심, 생각, 산만함 (장애 I)

바른 수행이 평화·행복으로 인도



지금까지 저는 호흡 수행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선정을 얻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해보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행의 어려움, 장애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장애는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입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장애를 순서대로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섯 가지 장애와 관련된 수행상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심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수행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 수행 지도자들이 서로 다른 수행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갖가지 수행법을 소개하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게다가 모두들 다른 수행법을 따라서는 안 되고 자신의 수행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처음에 어떤 수행법을 따라 수행해야 하는지 정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수행의 첫 단계에서 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의심은 사실 납득할 만한 의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바른 수행법인지 몰라서 생기는 의심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수행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경전 이외에도 논장이 있으며 게다가 주석서와 복주석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 논서, 주석서는 종종 서로 다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하듯 잘 알려진 스승의 말이라고 해서, 책에 나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그 가르침이 경장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만 보려고 해도 잘 알려진 학자들이나 위대한 스님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경전을 해석합니다.

어떤 수행이 바른지 알려면 그 수행법으로 수행했을 때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인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수행법과 바르지 않은 수행법을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완전한 역겨움, 탐욕의 빛바램, 소멸, 고요해짐으로 인도하는 수행법, 그리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수행법은 바른 수행법입니다. 그 수행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수행법입니다. 그 길은 담마의 길입니다. 수행하면서 더 자주 화내고, 욕심이 더 많아지고, 불평하고, 비난한다면 그 사람의 수행은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은 행복감이 늘어나고, 마음챙김이 강해지고, 번뇌가 줄어들고, 화를 내는 일이 적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른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점검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점점 더 평화롭고 행복해진다고 느낀다면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논리를 사용하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의심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함으로써 의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

의심이 있으면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수행에서 가장 커다란 장애 중 하나가 바로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우리 안에 깊게 뿌리박힌 습관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강박적이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무엇인가 생각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방금 배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아무 생각도 없다고 대답하면 꾸중을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면 저는 훨씬 일찍 훌륭한 수행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요하게 멈춰 있는 것은 어리석음의 징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징표입니다. 고요하게 멈춰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침묵을 통해 계발됩니다. 생각을 하면 마음은 더 부정적이 됩니다. 생각이 없는 마음은 고요한 침묵의 순간입니다. 그 고요함에 마치 휴대 전화의 벨소리처럼 생각이 끼어듭니다. 생각은 결코 좋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세간에서나 부처님의 법에 있어서나 지혜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침묵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수행법 범람… 좋은 수행법 고민
맞는 수행법인지 의심도 일어나
수행해도 욕심·화 줄지 않으면
올바른 수행법으로 보기 어려워

부처님은 생각한다는 것은 젊은 사람이 밤 나들이를 가기 위해 몸을 깨끗이 씻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고급 향수를 뿌리고 나서 개의 시체로 만든 목걸이를 목에 거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칠지만 정확한 비유입니다. 모든 생각은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라는 이미 죽은 시체를 아름답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에 걸어놓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오래된 나쁜 습관일 뿐입니다.

생각을 멈추려면 생각에 매달리는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한다면 생각을 놓아버리기 쉬울 것입니다.

생각의 흐름이 시작되었을 때, 그 안으로 빨려들어가는 대신 생각과 거리를 둔 채로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생각의 흐름에 빠져드는 습관에 말려들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느껴보십시오. 생각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자신은 그 생각과 떨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과 떨어지면 여유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제 손이 큽니까? 제가 손을 들어 저의 눈앞에 대면 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오로지 저의 손바닥뿐입니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눈앞을 가렸던 손을 치우면 손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에 몰입하면 생각 이외의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생각이라는 것에 최고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손을 눈앞에서 치우듯 자기 자신과 생각 사이에 거리를 두면 마음의 시야를 확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밀려들 때 자신과 생각 사이의 여유 공간을 마음속으로 상상해보십시오. 생각이 저 멀리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은 여기 이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생각에 말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움은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평화로움 속에 머물러 본 수행자는 더 이상 생각에 매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산만함

또 하나의 장애는 산만함입니다. 수행하고 있는데 문을 꽝 닫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소음이 있습니다. 아잔 차 스님이 말한대로 소음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음을 방해합니다.

외부의 자극으로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는 우선 인식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저희 사원에 스님 한 분이 자신의 형이 방문하는데 함께 방을 써도 되냐고 제게 허락을 구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스님에게 함께 방을 쓰는 것은 괜찮지만 형이 코를 골지도 모르니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 스님은 자신이 먼저 잠들면 자신의 코고는 소리를 형이 들을 것이고 자신은 형이 코 고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님의 계획과 달리 스님의 형이 먼저 잠들었고 형의 코 고는 소리에 이 스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스님은 전에 들었던 법문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바꾸기로 하고 형의 코 고는 소리를 현대의 실험 음악으로 여기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이자 코 고는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고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잠을 잘 잤습니다. 그 스님은 자신의 인식을 바꾼 것입니다.

인식을 바꾸면 외부의 자극이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산만함이라는 장애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소음은 그저 소음입니다. 부정적인 해석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세게 닫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챙김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순간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면 해결방법이 나옵니다. 외부의 자극으로 방해받아도 계속 호흡에 관심을 두십시오. 수행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면 그 소리를 관심의 변두리에 두십시오. 소리는 들리지만 관심의 정중앙에는 언제나 호흡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통증이 느껴져도 역시 관심의 변두리에 두고 중앙의 위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호흡을 최우선 관심사로 삼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이 확대됩니다. 사람들의 말소리, 몸의 통증 등은 변두리에 있다가 점점 바깥쪽으로 밀려 나갑니다. 수행자는 오로지 호흡과 함께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수행자가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짜증내고 불평한다면 그러한 장애물이 관심의 중앙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호흡에만 관심을 두고 확대하다보면 다른 장애물은 점점 의식의 바깥으로 밀려 나가게 됩니다.

니밋따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의 중앙에 니밋따가 머무는 것입니다. 이미 말했듯 니밋따가 처음 나타나면 흥분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흥분과 두려움을 관심의 변두리에 두고 중앙에는 언제나 니밋따를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니밋따는 확대되고 흥분이나 두려움은 관심의 바깥으로 밀려 나갈 것입니다.

이 글은 아잔 브람의 위빠사나 명상 강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 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탈종공고

• 법 명 : 진관 (속명 / 이윤일)
• 주 소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119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연화사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양평리 20-1
• 주 지 : 혜당 행덕 (속명 / 김근남)
• 승 번 : 132-003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수행 종풍이 맞지않아 귀종에서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1213호 현대불교
2018년 9월 19일(8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2년

한생각을 돌려서 공한 자체를 알고 인간으로서 행해야!

부산지원에서 여러 불자님들과 더불어 큰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스님들께서 이렇게 호응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기 스님들을 뵙고 보니까 너무 기쁘고 황송하고, 또 노스님을 뵈오니 아버님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더불어 불법을, 아니 불법이라기보다도 세상 이치를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한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 불(佛)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전체를 싸고돌면서 모든 생명을 생산해 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 불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며 교(敎)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돌아가는 이 자체, 말하고 통하는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단어가 어느 한 군데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끝없는 진리를 표현하는 방편으로서 불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어느 교를 막론해 놓고 불교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물 한 그릇도 흙 한 줌도 역시 모두가 그 생명의 근본이 불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간판을 붙여 놓고 내 종교, 네 종교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좁은 마음으로 항아리 속에서 진드기가 공에 매달려서 살듯이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구 바깥으로 벗어나서 우주로 마음을 돌려 보실 수 있다면 우리 불교가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고 개혁이 돼서 앞으로 성스럽게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면서, 실천 또 실천, 그리고 또 실행을 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불교다, 불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게 없죠.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티베트 불교, 일본 불교, 통일교, 모든 종교들이 나서서 '내 거다 네 거다' 하고 싸우는데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부산의 여러 스님네들을 뵈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스님이라고 하기보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왜냐? 그것은 법랍이 높고 낮고 간에 그 마음 때문입니다. 서로 위해 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받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가니까 부처님들이 가르쳐 주신 그 법도는 다 어디 가고 수행자들이 서로 싸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한인회관을 서로 팔아먹고 서로 잡아먹히고, 서로 한 마음으로 뭉치지 않아서 외국에서도 비난을 많이 받는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게 놔두고…. 참, 스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불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말은 체계적으로 못하지마는 그 뜻은 아마 조금도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으면 못 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부산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보고 그랬지만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의 감사함을 느끼고 또 흙의 감사함을 느끼고 바람으로 인해서 공기의 감사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불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당초에, 생명이 생기기 이전에 지금 현재의 지수화풍에 의해서, 흙과 물과 바람, 이 세 가지가 한데 합쳐서 바로 거기에 따뜻한 원기를 줌으로써 생명체가 생기고, 그 생명체가 생김으로써 바로 우리는 불이라는, 생명이 생기기 이전인 불이라는 그 자체의 불성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 최주현

그렇다면 세 가지가 뭉쳐서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생명이 나온 것인데, (컵을 들어 보이시며) 이것도 역시 세 가지가 뭉쳐서 불에 구워졌기 때문에 이 컵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인간으로 진화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가 그렇게 한데 합쳐서 온 누리에 어떠한 거든지…, 혹성이 돼서 그것이 부딪치고 또 깨지고, 부딪치고 모이고 부딪치고 모이고 그러면서 수억겁이 흘러서 미생물의 문제들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생물이 수없이 흘러나오는데, 묘한 것은 그 미생물은 넷이 동업자가 돼서 같이했지만 네 종류로 나왔습니다. 태로 나고 알로 나고 화해서 나고 습(濕)에서 나고 이래서 네 가지로 화현을 했는데, 묘한 것이 있어요. 물의 성품은 물의 성품대로 물에서 살게 했고, 바람의 성품은 바람의 성품대로 날면서 살게 했고, 습에서 난 것은 습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습에서, 이 땅에서 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주 기묘한 것이 불입니다. 불의 성질! 그런데 불의 성질은 뜨거운 것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의 근본, 세상에 나기 이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 자체는 모든 것을 포괄하게 돼 있고, 모든 것을 같이 이끌어 돌아가는 한마음의 끝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의 생명이든 더하고 덜함이 없이 그 소중한, 바로 불이라는 보배가 우리에게 전부 주어졌다는 겁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우리는 쫓고 쫓기면서 단계 단계를 밟아 진화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미생물의 단계 또 곤충의 단계, 동물의 단계, 즉 인간의 바로 밑에 있는 코끼리라든가 소나 말 같은 단계를 거쳐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이 됐다 합니다.

여러분이 먹히고 먹고, 쫓기고 쫓고 부딪침을 거듭하며 뼈아픈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왔다 하더라도 인간 이 자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인간으로 세 번을 태어나 살아야 인간 됨됨이가 제대로 된다, 바로 부처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짐승으로 살다가 금방 인간이 된 사람은 가끔 짐승의 짓을 잘해서 행동 자체가 거칠고 악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생각을 돌려서 공한 자체를 알고 인간으로서 행해야겠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이 돌아가는 지금 이 시점의 공한 자체를 부처님께서는 바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했던 그 사생 자체가 얼마나 묘한지…, 물의 성질을 띠고 나왔기 때문에 물에서 살고, 또 흙에서 살고, 습한 흙에서 살고 또는 날아다니며 사는 사생들이 불성을 다 가졌지만 사람만이 좋고 나쁜 것을 알고 있는 인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나쁜 짓도 하겠지마는 좋고 나쁜 것은 다 압니다. 인간도 차원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중생들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인연 지은 대로, 악업 선업을 지은 대로 여러분의 몸속에 뭉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고덩어리라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자체 생명의 의식들은 스스로, 내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있는 자생중생을 제도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바로 다스리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안에서 나오는 것대로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그 마음이 한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한마음에다가 놓고 다스려야 한다는 얘깁니다.

모든 마음들을 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옳다고 하시겠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이지만 말입니다. 다 여러분의 생각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게 하나도 없고 그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으면 작은 대로 쓸모가 있고 크면 큰 대로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찮은 허망함 속에 진짜 참자기가 있으며 참진실이 있고 실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둘이 아닌 까닭에 한 사이가 없이 하고, 또는 하고도 한 사이가 없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마음의 도리를, 스스로 고정됨이 없이 한 발 한 발 떼어 놓으면서도 짊어지지 않고 가는 그런 도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고 다니는 것처럼, 놓으면 죽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나오기 이전의 배낭을, 악업 선업이 들어 있는 마음의 배낭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과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짊어지고 나왔으니 말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고 했지만 바로 미래도 여기 있습니다. 정신계로부터 물질계로 나오니까 정신계와 물질계의 그 깊은 사연들은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당이니 지옥이니

☞ A18면으로 계속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6절 (305×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고 했지만 바로 미래도 여기 있다

☞ A17면에서 계속

하는 것도 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50% 정신세계를 추구하지 않고 부처님의 본뜻을 받지 않고 오직 그렇게 물질세계에서만 끄달리고 있습니다. 착, 욕심, 아만, 아상, 아집 이 모두를 한꺼번에 짊어진 채 거기서 나오는 대로, 배낭 속에서 나오는 대로 온통 성질을 내고, 별 거 아닌 거 가지고도 온통 싸우고 분통을 내고 또는 병고를 앓고 온통 야단들이죠. 왜 그럴까요? 그 수많은 악업 선업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게 무엇인가?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인과성이 수없이 거기에 들어서 팥죽 솥에서 팥죽 방울이 끓어오르듯이 온통 나오는데, 그 방울 방울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배낭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산 것만큼, 행한 것만큼, 바로 자기가 저지른 것만큼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짊어지고 나왔고,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누구의 탓을 하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내가 짊어지고 나온 탓이니까 말입니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세요. 바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고 그게 화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도 직선적으로, 직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내가, 공한 이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게 하나요,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점프해서, 뛰어넘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해서 생명체가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진화돼서 나왔구나. 그랬으니까 그 나온 거는 나온 거로되 무조건 놓고 가야겠구나!' 하는 거죠. 즉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하고 바로 맡겨 놓고 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정신계의 지름길이 될 수 있으며 그런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붙이고 또 붙인다면 그건 영원히 참자기의 그림자도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맛도 못 볼 것입니다. 그 맛을 알아도 남한테 일러 주지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맛을 모르고 내 몸 하나 이끌어 가지 못한대서야 어찌 불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세계로 치닫게 되는 교차로에 놓여 있는데 물질세계 50%만 가지고 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천체물리학이니 과학이니 철학이니 지리학이니 천문학이니 하고 무수히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죠. 그럼 요거부터 말씀드릴까요? 미국의 하버드대학 박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교수님들하고 전부 같이 모여 있을 때입니다. "스님! 지금 우리는 우주에서 전파를 통해서 외계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해서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천부당만부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무전전화를 내 마음속에서부터 놓아야 남한테 무전전화도 하고 무전전화도 받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그 통로가 막혀 있다. 모두 각자 나에게 통로가 있으니까 그 통로를 바로 틔워 주어서 물리가 터지고 모든 게 파악이 된다면 내가 두루 탐험할 것이고 볼 것이고, 두루 들을 것이고 찰나찰나 만날 것이고, 내가 결정지을 것이고 내가 안팎으로 통신하는 소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라는 그 이름 없는 부처님 자체는 바로 진드기 발 하나도 내 발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바로 평발이라 했고, 모든 손도 내 손 아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평손이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 내 손 아님이 없고 내 손 없는 데가 없고 내가 없는 자리가 없다' 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두 당신네들 마음속에 통로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 마음속의 통로를 안다면 벽도 봇장도 없어서, 자기 마음으로 창살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갇혀 있던 자기가 창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감옥에서 탁 틔어져 나오니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두루 볼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두루 보는 것도 도가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즉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마음의 귀로 듣는 것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한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마는 제 의견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제가 더 잘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의견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실험하고 했더니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알아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과거를 다 안다고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미거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물그릇을 보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이것을 갖다 먹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보나마나니까요. 가고 온다 하더라도 아무 실천이 없다면 가고 와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들어도 행하지 못하면, 진실된 행을 못한다면 한데로 떨어지고 그건 소용없는 거니까요. 과거를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만으로는 도가 아니죠. 그러나 과거를 알아서 현재의 그 다섯 가지를 굴리면서 모든 거를 실천하고 자비로써 한마음이 돼서 발전시키고 개혁해 나갈 수 있다면 바로 함이 없이 해 나가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 지금 언어로 말하자면 숙명통은 컴퓨터, 타심통은 탐지기, 신족통은 팩시밀리, 천안통은 천체망원경, 천이통은 천체무전통신기인데 이 다섯 가지를 다 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자랑 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의 뜻이 열 가지, 백 가지의 뜻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진통이라는 것이 뭘 뜻하는가? 지금 시쳇말로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됩니다. 레이더망은 이 대기권에서 벗어나서 안에서 나오는 거,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그것을 무전통신기로써 다 통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할 문제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한다면 누진통으로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섯 가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조금 맛만 봤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전부 알았다." 이런다면 벌써 그건 그른 거예요.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고 해도 그른 거고 안 이루겠다고 해도 그른 겁니다. 그대로 실천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묵언! 묵언행! 남의 탈을 잡고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모든 거를 내 탓으로 돌리며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거기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한데 합쳐진 한마음의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 한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이열치열이라는 그런 속담의 말도 있듯이, 모든 것은 거기에 맡겨 놓는 겁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 하는 것이니 나는 시자일 뿐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이라고 합디다.

그러면 내 마음이 움죽거려서 이 몸을 움죽거리게 하는 거지, 몸이 마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차를 타고 오신 분이 많겠죠. 운전수는 중간에서 차를 잘 이끌어 가지고 가면서 고장이 났으면 고쳐서 가고, 한데로 빠졌으면 다시 돌려서 빼 가지고 건져서 가고, 또 위로는 기름을 넣고 이렇게 하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몸을 다스리면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 나오는 대로 다 제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모든 것은 다, 좋은 거는 감사하게 놓고 나쁜 것은 '아하, 나쁜 것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좋은 것도 거기서 나올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면 바로 어언간 밝은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50% 물질세계에 물이 들어서 요만큼도 여유가 없이 남이 화나는 소리 하면 화를 벌컥 내고 안으로 굴릴 줄도 모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의학적으로도 지금 정신세계, 즉 말하자면 무심세계의 의학이 돼야 되는 거지 학술적인 이론의 의학이 돼서는 바로 30%, 35%밖에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65%는 누가 감당을 하느냐?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고 나가야죠. 말을 하다가도 이렇게 자꾸 샙니다. 딴 데로 나가거든요, 문이 하도 많아서요. 허허허…. 문이 많아서 문이 없고 문이 없어서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이 없어서 문이 없고 문이 없어서 문이 많습니다.

> 옳은 게 하나도 없고 그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 작으면 작은 대로 쓸모가 있고 크면 큰 대로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이러니 여러분이 그 뜻을, 우리 부처님의 골수의 뜻을 잘 아셔야 할 겁니다. 고깃덩어리를 믿을 수도 없고 이름을 믿을 수도 없고 형상을 믿을 수도 없고 허공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뼈저리게 마음이 아파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아픈 것도 누가 대신 아파 줄 수도 없고 먹는 거, 똥 누는 거, 자는 거, 죽는 거 모두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은 50%의 그 물질세계에 아주 그냥 배어서 조금도 용납이 없고 용서할 줄 모르고, 또는 남의 탓을 하고 남을 원망을 하고, 내 종교 네 종교만 따지고 이럽니다. 한 그릇 안에서 사는 다 같은 구더기가 더 잘났으면 얼마나 더 잘났겠습니까, 네? 그 항아리 속에서 벗어나려고는 안 하고 항아리 속에서 네 집 내 집 하고 들입다 싸우고 있으니…,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냥 졸졸이 졸졸이 물질계에 붙어서 사니 여러분이 이 몸에 착을 둬 가지고, 내가 공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는 생각에 착이 꽉 들어차서, 아픈 것도 아픈 게 붙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프다 뭐다 하니까 더 아플 수밖에 없죠. 왠 줄 아십니까? 몸속의 악업 선업들이 원수 갚으려고 나오기도 하고, 인연에 따라서 모든 걸 갚으려고 요거 나오고 조거 나오고, 때를 찾아서 잘 나오는 것을 아, 그것을 모르고 자꾸 속는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 놈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숙명통 컴퓨터에 입력이 돼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내가 요놈의 거를, 나오는 거를 컴퓨터에다 다시 입력을 해 넣어야겠다.' 왜 요런 생각을 못하십니까? 그래서 컴퓨터에다 다시 입력을 해 놓으면 앞서 입력됐던 게 아주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그 업보라는 게 어디 붙을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가 일초에 몇 바퀴씩 돌아갑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너희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라." 하셨는데, 우리가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은 많지만 그건 이름대로 이름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남편이 됐다가, 금방 자식이 됐다가 금방 형님이 됐다가, 아우가 됐다가 금방 사위가 됐다가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금방 어떤 것이 됐을 때에 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자고 남자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걸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은 나라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팥죽 그릇에서 팥죽 끓듯, 팥죽 방울 나오듯 그냥 나오는 걸 가지고, 제 솥에서 팥죽 나오는 걸 가지고 꼭 조상 탓이나 하고, 딴 데서 무슨 세균이 붙어서 병에 걸렸다고 하고 또 딴 데서 마가 들어서, 가난이 들어서, 병고가 들려서 이렇다고 하시니 여러분은 참으로 나같이 어리석습니다. 허허허, 나같이….

나도 사실은 못나고 못나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무지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이런 길을 걷게 했나?' 하는 생각에 하늘을 쳐다보고 악을 쓰면서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사람의 콧구멍은 내리뚫렸는데 소 콧구멍은 치뚫렸기 때문에 먼지가 끼어서 막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뭘 그러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는 뼈저린, 그 못난 생각을 다시 한번 돌려서 이렇게 생각했죠. '못났으면 못난 대로고 잘났으면 잘난 대로고 크면 큰 대로고 작으면 작은 대로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9월 1일 부산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불 논단

서산대사 같은 총무원장 찾자



김형중
동국대
부속 여자고등학교교장

전임 원장 스님의 친자 의혹으로 조계종단, 한바탕 광풍에 '몸살'
새 지도자 선출하는 선거 시작돼

네 후보 스님 모두 수행 · 포교 모범
모범적 공명선거 위해 손 맞잡기도

차기 원장 첫 덕목은 '도덕성' 이지만
도덕적 결벽주의에만 매몰돼선 안돼
과거 갈등 화합시키는 포용력도 필요

〈토지〉의 작가 박경리는 '기다림' 이라는 시에서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산은 무너져 가고/ 강은 막혀 썩고 있다/ 누가 와서/ 산을 제자리에 놔두고/ 강물도 걸러내고 터주어야 한다… 누가 와야 한다"고 읊었다.

현재 우리 조계종단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서산대사와 같은 초능력을 가진 지도자의 탄생을 기다리고 여망하는 시인 것 같다.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는 의승병을 일으켜서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 그때 스님의 나이는 73세였다. 불교종단이 선종과 교종의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되었을 때 선교 양종을 통합한 판사요, 도총섭이다.

현재 조계종단은 前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친자 의혹' 이라는 문제로 인해 종단 사상 초유의 총무원장 불신임과 탄핵을 받은 상황이다. 광풍이 한바탕 지나가면서 종단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와중에도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 돌입했다. 후보에는 기호 1번 혜총 스님(前 포교원장), 기호 2번 원행 스님(前 중앙종회의장), 기호 3번 정우 스님(구룡사 회주), 기호 4번 일면 스님(현 원로의원) 등 네 스님의 자웅을 겨루는 각축전이 시작되었다.

세간의 중평이 후보 네 분의 그 동안 수행자로서 살아온 면면이 이 정도면 누가 되어도 참 잘 할 수 있겠다고 한다. 수행이나 포교에 자타가 공인하는 달인 스님이요 모범승이라고 찬사를 한다. 종단의 주요 직책을 두루 경험한 준비된 후보이다.

다행히 아직 태풍의 전야처럼 고요하게 선거전이 진행 중이다. 후보들 간에도 모범적인 공명선거를 위해서 손을 맞잡았다.

이번에 뽑힐 총무원장의 덕목은 첫째가 도덕성 그리고 행정추진 능력과 포용력이다. 법정 스님 같은 청렴하고 결백한 지계정신으로 무장한 인물이 총무원장으로 선출돼야 한다. 최근 일련의 종단 갈등은 범계 의혹에서 비롯된 사안들이 상당수다. 그렇기 때문에 지계정신이 출중한 종무행정가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단점이나 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 성자 간디도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마약도 했다. 문제는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주홍글씨로 먹칠해서 생사람을 잡으면 안 된다.

불교는 지나간 과거를 따지지 않는다. 중생이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종교이다. 과거에만 집착하는 것은 병이다.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일이 불교의 성자를 뽑는 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너무 지나치게 도덕적 결백주의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후보 네 스님의 공통점이 모두 전법 포교와 불교교육에 일가를 이루었다. 특히 군포교에 앞장서고, 도심포교를 개척하고, 승가교육에 선봉장인 지장이요 덕장이요 용장이다. 유치원 청소년 포교와 교육, 복지사업 그리고 생명운동 등 시민운동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사회 일선에서 사회를 선도한 선각자요 원력보살이다.

번뇌가 크면 깨달음도 크다. 이번 우리 종단의 아픈 상처와 갈등을 잘 치유하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새로 선출된 총무원장은 차제에 종단의 갈등과 불만 세력의 과거 행위에 대하여 불문에 붙이고 다 털고 가야 한다. 큰 용광로 속에서 일불제자로 화합시켜 새로 태어나는 불자를 만드는 포용력을 보여야 한다.

다음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하는 유능한 종무행정을 펼 수 있는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다. 사람이 부처이다.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특별기고
진광 스님 조계종 교육부장

염불하는 이가 누구인고

4년 만에 열리는 학인 염불대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볼 것
많은 대중들의 참여와 응원 부탁

9월 19일 조계사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2018 조계종 학인 염불시연대회' 가 개최된다. 지난 2014년 '제1회 조계종학인 염불시연대회' 가 열려 크나큰 반향을 일으킨지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뜻 깊은 행사인지라 감회가 새롭다.

중국 사찰에 가면 선원 벽에 두 개의 현판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개 숙여 발밑을 보라는 '조고각하(照顧脚下)' 와 '염불하는 이가 누구인고' 하는 '염불자수(念佛者誰)' 라는 것이다. 때론 염불시수(念佛是誰) 혹은 염불자시수(念佛者是誰)라고 하기도 한다.

염불(念佛)은 내 마음 속에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염불삼매(念佛三昧)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염불은 마땅히 수행자가 해야 할 수행이자 중생들의 교화방편으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염불하는 이를 '염불중' 이라고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풍토가 있어 왔다. 한국불교가 선불교의 종지종통을 견지하기에 생긴 일인데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불교는 회통(會通)의 통불교(通佛敎)적인 전통을 간직하여 왔기 때문이다. 또한 맹자의 말처럼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이 없다는 말처럼 염불하는 이가 없다면 어찌 참선수행만을 할 수 있겠는가?

덕숭총림 수덕사는 선지종찰(禪之宗刹)이지만 아름다운 염불의 전통 또한 간직하고 있다. 만공 스님은 대종장(大宗匠)이자 대어산(大魚山)이셨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수덕사만의 아름다운 염불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정월 초하루날, 금선대 진영각의 옛 스님들께 신년다례를 올린 후 큰절 대웅전까지 온 대중이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내려와 신년 통알(通謁)을 올릴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행복하기만 하다. 또한 수덕사 3대 보물 중의 하나로 초등학교도 안 나왔고 그래서 자기 법명조차 쓸 수 없는 천진한 보리(菩提) 스님이 귀동냥으로 익힌 새벽 도량석은 우렁차고 힘이 있어 감동하게 된다.

예전에는 이렇듯이 각 본사마다 전통 염불이 잘 보존 되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상한 염불로 통일되어 그 멋과 맛이 사라져 안타깝기만 하다. 이런 연유로 전통의 염불을 복원하고 아울러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창작염불의 계발을 위해 염불시연대회를 개최한다고 할 것이다.

올해 유별난 삼복더위 염천(炎天)에 학인들의 염불열기로 온 도량이 염불로 장엄 중이다. 학인 스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찬탄과 환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들의 피와 땀이 서린 작품을 시연할 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단언컨대,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그 무엇을 상상하든지,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다. 정 못 믿으시겠다면 9월 19일 조계사에 오셔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고 함께 즐기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社說

종책 승부하는 선거 기대를…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기호1번부터 기호4번까지 네 스님 모두 같은 날 정견발표를 통해 각자의 종책을 소개하는 한편, 종정 진제 스님을 예방하는 등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상대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없는 공명선거를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공명선거뿐만 아니라 종책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조계종은 前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라는 멍에를 안고 떠나 수장 궐위 상황을 겪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불신임 과정에서 종단안팎의 여론이 둘로 나뉘고, 서로의 목소리가 옳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반복했다.

그렇기에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이 왜 차기 총무원장 적임자인지 구체적인 종책을 알리며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종책토론회다. 1994년 종단개혁을 통해 현재의 종헌종법 기틀을 다진 조계종 현대사에서 총무원장선거 종책토론회는 2003년 제31대 선거단 한 번뿐이었다. 그나마도 선관위가 아닌 불교기자협회와 중앙신도회 등이 주관한 것이었다.

불과 1년 전, 제35대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 종책토론회 개최를 종법상 강제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후보들도 토론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며 끝내 무산됐다.

현재 조계종은 위기상황이다. 과거와 똑같은 선거를 반복한다면 대중의 신뢰 회복은 먼 이야기가 될 것이다.

각 후보들은 현 상황을 깊이 받아들여 어느 때보다 여법한 종책선거를 치러야만 한다.

범어사 · 사하촌 共生 '귀감'

부산 범어사가 새로운 불교전통문화의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다. 갑자기 사찰이 원래부터 불교전통문화 거점이 아니냐고 할 수 있다. 범어사의 변화는 사하마을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범어사는 9월 11일 성보박물관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토식을 했다. 기존 경내 성보박물관과 다르게 사하 상마마을에 들어서는 박물관으로, 박물관 위쪽에는 12월 선문화교육관도 함께 들어선다.

선문화교육관은 총 7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불사로 선체험교육관과 선문화관 등에 2개동이 세워진다. 선문화를 중심으로 템플스테이와 문화체험 및 공연 등이 사찰 밖에서도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불사에 상마마을 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다. 여기에 부산문화재의 1/3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범어사 성보박물관도 함께 들어서는 것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사찰 내 개발에 주목해왔다. 사찰 중창불사 계획에도 대부분이 사찰 전각의 중창에만 신경을 써왔다. 범어사의 이번 박물관 불사와 선문화 교육관은 새로운 형식의 경외(境外) 불사다. 사찰보다 접근성이 좋은 마을을 함께 개발해 함께 공생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사찰과 인근 마을은 역사적으로 이빨과 입술의 관계였다. 순망치한의 관계로 서로 함께 부대끼며 의지하며 살아왔다. 사찰 내에 모든 시설이 세워지만 사하마을은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불교계는 불사에 있어 인근 지역 공동체도 생각한 공생의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충 청 지 사 : (042)631-7747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즉문즉설 ②

부처님 가피(구원)는 있는 것인가?



그럼 당신은 길에서 환우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건지 출가자로서 말을 해야 할 것이다.

불교방송이나 불교관련 언론 매체에서 보면 어느 사찰이랄 것 없이 서로 신통, 영험함을 선전하며 자기네 사찰은 천년고찰로서 ○○누가 창건했고 그래서 기도하면 한 가지 원은 꼭 들어준다고 하는 이런 저질스러운 내용을 방송을 통해 많이도 봤을 겁니다. 현재도 계속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불교가 이런 것 입니까? 이것은 영락없는 장사꾼들이 하는 호객행위와 다를 바 없다. 원(願)이라 했는데...

불자들이 법회나 기도 때 천수경을 약방 감초처럼 꼭 하는데 말미에 **발사홍서원을 승, 속이 다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별도의 원(願)이 있는가?**

그것도 부처님 면전에서 큰 소리로 하면서 거기 다 십악 참회와 더불어 절대 삼독을 버리고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래도 부처님께서 믿지 아니할까 봐서 굳은 맹세를 서원으로 보답하고저 지난날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참회를 바탕으로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經典)을 다 배우고 궁극에는 불도를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맹세, 맹세 스스로 서원을 통해 약속해 놓고는** 그것도 잠시 바로 이어서 서서히 야수의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입시 현수막을 붙여놓고 합격시켜 달라, 인등 켜 놓고 승진시켜 달라, 돈 벌게 해 달라, 재수대통하게 해 달라 등등... 잡동사니를 요구하는게 왜 그리 많은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버얼건 대 낮에 승, 속이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게 부처님께 겁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크고 작은 승들이 아무도 입을 대는 이 없다. 그러니 큰 절에 있었던 외국 스님이 한국에는 불교가 없다고 하며 떠났지...

무엇이 정법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불교대학까지 운영하면서 그런데도 불자들한테 물으면 자기네들이 스님과 더불어 정법 수행을 한다나?...

정말 바르게 해도 기적은 체험하기란 어렵고 어려운데 허구한 날 하는 짓이란 그저 푸닥거리 수준으로 그들을 내몰고 있으니 그저 한심할 뿐이다.

불교는 아주 쉽고 간단하다. 초등학교 때 도덕, 바른 생활이다.

불교신문과 지역신문에 "종교는 도덕이지 더 이상 더 이하의 것도 아니며, 그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것이다." 라고 쓴 적이 있다. **종교는 도덕이 근본이다.** 딱 맞는 말이다.

예로 아들 셋을 둔 가장이 있다고 했을 때 첫째는 맨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사주, 삼재, 부적, 방생, 성지순례등 비불교적인 행위)들만 하면서 눈만 뜨면 시도 때도 없이 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많고, 둘째는 아버지의 교지를 잘 받들어 삼재, 사주, 부적, 방생, 성지순례 등등...을 하지 않고, 셋째는 그저 그렇게 세월을 보낸다고 할 때 **이 아버지는 누구에게로 향할 것인가?**는 불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설법이란 성인의 말씀을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례 2 - ○○ 스님]

오래전에 시한부로서 소승한테 기도 받았던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안부와 함께 하는 얘기는 잘 아는 스님이 아무리 봐도 조현병 같은데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한번 봐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몸은 어땠었냐고 물으면서 ○월 ○일에 데리고 오라고 약속을 하고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았다.

대부분 조현병 환자들은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스님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할 수 없이 그 스님이 임시 보호자가 되어 다시 약속한 날에 데리고 왔다.

눈을 보니 본성을 잃고 환란에 젖은 지가 오래 되었고, 그로 인해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못해 극도로 야위었다. 그래서 신도님께 죽 집에 스님 4분과 함께 5인분을 예약해 달라고 했다.

(여기에서 어떤 이는 공영방송에서 조현병 환우를 병원에 보내라 했고, ○○ 명상대전에서는 참회가 어떻고, 정념이 어떻고 하며...결론은 참회와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하라 했는데...아니 이미 정신세계가 환란에 젖어 본성을 잃고 사리분별이 안 되는 그에게 참회라니... 이게 부처님 제자로서 할 소리인가?

이럴 때 수행 끝에 얻은 초능력이 있다면 바로 데려오라 해서 그 능력을 쓰면 될 것이다. 공중부양을 비롯해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며 그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찰나에 통과해서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능력이 과연 있다면 지금 환우를 내 앞에 오게 한 다음 그를 환란에 젖게 한 불순물을 순식간에 투시해서 볼 수 있을 것이고, 일초지기에 제거하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말로 하지 말고 보여라! 제발 입은 굳게 다무는 연습을 하자.

출가수행자가 얻는 불가의 신통은 중생제도에 꼭 필요한 그 권능을 불보살님과 바른 수행자 누구에게나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곳에 쓰지 않으면 그 권능은 순식간에 없어짐을 알아야 한다. 한갓 신비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권능이 아니고 눈속임 하는 마술에 불과한 것이다.)

나이는 속세 40대 초반이고, 대형사찰에 있으면서 선방 수좌로 10년 가까이 생활하다 다시 대학 생활을 얼마 하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는 것이다.

이 모든 대화는 본인과는 불가능했고, 부탁한 스님이 겨우 당사자의 입을 보고 통역하다시피 해서 겨우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 손은 목을 쥐고 있으면서 입은 물고기를 밖에 내어놓으면 숨을 쉬기 위해 입만 껌뻑껌뻑 하는데 그것과 흡사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것도 2초 간격으로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다.

식당에 가서 누가 볼세라 구석진 방으로 들어갔다. 음식이 나오자 고개를 숙이고 입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다. 짐짓 신도분이 놀라는 기색이다. 그러나 그 신도 분은 그와 유사한 스님들 사례를 많이 보아 왔기에 이내 본 모습으로 돌아옴을 알 수 있었다.

신도 분 보고 공양게송을 하라 하고는 전부 고개를 들고 숟가락을 들게 했다. 유독 한 스님만이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들 낌새가 없는 것이다.

이때 "고개를 들고 날 쳐다보라."했다.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무엇이 두려워서 고개를 못 드나? 당당하게 들어라. 그리고 날 쳐다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저 스님이 숟가락 들기 전에는 오늘 누구도 이 공양을 들지 못한다."고 했다.

계속 고개만 숙이고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때 옆에 스님이 사실은 밥이 아닌 미음이나 우유죽도 먹어본지가 오래되고, 근자에는 주로 주사(링거)에 의지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약 5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당당하면 피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고 했다. 그때 고개를 조금씩 드는 것을 보고 "고개 들었으면 숟가락을 들어라."고 하니 숟가락을 들고는 고개를 갸우뚱 하는 것이었다.

"숟가락을 들었으면 죽을 뜨라"고 하니 자꾸만 망설였다. 큰 소리로 "왜 죽음이 두렵나?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 죽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혹여 죽는다 하더라도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설사 죽으면 이 스님이 너 하나 정도는 건져 줄 법력은 있다. 내가 책임지고 49재는 여법하게 지내줄 테니까 죽을 떠서 입에 넣으라."고 다시 큰 소리를 치니 죽을 입에 갖다 넣는 것을 보고 "넣었으면 씹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먹는데 일행 중에 제일 먼저 그릇을 비우자, 옆의 신도님이 죽을 반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결국 한 그릇 하고도 반을 더 먹은 셈이다.

어느새 물고기처럼 껌뻑껌뻑 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식사를 다 하고 나오는 길에 또 신도분이 미리 내일 아침에 드시라고 죽을 더 사주는 것이 아닌가?

다음 날 아침 새벽안거 중인지라 신도님들 20여분이 보는데서 기도해 주었고, 아침에 죽은 내가 먹고 그 스님은 잡곡밥을 주었다.

이참에 재현될까봐 "이 시간 이후 절대 사주, 부적, 삼재, 입시기도, 승진기도, 인등 등등...을 하는 삿된 절에는 절대 가지 말라.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당분간 여기 있으라."고 했으나 일단 갔다가 짐을 싸서 다시 오기로 하고는 그날 오후에 역시 잡곡밥을 먹고는 갔다.

제 정신이 돌아오고서야 속인들이 봤으니 미안함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공개된 자리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신도님들도 그런 장면을 보아야 제대로 수행 안 하고 삿된 곳을 쫓아다니면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갖기 위함인 것이다.**

분명 불자들도 눈으로 보아야 한다. 부처님도 보여라 했다. 그리고 그 큰 대형사찰에서 이미 알려진 스타급 스님들과 TV 등...방송매체에 출연하는 큰 스님들을 많이도 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스님 하나 병마로부터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어디 그 사찰뿐이겠는가?

서산대사의 말씀이 뼈저리게 생각난다.

學語之輩
말을배우는그무리들은

說時似悟
말을 할 때는 깨달은 것 같으나

對境還迷
경계에 맞닥뜨리면 미혹함에 돌아가나니

所謂言行
이른바 말과 행동이

相違者也
서로 틀리기 때문이다.

「禪家龜鑑」

● 소납은 초파일을 비롯해 큰 행사시 신도님들에게 꼭 묻는 것이 하나 있다. 통칭 염라대왕이 병고로 고생하는 가족 (신랑, 부인, 아들, 딸)중 때가 되어 데리고 가고자 할 때 그 가족이 지극정성으로 한번만 살려달라고 염라대왕께 매달리자 "좋다,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할테니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내 살려주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동전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가져온다면 내 살려주마."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는지?...**

생명인지, 재산인지...

대부분 여기 거제도에 있는 연등사라는 조그만 사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매스컴을 통해 소문만 무성한 종교집단에 재산을 거의 다 소진하고 탈진상태가 되어 반신반의하며 실제로 오는 이는 드물다.

대신 스님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즉문즉설의 장을 열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자주 알리고 쉽지만 본 사찰은 사주, 부적, 삼재, 인등, 방생, 성지순례 등등...비불교적인 행위를 일체 하지 않으므로 이 지면을 통해 정법 불교를 알리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납은 각종 환우 기도시 신도님들과 더불어 공개된 자리에서 기도한다. 특별한 환우(조현병 환자)는 상태에 따라 관전만 하게 하고 혼자 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같이 한다. 신도님들도 그런 장면을 보아야 **삿된 곳에 쫓아다니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경각심을 갖기 위함이다.**

분명 불자들도 눈으로 보아야 한다. 부처님도 보여라 했다.

정법을 지켜내기 위해 보일 수 밖에 없다. 여기 신도님들은 가지 가지 많이도 봤다.

이제 말로만 하는 정법보다는 실천하는 정법인연을 맺읍시다!

불교계 최초 즉문즉설 안내

- 내용 :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을 통한 발표 및 질의응답
- 일시 :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 장소 : 연등사 대웅전
- 전화 : 055-633-6555 (학장스님 010-9411-5302)
- 참가자격 : 누구나

■ 당일은 개인 면담은 안 되고, 학장 스님과 협의 요망.

■ 앞으로는 재정이 해결되면 당분간 스님들 조현병 사례를 쓰고자 한다.

◆ 기도 동참하신 일부 신도님 연락처

① 010-2526-4365 (김 00)
② 010-4807-6932 (박 00)
③ 010-9707-4808 (박 00)
④ 010-6786-7495 (윤 00)
⑤ 010-3143-5302 (선현)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내)
TEL. 055)633-6555



레이크 쉬라인은 다양한 인종 · 문화를 담고 있는 LA에서도 다종교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다. 인도 요가와 함께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다.

다종교 사회 '명상 수행' 미래를 보다

특집기획

세계는
명상시대,
한국 禪이 연다

① 미국 불교명상의 현재는?
② 美 명상센터 현장 – 젠마운틴사원
③ 美 명상센터 현장 – 블루클리프사원
④ 美 명상센터 현장 – 개리슨인스티튜트
⑤ 美 명상센터 현장 – 레이크 쉬라인
⑥ 세계 명상 현주소와 禪명상 방향
⑦ 걸음마 뗀 한국 禪명상 과제는?
⑧ 불교명상 'GURU'에게 듣다

LA=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다문화 다인종 국가인 미국은 다양한 종교 또한 분포해있다. 특히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살아 '인종의 용광로'로 불리는 캘리포니아 LA지역은 종교의 용광로이기도 하다. 이런 LA에서 다종교 사회에서의 명상 수행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LA 레이크 쉬라인(Lake Shrine)이다. 우리말로 호수명상센터로 볼 수 있는 이 곳은 요가 수행자인 파라마한사 요가난다가 세운 곳이다.

상쾌한 날씨와도 같은 첫 인상 받아

뉴욕에서 하루가 걸려 도착한 LA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복잡한 뉴욕시내와 폭우가 내렸던 동부와 달리 넓게 자리한 건물과 야자수, 그리고 선선한 날씨와 바람은 기분까지 상쾌하게 했다.

LA에서 많은 사찰과 명상센터가 있지만 '레이크 쉬라인'을 찾은 이유는 이러한 기분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레이크 쉬라인은 1950년 파라마한사 요가난다(Paramahansa Yogananda)에 의해 설립된 곳으로 매년 수만명의 방문자가 이 곳의 아름다운 경관과 분위기를 살피고자 이 곳을 방문한다.

산타모니카에서 1번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10분가량 가면 레이크 쉬라인이 나온다. 전체 면적은 10에이커로 중앙의 호수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잘 가꾸어진 정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레이크 쉬라인은 1920년대 초 인세빌(Inceville) 영화사가 이 곳에서 무성영화를 제작하며 알려졌다. LA지역의 부동산 재벌인 알폰조 벨(Alphonzo Bell)이 이 곳을 인수하였고, 그는 협곡을 메우는 토목공사를 하였다. 공사가 중단되고 물이 채워졌고, 결국 호수가 되었다. LA에서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호수지만 10년 가까이 미개발지로 남아있었다.

1940년대 맥앨로이(McElroy)가 이 지역에서 자생하는 500종류의 열대식물과 관목류 등을 정리하여 관개공사를 하고 대규모 정원으로 꾸민다.

1940년대 후반 맥앨로이 부부는 호수 주변에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정유회사에 이 땅을 판매하는데, 정유회사 사장은 이 땅에 다종교 교회가 들어서는 꿈을 꾸고, 결국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에게 다시 땅을 팔게 된다.

애초에 정원, 그리고 리조트를 위해 개발된 곳이기에 레이크 쉬라인의 모습은 명상수행을 위한 전문 시설이기 보다는 평온한 숲속의 호수 같은 느낌이 든다.

레이크 쉬라인은 요가난다가 미국에 진출한지 30년이 되는 1950년 8월 20일 낙성됐다. 금색아치가 있는 연꽃모양 건물이 메인 건물로 자리했는데, 이는 인도에서 무한대의 가능성을 향한 정신의 깨우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요가난다는 이 곳에서 비폭력을 통한 저항과 평화를 알린 마하트마 간디를 기리기 위한 '국제평화기념조형물'을 세우고, 준공 당시 간디의 유골을 중국으로부터 가져와 안치했다.

요가난다는 입적 전 여러사람들에게 레이크 쉬라인의 새로운 수행처 건설의 필요성을 전했다. 1996년 SRF에서는 레이크 쉬라인을 접한 언덕에 새로운 수행처를 만든다. 동양과 서양의 건축양식이 혼재된 건물로 금색 연꽃 왕관모양의 8각 돔을 지니고 있다.

스티브 잡스에 영감을 준 요가난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슨은 잡스의 아이패드에서 단 한권의 책만 저장된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는다. 그 책은 잡스가 10대시절 처음 읽고 20대 인도여행 후 해마다 한번씩 읽은 요가난다에 대한 자서전이었다.

레이크 쉬라인을 세운 요가난다는 명상을 통해 직관과 통찰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요가난다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을 끊고 영적으로 진일보한 삶을 살 때 우리 자체가 진리임을 깨닫는다고 말한다. 스티브잡스는 명상을 통해 인문학적 감각과 과학적 재능을 결합하고 창조성을 발현해 혁신을 이뤄냈다.

인도 요가의 대표적인 인물

이러한 잡스의 스승인 요가난다는 1893년 1월 5일 인도 고락푸르에서 태어났다. 요가난다 앞에 붙는 파라마한다는 물과 우유가 섞여 있을 때 우유만 분리해 낼 수 있는 신성한 자를 뜻하는 것으로 일종의 선지식을 칭하는 용어다. 요가난다 또한 '요가와의 합일에서 오는 기쁨'이란 뜻으로 불교에서의 법명과도 같은 명칭이다.

구도자로서 요가난다는 11세에 집을 떠났고 스승 스리 유크테스와를 만나 지도를 받으며 요가 명상수행으로 삼매를 체험한다. 벵갈 디히카에서 7명의 학생으로 학교를 설립한데 이어 192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종교회의에 인도 대표로 참석하며 본격적인 미국 전법에 나선다.

그의 미국 방문에 이어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1925년 LA에서 자아실현회(Self-Realization Fellowship, SRF)란 명상단체를 조직했다. SRF는 인도에서는 'Yogoda Satsanga Society of India'로 알려져 있다. 본부는 콜카타 근처 다크시네스와르에 있고, 90개의 명상 센터와 21개의 교육기관 그리고 다양한 자선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54개국에 약 500개 명상센터들에서 SRF는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매일 묵언과 함께 단체 명상을 한다.



강좌를 듣기위해 레이크 쉬라인에 모인 미국 명상수행자들의 모습.

요가난다는 명상을 바탕으로한 엄격한 요가수행법을 기독교적 구원관을 가진 서구인들에게 간결하게 전했다. 요가난다는 인도 베단차 철학과 라자요가학, 그리고 세계 여러 철학을 가르쳤는데, 특히 부처님과 예수님이 모두 전생에 완전한 해탈을 성취하고 인류 구원을 위해 자기 의지로 이 땅에 온 존재로 설명하고, 수행자들은 다른 대중들에게 해탈과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사명 아래 모든 종교 근원은 같기에 하나의 인류애를 가져야 함도 강조했다.

일반명상과 요가 수행, 이분화 제공

레이크 쉬라인에서는 두가지 유형의 수행법이 제공된다. 바로 일반적인 명상 프로그램과 크리야 요가의 전문 프로그램이다. 일반 명상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된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소임(1)

B5
문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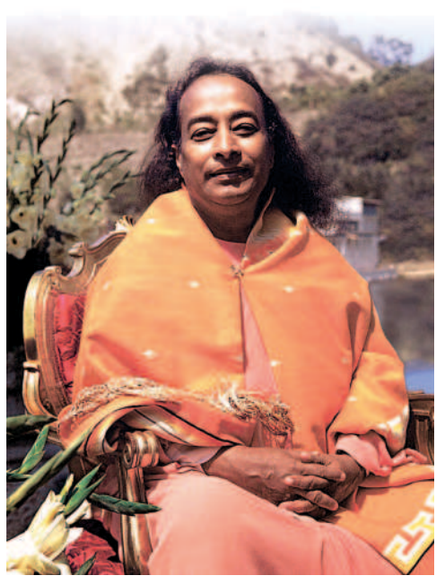
B6
학술 · 문화재
〈불교평론〉서 무산 대종사 추모 특집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1893년 인도에서 태어난 요가난다는 11세에 집을 떠나 스리 유크테스와에게서 지도를 받으며 요가 수행자로 명성을 떨친다. 그는 크리야 요가라는 고대의 가르침을 전수받고 스와미 요가난다라는 승명을 유크테스와로부터 부여받아 활동한다. 이어 벵갈 디히카에서 7명의 학생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1920년에는 미국 보스턴 세계종교회의에 인도대표로 참석한다.

미국에서 영적 구원을 위한 사업을 위해 설립한 것이 미국 SRF와 인도YSS다. 1935년 그는 유크테스와의 부름으로 인도를 방문하고 '파라마한사'라는 칭호를 받는다. 이어 인도에서의 조직을 이어받아 1952년 열반에 들때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가 전한 크리야 요가는 각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아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강조한다.



대중화·전문화 균형… 불교명상 콰제 실마리



정문에서 바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광장에 조성된 비석. 이와 같은 각 종교별 비석이 5개가 있다.

'세계는 명상시대 한국 禪이 연다' –레이크 쉬라인

B1면에서 계속

일반 수행자들은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SRF 공동체에서의 명상 체험을 하게 된다. 목요일 저녁에는 호수의 작은 사원에서 강의가 진행되며 금요일 저녁에는 단체명상이 이어진다. 또 일요일에도 아침에 강의가 진행된다.

레이크 쉬라인에는 다양한 종교의 수행을 구분없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호숫가에 풍차 형태를 띤 예배당에는 각 종교의 상징이 걸려있다. 호수를 감싼 산책길에는 불교를 대표해 불상과 관음보살상이, 기독교를 대표해 예수상, 힌두교를 대표해 크리슈나상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수가에는 팻말에 여러 종교 경전의 말과 요가난다의 가르침을 써놨다. 또 중앙광장에는 불교의 법륜, 이슬람교의 '별과 초승달', 유대교의 '다윗의 별', 기독교의 십자가, 힌두교의 산스크리트어 '옴'이 새겨진 비석이 만들어져 있다.

레이크 쉬라인 이와 함께 요가난다가 전한 크리야 요가를 수행할 수도 있는데, 크리야 요가의 경우 SRF본부에서 승인을 받은 지도자가 가르친다. 매주 주말에는 SRF 지도자의 집중 수행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전문적인 서적과 테이프도 제공된다. 또 지도자들과 항상 면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크리야 요가가 다른 수행법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 중 하나는 은둔이나 고행을 강요하진 않는다는 점이다. 초반에는 선지식의 지도가 필수적이지만, 그 이후에는 신실한 마음으로 규칙적으로 수련한다면 집에서도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 크리야 요가의 거장인 라히리 마하사야 역시 가정을 꾸리고, 출퇴근을 하며 일상을 살아가던 재가 수행자였다.

레이크 쉬라인에서는 수행자들은 묵언으로 임하며 1인실 독방과 동성의 수행자 두명이 같이 쓸 수 있는 방, 그리고 결혼한 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방을 사용한다. 모두 독립된 욕실이 있기도 하지만 공동욕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방마다 발코니가 달려있다. 수행자들은 모두 채식으로 공양을 하며 메뉴를 고를 수도 있다. 매주 일요일이면 수백명의 수행자들이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일반 명상의 대중화

산책길 마다 각종교 상징

종교별 수행 가능해

금요일 단체 명상 진행

요가 명상의 전문화

명상 지도자 상시 면담

요가 집중수행 기회 제공

은둔 · 고행 강요는 없어



풍차 예배당서 기도하는 이들.



간디의 유골이 봉안된 기념물.



안내서를 살펴보는 방문객들.



레이크 쉬라인의 야경.

대중화와 전문화 사이에서…

레이크 쉬라인에서는 미국 사회에서의 요가가 어떤 방식으로 퍼져 나가는지를 살펴 볼 수 있었다. 2016년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미국에서 약 3670만 명이 요가 강좌를 듣고 있다고 밝히며 2012년 요가 인구 2040만명에 비교하면 3년만에 80%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그 원인으로 대부분의 요가 수행자들이 '몸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61%)라고 답했다고 했다. 또 스트레스 해소(56%)와 운동 방법의 하나(49%) 등 일종의 웰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포브스〉는 집중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요가 교실을 운영하는 미국 초중고교가 증가하는 점을 들어 적어도 당분간 미국에서 요가 관련 시장의 전망이 밝다고 풀이했다. 이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불교명상의 상황과도 흡사하다.

이와 함께 미국사회에서 요가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었다. 열린 공간이 특징인 레이크 쉬라인에서도 크리야 요가 수행을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과 과정이 있고, 이를 위한 전문수행자의 지도를 강조했다. 이는 대중화와 전문화 사이에서 불교명상이 절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과 같았다.

2013년 〈불교평론〉이 진행한 '명상붐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회장 인경 스님은 "불교명상에 대한 대중의 열정은 시대적인 스트레스 문제와 아픔에 대한 치유적인 대안으로 나타났다"며 "불교명상의 경우도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될 때는 전문화 되어야 하고, 본질적으로는 근본적인 본성, 깨달음과 연결되어야 생명력을 유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크 쉬라인에서 불교명상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안고 귀국의 길에 올랐다.



당, 북송시대 4지사와 남송의 6지사

〈四知事〉 〈六知事〉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⑰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소임(1)

선종사원에는 주지(방장) 밑에 상위 요직으로 6명의 지사(知事)와 6명의 두수(頭首)가 있다. 지사는 사무 · 행정 · 경제(재정) 등 운영 일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임으로서 조선시대 사판에 가깝고, 두수(頭首)는 교육과 수행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소임으로서 이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송시대 선종사원에서는 그런 구분이나 차별이 없었다. 사판 쪽인 지사가 이판 쪽인 두수의 소임을 맡기도 하고, 두수가 지사의 소임을 맡기도 한다. 지사를 동서(東序), 두수를 서서(西序)라고 한다.

당말오대와 북송시대에는 4지사, 5두수(五頭首, 5명의 두수) 제도였고, 남송 · 원대(元代)에는 6지사, 6두수 제도였다. 먼저 4지사(당, 북송시대)와 6지사(남송시대)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음 회에서 5두수, 6두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북송시대 4지사는 감원(監院) · 유나(維那) · 전좌(典座) · 직세(直歲)이다. 4개의 지사 소임이 남송 · 원대에는 2개의 소임이 증설되어 6지사 제도가 되었다. 감원의 업무가 과다하여 남송시대에는 도사(都寺) · 감사(監寺) · 부사(副寺)로 나누어서 6지사가 된 것이다.

〈당, 북송 총림의 4지사〉
감원(監院)-서무, 행정, 재정, 업무 감독 일체 총괄
유나(維那)-규율, 기강, 법회, 행사 총괄
전좌(典座)-주방, 식사 담당. 별좌와 같음
직세(直歲)-건물, 산림 등 사찰관리

〈남송-원대 6지사〉
도사(都寺)-행정 · 사무 · 살림 일체 관리 총감독
감사(監寺)-도사 보좌역
　　행정 · 사무 · 살림 관리 집행
유나(維那)-규율, 기강, 법회, 행사 총괄
부사(副寺)-금전, 곡물 출납 등 재무 담당
전좌(典座)-주방, 식사 담당, 별좌
직세(直歲)-건물, 山林 등 사찰 관리
※(소임명은 시대에 따름)

(1)감원(監院)

감원(監院)은 서무 · 행정 · 재정 등 사원 관리 일체를 총괄 · 감독하는 소임으로 승당(僧堂, 선당)의 책임자인 수좌(首座)와 함께 선원총림의 양대 요직이다. 행정적으로는 주지 다음으로서 승당의 수좌와 함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다.

당대(唐代)에는 주로 '원주(院主)' '원재(院宰)' '사주(寺主)'라고도 했고, 당말오대와 북송시대에는 감원, 남송 · 원대에는 도사(都寺)였고, 명대에는 다시 감원, 또는 '감사(監寺)'라고 불렸다.

감원은 4지사(감원 · 유나 · 전좌 · 직세) 가운데 서열 제1위이다. 남송시대에는 도사가 감원과 같은 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선원에서 안거 결제 또는 불사가 있을 때 대중의 소임을 적어놓은 용상방.

감원은 수좌의 직무 영역인 승당과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는 총림의 모든 일을 총괄 · 감독한다. 따라서 두수 가운데 서기 · 지장 · 지객 · 지욕 · 지전의 일도 부분적으로는 감독 관장할 수밖에 없다. 감원의 임무에 대하여 장로종색의 〈선원청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감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선원총림의 모든 일을 총괄한다. 관청에 나아가는 일, 관리나 시주들이 찾아오면 영접하는 일, 길흉 등 경조사, 그리고 재정의 출입과 회계, 금전과 곡식의 유무(有無), 수입과 지출 등 모두 담당한다."(장로종색, 〈선원청규〉 3권)

(2)도사(都寺) · 감사(監寺) · 부사(副寺)

도사(都寺) · 감사(監寺) · 부사(副寺)는 앞에서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감원에서 분리된 소임이다. 남송 때에 이르러 감원의 업무가 많아지자 셋으로 나누어진 것이다.

도사(都寺)는 북송 시대 감원과 같다. 주지, 즉 방장을 대신하여 행정, 서무, 재정 등 서무 일체를 총괄 · 감독하는 소임이다. 오늘날 총무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는 방장 밑의 주지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감사(監寺)는 도사(감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실무자이다. 감사는 한 때 감원과 같은 경우도 있었다.

부사(副寺)는 회계, 금전 출납 · 쌀 · 천 · 곡식 관리 등 수입 지출을 맡고 있는 소임으로 오늘날 재무에 해당한다. 부사를 고두(庫頭, 副寺의 고칭) · 궤두(櫃頭) · 재백(財帛) · 부사(副司) · 부원(副院) 등으로도 불렀다. 북송 때 장로종색의 〈선원청규〉에는 고두(庫頭)가 나오는데, 이 고두가 부사의 고칭이다.

남송 원대에 편찬된 청규에서는 도사와 감사를 한 장(章, 도감사)에 묶어서 설명했는데, 도사의 직무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감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감사의 업무가 도사와 구분되는 특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즉 감사는 도사의 지시사항이나 업무를 집행, 보조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 청규에서 도사와 감사를 한데 묶어 '도감사' 장(章)에서 설명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찰 소임 가운데에서 도감(都監)은 아마 여기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사 : 사무 · 행정, 두수 : 교육 · 수행
당송시대 소임, 이 · 사판 구분 없어

명말 · 청대에 이르러서는 도사(都寺)가 없어지고 감사 하나로 통합된다. 명말에 편찬된 행원(行元)의 〈총림양서수지(叢林兩序須知)〉 항목에는 감사수지(監寺須知)만 있고, 도사수지(都寺須知)는 없다. 따라서 '도사'라는 명칭과 직책은 사라지고 감사가 모든 기능을 총괄했다. 여기의 감사는 북송시대 감원과 같은 것이다.

근대 우리나라 사찰의 직책 가운데, 3직으로 감무(監務), 감사(監寺), 법무(法務)가 있었다.(오늘날 총무 · 재무 · 교무의 전신) 감무는 3직 가운데 최고 자리로서 모든 사무를 총괄 · 감독했다. 이 감무가 바로 북송 때 감원, 남송 때 도사이고 오늘날 총무와 같은 소임이다. 또 감사는 감무를 보좌하는 직책으로 재무인데, 북송 때는 감원의 업무 속에 포함되었고 남송 때는 부사(副寺)의 소임과 같다. 법무는 교무로 개칭되었는데, 이 법무가 송대의 유나와 같은 소임이다.

(3) 유나(維那)

유나(維那)는 법도(法度)를 뜻하는 강유(綱維, 三綱 · 四維)의 '유(維)'와 범어 갈마다나(karma-dana · 羯磨陀那, 일을 지시하다)의 '나(那)'자를 따서 만든 중인(中印) 합성어이다.

유나는 선원총림의 기강과 규율, 그리고 법회 등 행사 진행을 담당하는 소임이다. 총림의 사법권(司法權)과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검찰 수장과 법원 수장의 기능을 합한 것과 같다. 그리고 총림의 각종 법회와 행사도 유나가 담당하고 사회도 유나가 본다.

중국불교에서는 유나를 '열중(悅衆)'이라고 한다. '대중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다. 유나가 기강과 규율에 치중하다 보면 대중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대중생활이 힘들게 되므로 대중을 기쁘게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열중(悅衆)'이라고 한 것이다. 기강(유나) 확립과 대중의 화합(열중)을 운용의 묘(妙)를 통해 조화롭게 이끌어 가고자 한 것이다.

유나는 대중 가운데 살(殺) · 도(盜) · 음(淫) · 망(妄) · 주(酒)를 범하거나 횡령 · 착복하여 사찰의 재정을 축내거나 화합을 해치는 등 청규를 위반하는 일을 하고도 참회하거나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다.

유나의 권한은 광범위하다. 예컨대 주지가 공무(公務)로 바빠서 보청(울력)에 나올 수 없을 때에는 주지를 대신하여 시자(侍者)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시자가 나오지 않을 때엔 주지의 시자를 추방하거나 문초 · 전출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주지의 시자를 전출하거나 추방시킨 사례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규정을 두었다는 것은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공동체 속에서 사법(司法)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총림의 기강은 해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나는 소직(小職)에 대한 인사 제청권도 갖고 있었으며, 각종 행사 진행과 사회, 그리고 망승(亡僧)의 장례도 유나가 관장한다. 특히 새로 들어오는 입방승이나 객승에 대하여, 도첩 · 계첩 · 면정유(免丁由, 병역 · 노역 면제증) · 안거증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조사권)도 갖고 있었다.

(4) 전좌(典座)

전좌는 대중들의 식사, 즉 공양 일체를 관장하고 있는 소임이다. 주방장인 셈인데, 우리나라의 별좌(別座)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전좌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정갈하고 맛있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전좌는 대부분 음식 솜씨가 있는 나이 지긋한 고참이 담당하는데, 대중들의 공양을 담당한다는 자부심과 작복(作福) 개념에서 자원하는 경우도 많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자세가 중요하다. 음식 만드는 것을 수행의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 자세가 보살이어야 하고 대중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전좌에 대하여 간혹 어떤 글에는 공양주(供養主) · 공두(供頭) · 반두(飯頭)라고 설명한 곳도 있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다고도 할 수도 없다. 공양주(공두), 채두(菜頭, 菜供), 갱두(羹頭, 국을 끓이는 소임), 미두(米頭, 쌀을 관리하는 소임) 등은 전좌 밑에 딸린 소직(小職, 하급직) 소임이다. 반면에 전좌는 이들을 통제 · 관장하는 상위직으로 6지사 가운데 하나이다.

전좌는 본래 대중의 침상(寢牀), 좌구(坐具, 방석 등) · 와구(臥具, 침구), 그리고 음식(飮食)을 맡았던 소임이었는데, 선종사원(총림)에서는 주방의 일을 중시하여 음식을 전담하게 된 것이다.

당말의 유명한 선승 설봉의존(雪峰義存 · 822~908)은 가는 곳마다 전좌 소임을 자임했다. 원오극근은 〈불과격절록(佛果擊節錄)〉에서 "설봉은 행각할 때 조리(笊籬, 쌀을 이는 도구)와 목표(木杓, 주걱)를 매고 다녔다. 가는 곳마다 전좌가 되었다(雪峰, 擔笊籬木杓行脚, 到處作典座)."고 기록하고 있다.

(5) 직세(直歲)

직세는 도량, 당우, 산림(山林)의 관리, 보수 등을 맡고 있는 소임이다. '직세(直歲)'라는 말은 '바로 그 해'를 뜻하는데, 처음에는 1년마다 돌아가면서 이 소임을 맡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선원청규〉 '직세' 장에는 직세의 소임에 대하여 "무릇 선원과 관련된 작무(作務, 보청, 울력)는 모두 직세가 맡는다. 직세의 직무는 요사(寮舍) · 창문 · 담장 등 당우 수리(修理)를 담당한다. 그리고 방앗간(정미소) · 유방(油坊, 기름 짜는 건물) · 농막 · 마구간 · 전원(田園) · 선거(船車) 등을 관리하며, 산림(山林)을 보호하고 도적을 방호(防護)한다.(장로종색,〈선원청규〉 3권. 直歲. (〈신찬속장〉, 63권, p.531a)."

직세의 업무 영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세가 보청(작무, 울력) 동원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과 총림의 산림(山林) 및 도적을 막는 임무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송대에는 황실과 사대부들의 기증으로 인하여 사원의 전답이 광대해져서 장원 담당인 장주(莊主) 소임을 신설(新設)했다. 장주 소임이 신설된 이후에는 농장관리, 소작관리, 방앗간 · 유방(油坊) · 농막 · 마구간 · 전원(田園) · 선거(船車) 관리 등은 장주에게 이관되었다.

남송 원대 선종사원(총림)에서는 6지사나 6두수 등 요직을 3회 이상 맡았던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우하여 단독 요사(寮舍)나 방사(房舍, 독방)가 배정되었다. 〈민족사 대표〉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이번주 신간은… **〈촌부 백지를 물들이다〉** 일우 지음/금샘 펴냄/1만원

"생각하라 크고 깊게 생각하라 머리를 비우고 가슴을 열어 그대의 근본을 찾아가라 끝없이 되돌아오던 길이 보이거든 놓지 말고 나아가라. 그 길속엔 뜨거운 불길도 천길 낭떠러지도 깊은 바다의 심연이 있으리니 두려워 말라" 〈심경 中에서〉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7~9/13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우리말로 읽는 부처님 말씀 능엄경	각성스님/용하스님	비움과소통
2	조용헌의 인생독법	조용헌	불광출판사	7	부처님 광명 기원문	성운대사/원성스님	운주사
3	공덕(조계종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법보신문	모과나무	8	그대는 꽃입니다	천룡스님/효석스님	사유수
4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9	후회없는 죽음, 아름다운 삶	로드니 스미스/이창엽	담앤북스
5	붓다의 철학(중도, 그 핵심과 사상체계)	이중표	불광출판사	10	설법하는 고양이와 부처가 된 로봇(선불교를 철학하다)	이진경	모과나무

한번쯤 마음 두고 와도 괜찮은 日本을 만나다



나치산 세이칸토지의 본당 옆 삼중탑과 나치폭포 모습.



마음을 두고 와도 괜찮아

배종훈 지음/더블북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유럽의 소도시 풍경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SNS에 소개해 수많은 팔로워에게 사랑을 받는 어반 페인터(Urban painter) 배종훈 저자가 이번에는 드로잉 펜과 스케치북을 챙겨서 일본의 소도시로 혼자 떠났다. 떠나고 싶은 순간이 먼지처럼 소리 없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열병처럼 찾아오자 미련 없이 일본행 항공권을 샀다고 한다.

이번 여정은 오사카에 이웃한 와카야마 현의 구마노고도 순례길, 시코쿠 섬과 일본 본토를 연결하는 세토대교로 유명한 오카야마 현의 구라시키 미관지구,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지로 알려진 아키타 현의 다자와 호수 등이며 그 밖에도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나 명승지(사찰, 온천, 협곡)는 한 번쯤 마음을 두고 와도 괜찮은 곳들이다.

작가는 산사서, 순례길에서, 바닷가에서, 시골 기차와 버스에서, 골목길 작은 찻집에서, 일상의 소중함과 혼자 떠나는 '느긋한 외로움'

저자, 어반 페인터로 수많은 팔로워 확보
日 소도시 여행 한뒤 펴낸 드로잉 에세이
산사, 순례길 등지서 일상의 소중함 체험

'소소한 특별함' '주인 없는 그리움'을 글과 그림으로 엮어 〈마음을 두고 와도 괜찮아〉라는 드로잉 에세이를 펴냈다. 책에서는 서두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혼자 떠날 수 있다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소설가 백영옥 씨는 이번에 출간된 〈마음을 두고 와도 괜찮아〉를 읽고 나서 "어쩌면 혼자 떠나는 여행은 'do not disturb'의 세계이다. 내가 나와 좀 더 친밀해질 기회다. 혼자 떠난 작가의 여정을 함께 걷다 보면, 어느새 그가 느꼈다던 '느긋한 외로움'을 나도 느낀다"고 전했다. 배종훈 작가는 "왜 일본이냐"는 질문보다 "여행이 행복하냐"고 물어 주면 특별할 것 없는 골목길이나 강변, 바닷가, 산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즐거움에 대해서 맥주 한 잔을 앞에 두고 밤새도록 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작가는 혼자 있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삶의 의미는 결국 자기 스스로 묻고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아주 잠시라도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만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행을 통한 침묵의 시간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줄여서 그 만큼의 여백으로 자신과 주변을 살필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여행은 다시 돌아오기 위한 떠남이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 일상을 견디고 있는지도 모른다. 드로잉 펜이 아니어도 좋다. 연필과 스케치북, 그리고 손에 쏙 잡히는 책 〈마음을 두고 와도 괜찮아〉를 여행 가방에 넣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 오기 위한 혼자만의 여행을 훌쩍 떠나 보는 건 어떨까?



옛 순례자 복장을 한 여행자 둘이 걷고 있는 뒷모습.

죽음 받아들일 때, 삶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후회없는 죽음, 아름다운 삶

로드니 스미스 지음/이창엽 옮김
담앤북스 펴냄/1만 6천원

오랫동안 명상 수행을 했으며 승려로 출가 했고 호스피스에도 종사한 저자 로드니 스미스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종말을 깊이 숙고하면서, 우리가 종종 당연히 여기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의 기적을 일깨울 수 있음을 따뜻하게 말한다.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함께 하며 얻은 직접적인 조언과 많은 이야기, 개인적인 일화 등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 가르쳐준 교훈들은 진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한다. 13개 장의 끝에 있는 '성찰과 연습'을 실천하면, 각 장서 전하는 삶의 지혜를 자신의 삶에 보다 완전하게 통합할 수 있다. 이 책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삶의 아름다움과 신비, 경이로움을 다시 발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방법을 알려준다.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생명의 소멸을 슬퍼하는 것이 삶의 필연적인 모습이다. 탄생을 기뻐하는 만큼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게 될 때 지난 삶에 대한 후회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지인의 죽음, 친구의 죽음, 친척과 가족의 죽음 그리고 나의 죽음. 존재의 소멸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것을 피하고 무시하고 멀리하려 한다. 하지만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더 자세히 알고자 파헤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말한다. 죽음은 허무한 소멸이 아니며, 온전한 자유를 얻게 하는 길이고, 삶을 더욱 충실하게 아름답게 살게 하는 것이라고.

> "죽음은 허무한 소멸이 아니며,
> 온전한 자유를 얻는 길이고,
> 삶을 더욱 아름답게 살게 하는 것"

남방 상좌부에 출가해 승려로서 깊은 수행을 했으며 호스피스에 오랫동안 종사한 저자 로드니 스미스는 죽음에 깊이 천착(穿鑿)하였다. 그가 출가수행자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온 것은 죽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환속한 뒤 그는 호스피스에 관련된 여러 활동에 종사하면서 죽음의 바로 곁에서 죽음과 삶을 탐구했다.

이 책에는 저자가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수많은 사례가 담겨져 있다. 이 사례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타인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다.

이 책에 실린 호스피스 환자들의 오랜 습성과 두려움, 후회와 용서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바로 지금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후회와 두려움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한 삶의 신비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임종을 맞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함께 하며 얻은 직접적인 조언과 많은 사례, 저자의 개인적인 일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여러 명구 등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죽음이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죽음을 통해 우리 삶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임종을 맞이하는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고 새로운 이해를 선사한다. 또한 각 장의 마지막에 있는 '성찰과 연습'은 이러한 통찰과 이해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조셉 골드스타인은 추천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여기에 실린 많은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용기 있는 정직성 때문에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으로 불릴 수 있다. 이 이야기들은 죽음과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게 한다.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망률과 그것이 우리가 하는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기에는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함양할 때는 현명한 차별에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김주일 기자

선禪으로 송시를 보다!
송시의 선학적 이해



송대의 시가詩歌는 어떻게 중국 문학의 최고봉이 되었는가?
송시는 선적인 사유로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였기에 그들만의 문학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박영환 지음 / 536쪽 / 값 27,000원

부처님께 드리는 100가지 기도!
부처님 광명 기원문



신심을 고취시키고 자비와 지혜를 증진시키는 기도발원문!
간결하면서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된 발원문과 동자승 그림으로 널리 알려진 원성 스님의 그림이 감동과 평온을 선물한다.
성운대사 글, 조은자 옮김 / 440쪽 / 전면컬러 / 값 23,000원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것이야말로 가장 명료하고 기본적인 불교의 가르침이다. 역사적 진실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윤회와 인과의 사례들만을 골라 엮었다.
석운광 지음 / 200쪽 / 값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부서진 것들의 가치



사천왕문 건물지에서 발견된 소조(塑造) 사천왕상 장식편 중 일부. 소조품은 연질이어서 부서지기 쉽고 세척 시 원재료가 묻어나올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특별전
'산산散散 · 부서진 뒤 알게 된 것들'
9월 11일~2019년 3월 3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깨지고 부서진 유물들의 가치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이하 · 회암사지박물관)은 9월 11일부터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산산散散 · 부서진 뒤 알게 된 것들'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회암사지박물관이 소장한 유물 중 깨지고 부서져 완전한 형태를 이루고 있지 못한 유물 100여 건을 선보인다. 원형을 유지하지 못한 유물들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전시다. 조각 난 유물들은 보잘 것 없어 보이기 쉽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오랜 세월의 이야기는 외형과 상관없이 가치를 지닌다. 원형과는 다른 조각 난 모습의 조형미와 변할 수 없는 역사성이 그것이다. 이번 전시는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조각 난 유물들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전시라고 할 수 있다.

유물에 담긴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보존 · 복원 · 복제처리 과정과 유물을 소개하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의 관람과 교육, 체험 등 유물을 매개로 한 경험도 유물의 존재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활용방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청동 광배편', '소조 사천왕 장식편', '토수', '잡상' 등의 유물과 사진, 영상, 체험 등을 선보인다.

특히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박물관의 수장고 환경을 일부 재현하여 유물의 보관관리 환경을 제시하며, 동시에 복수의 관람객이 동시에 깨진 유물을 붙여 복원해보는 미디어체험 등을 통해 관람객 스스로에게 문화유산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

양주 회암사지(사적 제128호)에서는 1997년부터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10만여 점 이상의 많은 유물이 출토됐다. 오랜 시간 땅 속에 묻혀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형태의 유물보다는 대부분이 조각으로 발굴되었으며, 그 훼손의 정도가 심각했다. 완전하지 못한 유물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 공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전시는 그러한 유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취지다. 전시는 총 3부로 편성됐다.

▲1부 '과거에서 현재로'에서는 깨지고 부서진 작은 유물 하나라도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작은 유물 하나하나가 과거의 기억을 품은 것이고, 그것들은 현재를 오롯이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2부 '현재에서 미래로'에서는 유물의 가치를 미래로 전달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손상을 방지하고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 원형을 추정하여 실제 유물의 형태로 복구하는 복원, 그리고 그 형태를 그대로 옮겨 새로운 오브제로 창조하는 복제 등 박물관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보여준다.

▲3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세대'에서는 우리 모두가 유물의 주인임을 이야기한다. 문화재는 한 번 손상되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 삶 속에서 꾸준히 문화재를 찾고, 즐기고, 보살피는 노력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이어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양주 회암사지는 조선 전기의 왕실문화가 풍부했던 대사찰이었다. 따라서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 역시 왕실의 고급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도자기, 기와 등이 1만 점 넘게 출토되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을 이기지 못해 많은 유물이 훼손되었다.

원형을 유지하지 못한 유물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작은 유물 한 조각의 발견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기존 역사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랜 세월을 지내온 유물은 그 자체로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물의 존재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물 한 조각에도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탐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시선이라 할 수 있다. 미처 알아보지 못한 유물의 가치가 여러 시선을 거쳐 다양한 분야로 확대 재생산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세계적 아티스트가 재해석한 불교

'장욱진과 백남준의 붓다' 展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9.14~12.2

불교적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가 열린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은 하반기 기획전으로 2018년 9월 14일부터 12월 02일까지 '장욱진과 백남준의 붓다'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박수근, 이중섭과 함께 우리나라 근 ·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서양화가 장욱진과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공연과 전시로 새로운 예술을 전개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불교적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장욱진의 작품세계는 불교 선종의 '진리의 깨달음은 문자를 떠나 곧바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서 본성을 보아야 한다'는 '불립문자(不立文字)'에서 영향을 받아 사물의 순수한 본질만을 남겨 간결하고 압축된 조형성으로 표출된다.

백남준은 종교적 성자인 '부처'를 현대문명의 과학기술과 접목하여 관람객과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이번 전시에는 특히 장욱진의 '팔상도(1976)', 백남준의 'TV부처' 등 불교적 세계관에서 영향을 받은 두 작가의 대표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뜻하는 '붓다'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낸 장욱진과 백남준의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예술의 본질에 대해 살펴본다.

▲장욱진(1917~1990)은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제2회 전조선 학생미술전람회(1937)에서 최고상을 수상했고, 한국전쟁 이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1954~1960)로 재직했으며, 6년 만에 작품창작을 위해 퇴직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며 동화적이고 심플한 선 표현과 독창적인 색채를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백남준(1932~2006)은 일본 동경대학에서 미술사와 미학, 음악학, 작곡을 공부했다. 1963년 텔레비전의 내부 회로를 변조하여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개인전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을 통해 미디어 아티스트의 길에 들어섰다. 1984년 뉴욕과 파리, 베를린, 서울을 연결하는 최초의 위성중계 작품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발표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박재완 기자



장욱진 作, '팔상도' 캔버스 유채



백남준 作, 'TV부처', 폐쇄회로카메라 가변설치

꽃무릇 선운사 가을축제 열다

제11회 선운문화제, 선운사 일대 9월 29~30일



지난해 열린 선운문화제

꽃무릇이 아름다운 도솔산에 축제가 열린다. 고창 도솔산 선운사(주지 경우)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선운사 일대에서 제11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한다.

선운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가치를 지역민들과 향유하고 지역축제의 장을 넘어서기 위해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전통과 상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선운문화제는 헌다례, 보은염 이운행사, 산사음악회, 버스킹공연, 전통놀이 ·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꽃무릇시화전, 경판이운식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으로 진행된다.

29일 열리는 산사음악회는 국악공연 전통타악& 연희 '굿(GOOD)'을 시작으로 동서양 클래식의 만남 퓨전국악하나연과 팝페라 한아름, 뮤지컬 갈라 그룹 봄날, 재즈와 탭 뮤직 밴드 그라운드잼, 재즈밴드 말로 등이 출연해 공연한다. (063)561-1422

박재완 기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

천만불자들의 PICK!
BTN 불교TV 대표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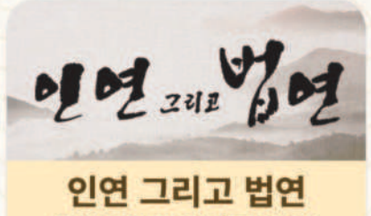
드라마 붓다
월·화 13:30



스트레스관리와 알아차림 명상
화 15:00, 23:00



산은 산 물은 물
목·금 14:00



인연 그리고 법연
수 09:30, 14:30 / 금 08:30



일감스님의 만행
화 14:30, 20:30



원순스님의 능엄경강설
금 13:00, 22:00



오늘은 좋은날 비긴즈
금 09:00, 16:00



진명스님의 지대방
화 11:30, 19:30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
수 08:30, 21: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수 11:30, 22:00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tv HD 305번 U+TV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스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불교평론〉 가을호서
무산 대종사 추모 특집 ‘눈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작은 이익 때문에 얼굴을 돌리는 이웃들에게 조차 미완의 여래(如來)를 읽던 ‘중’이었다. 두두물물(頭頭物物)에서 절대적 가치를 찾아내던 무산당 그가 그립다.”

지난 5월 26일 원적에 들은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실 설악당 무산 대종사를 그리는 평생 도반 정휴 스님(강원 화암사 영은암 암주)의 글이다.

무산 대종사가 생전 발간했던 불교계 유일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은 최근 발간한 가을호에서 ‘설악무산 스님, 그 흔적과 기억’을 주제로 추모 특집을 실었다.

추모특집에는 정휴 스님(화암사 영은암 암주)·성우 스님(BTN불교TV 회장)·우송 스님(신흥사 주지) 등 도반과 후학을 비롯해 이근배(예술원 회원)·권오민(문학평론가)·최정희(본지 前 편집이사)·신달자 시인 등 18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무산 대종사와의 추억담을 쏟아냈다.

스님과 각계 인사들이 풀어놓은 추억 이야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산 대종사의 면면들이 담겨져 있다.

대종사 열반 당시 호상을 맡았던 도반 정휴 스님은 무산 대종사와의 첫 만남부터 평생 도반이 된 이야기를 술회했다. 무산 대종사가 주석했던 금무산 약수암에서 목도한 천진하고 소탈한 모습부터 자신에게 어려운 부탁을 청했던 것까지 절절한 반세기의 인연담은 대종사가 정휴 스님에게 건넨 일구(一句)로 정리된다. “우리는 한산(寒山)과 습득(拾得)이다.”

정휴·성우 스님 등 도반부터
정치·문학·언론계 인사들까지
무산 대종사와의 추억담 소개

정휴 스님 “우린 한산과 습득”
칼이 들어와도 담담했던 장부

중국 당나라 시대 선승인 한산과 습득은 기행으로 유명한 수행자였으며, 돈독한 우의를 나눈 지음(知音)이기도 했다. 무산과 정휴, 두 스님의 평생 도반의 길은 이때부터 이뤄졌을지 모른다.

같은 시조시인으로 문학적 동지였던 성우 스님은 담대했던 무산 대종사의 일화를 소개했다. 청도 신둔사의 객실에 하룻밤 머물렀던 두 스님은 취침 중 강도를 맞이하게 됐다. 당시 강도는 두 스님에게 칼을 들이대고 “가진 것을 내놓아라”고 협박했고, 성우 스님은 걸망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무산 대종사는 달랐다. 가진 것이 없으니 죽일 테면 죽이고 살릴 테면 살리라고 배짱을 부렸고, 결국 강도는 눈만 부라리고 나갔다. 강도가 나가자 무산 대종사는 성우 스님에게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뭐할라고 강도에게 다 바치냐”고 한 마디를 던졌다.

이에 대해 성우 스님은 “‘이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없이 자기만의 길을 갈 사람’임을 그때 알았어야 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신흥사 주지로서 무산 대종사를 모셨던 우송 스님은 지난 2016년 5월 21일 봉행됐던 설악산문 현판 제막법회에서 자신에게 전한 대종사의 말을 잊지 않고 있다. 당시 무산 대종사는 우송 스님에게 “나는 이제 설악산에 와선 할 일을 다했다. 혹시 훗날 문도들 사이에 시빗거리가 생기면 이 현판을 한 번 쳐다보아라. 그러면 나의 뜻을 알 것이다”고 말했다.

최정희 본지 前 편집이사는 1984년 〈불교신문〉 재직 당시 주필 겸 편집국장이었던 무산 대종사와의 인연을 풀어놓았다. 그리고 대종사를 “이산교연 선사의 발원문처럼 약풀이 되고 쌀이 되어 이웃을 돕고 나누었던 분”이라고 회고하며 “행원(行願)의 삶이면서 바람처럼 걸림없는 삶이었다. 그 이타행은 ‘머문 바 없이 내는 마음(應無所住而生其心)의 자비’였다”고 상찬했다.

가톨릭문인회장까지 지낸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신달자 시인과 무산 대종사의 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2001년 남편을 떠나 보내고 우울증에 시달렸던 신 시인은 수서역 주변 포장마차에서 술을 자주 마셨고, 이를 토대로 ‘저 거리의 암자’라는 시를 세상에 내놓았다. 우여곡절 끝에 대종사를 친견하기 위해 동안거 해제법회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대종사는 젊은 납자들에게 ‘여러분이 3개월 수행한 것보다 이 시 한편이 더 불경에 가깝다’고 신 시인의 시를 소개했다. 신 시인은 “그 무렵 나는 시가 잘되지 않아 절망하고 있었다. 그런 터에 스님의 한 마디는 큰 힘이고 위로였다”고 술회했다. 이를 통해 신 시인은 대종사에게 ‘남암(南庵, 이조 혜가가 달마를 찾아가기 전 수행하던 토굴)’이라는 법호를 받기도 했다.

문학평론가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는 백담사에서 대종사와의 만남을 잊을 수 없다. ‘문학평론가’라는 자신의 소개에 대종사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언어의 그물질”이 평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 평론이라는 것은 남이 만들어놓은 방법론으로 다른 사람이 쓴 작품을 왈가왈부 시시비비만 하지요. 그러니 허망할 수밖에”라고 한 마디를 더 했다. 당시를 권 교수는 “마치 크게 한 번 ‘할방’이라도 당한 듯한 느낌”이라고 술회했다.

붓다가 설파한 가르침은 ‘中道 철학’

주목 학술서- 이중표 교수의 ‘붓다의 철학’

혹자는 묻는다. 불교는 종교인지 철학인지를. 그럴 것이 불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 형태와는 조금 다르다. 절대자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이를 쫓는 과정인 구도·수행에 불교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훈인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에서도 잘 드러난다. 법을 의지처(등불)로 삼아 정진하라는 이 유훈 아래에는 끊임없는 성찰과 사유에 대한 당부가 담겨져 있다.

불교학자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최근 발간한 〈붓다의 철학〉은 붓다가 깨닫고 증명한 진리 안에서 철학적 제 문제들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또한 인식·존재·가치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입증한다.

〈붓다의 철학〉은 이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이자 저서인 〈아함의 중도체계〉의 개정증보판이다. 27년 전 난해한 국한문 혼용의 한문경전 번역이 주류를 이루던 당시, 알기 쉬운 현대어 번역과 치밀한 논리로 붓다의 중도 사상을 밝힌 〈아함의 중도체계〉는 발간 이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불교학 분야의 스테디셀러였다.

이를 개정 증보한 〈붓다의 철학〉은 저자의 평생 연구 성과를 담아 초기불교경전 원전 해석의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이 책은 중도 해설을 중심으로 무엇이 진리이며 그 진리를 어떻게 인식할지에 관한 ‘인식론’, 12연기를 바탕으로 한 ‘존재론’, 4성제를 토대로 실천의 당위성을 논하는 ‘가치론’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진리의 접근법인 인식론은 연기설과 9차제정(九次第定)으로 설명하고,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논하는 존재론은 5온(五蘊)·12처(十二處)·18계(十八界)로 풀이했다. 그리고 마땅히 실현해야 할 가치에 관해 탐구하는 가치론은 4성제를 기반으로 해석했다. 이 같은 범주 나눔은 서양철학적 조명 방식이지만 이는 어디까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분이다.



논문 ‘아함의 중도체계 연구’
27년 만에 개정 증보판 펴내

모순된 명제 떠난 철학 ‘중도’
4성제·8정도·12연기 등 포함

붓다의 가르침은 수행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갖추고 세상의 존재가 ‘허상(虛像)’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붓다의 철학은 ‘존재하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분별심에서 벗어나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붓다의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은 카테고리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로 회통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 진리의 인지를 위해 붓다는 실천 수행체계를 제시했고, 각 수행 단계마다 향상되는 인식 과정을 본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면밀히 설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모순의 해결을 포기한 것은 중도가 아님을 역설한다. “모순된 명제를 떠나 철학하는 방법”이 바로 ‘중도’라는 것이다.

저자는 “중도에서 보면 모든 모순이 착각이고 환상”이라며 “붓다의 침묵은 사견(邪見)을 파기하고 중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중도라는 철학적 입장에서 취해진 것이며, 붓다의 철학을 우리는 ‘중도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명진관 ‘문화재’ 된다

문화재청, 13일 등록예고… 부산 대통령 관저 사적 예고

동국대 석조전(이하 명진관·사진)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9월 13일 동국대 명진관 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예고했다. 또한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를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고,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본관 등 3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이번에 문화재 등록 예고된 ‘동국대 명진관’은 1958년 건립됐으며,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한 건축가 중 한 사람인 송민구가 설계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고딕풍 건물로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성을 강조한 평면구성과 석재로 마감한 외관 등은 당시 대학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한국전쟁 기간 중 수도의 기능을 수행했던 부산에서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된 곳으로, 국방·정치·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었던 역사적 현장이다. 또한,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된 3건의 등록문화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사적으로 지정 예고한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와 문화재 등록 예고한 ‘동국대 명진관’, ‘충남대 구 문리과대학’은 30일간의 지정·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최종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사찰로 명당! 도성속의 숲속

2015년 부천시의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 주 변 : 500m 內 서울항동지구, 부천옥길지구, 현대아파트 단지 등 22,000세대 +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202-1, 서울 경계 115m
- 대지 158평, 건물 93평, 사유지처럼 쓰는 땅 400평 이상
- 양도가액 : 35억

연락처 : 010-4500-9095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박재완의 PhotoEssay



가을 문턱

이제 무엇을 바라보아도

그것들은 모두 쉽지가 않다

아침 길에 마주친 노인의 먼 시선과

다시 시작된 가을의 조짐과

향 한 자루에 타고 있는 오늘과

석양 끝에 보이는 내일과

한 없이 작은 나와

창가에 찾아오는 저녁과

끝내 알 수 없을 것 같은 삶과

이 가을 문턱을 넘어야 하는 모든 것들이



정지천의 가족이 건강해지는 비법 ⑨ 당뇨

세종대왕 괴롭힌 '당뇨'

육류·단 음식·술 등 원인

유전·임신·운동부족·스트레스도

"화 많이 내도 당뇨 부를 수 있어"

고혈압 등 합병증 더 위험

인슐린 충분해도 당뇨 가능성

비만은 당뇨 원인 1순위

조선 왕조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추앙받는 분으로는 단연 세종대왕이 손꼽힌다. 만약 대왕께서 건강하게 장수하셨다면 더욱 많은 업적을 남겨서 조선이 대단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겠지만 안타깝게도 54세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다. 주된 이유는 30세 무렵에 생긴 당뇨병과 그 합병증 때문이었다. 당뇨병은 건강, 장수와 직결되는데, 당뇨병이 악화되는 과정과 노화의 진행 과정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백세인에 대한 조사에서도 백세인들은 거의 당뇨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한의학에서 '소갈(消渴)'에 해당된다. 소(消)는 태운다, 소모한다는 뜻이고 갈(渴)은 마른다는 의미로서 음식을 먹으면 금방 눈 녹듯이 녹여버려 돌아서면 배고프고 입이 말라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이다. 자꾸만 많이 먹으면서도 기운이 없고 몸이 야위게 되니, 연비가 낮아서 기름을 많이 먹는 자동차와 마찬가지이다. 태우고 마르게 하는 것은 '열'로서 뱃속, 즉 위장과 대장에 열이 많으므로 음식물을 빨리 소화시키고 열이 올라와 답답하면서 입이 마르는 상태이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혈당치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소갈증이라고 할 수 있고, 머잖아 혈당도 높아질 것이다.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육류 등의 지방질 음식, 술, 단 음식 등을 많이 먹는 것이 첫째이다. 흔히 당뇨병을 '부자병'이라고 하는데, 경기가 좋으면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어서 환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게 먹으므로 환자가 줄기 때문이다. 또 약물 과용, 과로 등이 있다. 그래서 신장의 음기(陰氣)가 쇠약해져 몸에 물 기운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불 기운이 치솟아 올라 유발되는 것이다. 그밖에 유전, 임신, 운동부족 등도 중요한 원인이다.

소갈을 일으키는 열을 '조열(燥熱)'이라고 한다. 열로 인해 몸에 물기가 빠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비만한 사람에서 소갈이 잘 생긴다. 몸속에 습기가 많아 담을 생기게 하고 담이 열을 일으켜 소갈로 진행되는 것이다. 결국 비만하면서 열이 많으면 소갈이 생기기 쉽다.

화를 잘 내거나 정신적 긴장, 비애, 우울 등이 오래 계속되는 것도 당뇨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한 번 화를 내거나 근심걱정을 많이 해도 금방 혈당치가 치솟게 되고 합병증이 나타나기 쉽다. 대왕도 수많은 업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기에 운동부족과 함께 소갈을 유발시켰던 것이고, 며느리 문제에다 왕비와 아들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병이 심해져 승하하시게 되었던 것이다.



당뇨병도 젊은이와 노인은 차이가 있다

공복혈당은 70-110이 정상이다. 만약 공복혈당이 최소한 2회 이상 140 이상일 때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 공복혈당이 110 이상 140 사이에 있으면 공복혈당장애로서 당뇨병 전단계이다.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치는 140 이하가 정상이다. 만약 식후 2시간 이내 혹은 2시간째 혈당치가 200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140-199 사이면 내당능장애로서 아직은 아니지만 머잖아 당뇨병이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혈당치는 나이, 성별, 음식 섭취량, 활동량 등에 따라 달라진다. 혈당은 혈압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데, 50세 이후부터 10년마다 공복 혈당은 1~2, 식후 혈당은 5~10씩 증가되는 것으로 본다. 대략 60세 이상은 공복혈당 110 이하, 식후 2시간 혈당 160 이하를 정상으로 보고, 160-230이면 내당능 장애, 그리고 230 이상이어야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그러니 노인의 혈당이 좀 높다고 바로 약을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당뇨병의 발생이나 증상, 진행 과정 등은 젊은 사람과 노인에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노인이 되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복부 비만이 오기 쉬우며 각종 약물 복용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소갈의 근본 원인은 '음기 쇠약'인데, 음기는 중년을 넘어서면서 점차 줄어진다. 그러니 노인에서 소갈이 생겨나기 쉬운 것이다. 그밖에 당뇨병의 원인으로 인슐린 분비 감소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 역시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되므로 노인에게 당뇨병이 잘 생길 수밖에 없다.

인슐린이 충분하면 당뇨병이 아닐까?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부족하지 않거나 오히려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인슐린의 세포에 대한 반응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인슐린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야 하는데, 수용체에 이상이 생겨 인슐린이 많지만 작용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런데 비만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에서는 인슐린 수용체 수가 감소되어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세포 속으로 잘 유입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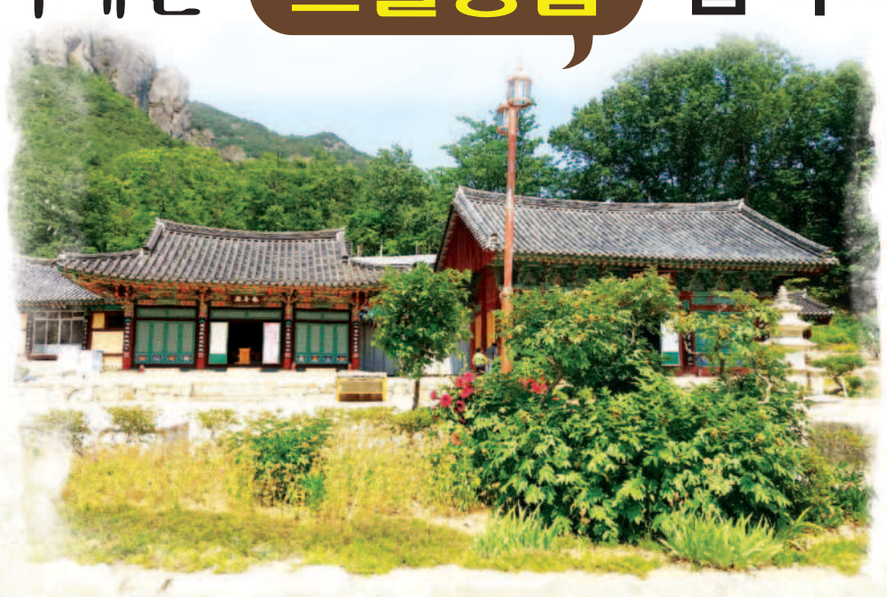
문제는 노인 당뇨병은 거의 모두 제2형 즉,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이라는 것이다. 제2형 당뇨병은 비만증이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살이 찌지 않아야 한다. 비만해지면 인슐린 수용체가 적어지고 아울러 수용체와 결합된 인슐린도 작용이 떨어지므로 결국 인슐린 요구량이 증가된다. 그래서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인슐린이 많아지면 식욕을 증가시켜 많이 먹게 하므로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결국 살이 찌지 않아야 당뇨병이 생기지 않고, 이미 생긴 당뇨병도 악화되지 않는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더 무섭다. 고혈압, 동맥경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중풍이 오는 비율이 2~3배나 된다. 또 좌골신경통, 근위축 등의 신경장애, 신장병, 망막증, 백내장, 성기능장애, 각종 감염증 등이 생겨난다. 노년에 심한 고통과 엄청난 진료비 부담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당뇨병에 걸리지 않거나 조절을 잘 해야 한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불교연합회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함께하는

제10회 불암사 산사음악회

& 보현스님의 행복토크콘서트

2018년 10월 6일(토) 오후3시

불암사 경내 특설무대

사회자 MC 허참



초대 가수 및 공연



이 익 선



홍 진 영



남 상 일



현 미



써 니 힐

김장수(높은음자리) | 주권기 | 소천 이장학
동국대 무용대학원 | 불암사 합창단

보현스님의 행복 토크 콘서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보 현 스 님



마 하 무 용 단

주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 남양주시 불교연합회

문의 02) 734-8050

부대행사 장기기증캠페인&환자후원금 바자회 / 국화축제 / 송산노인종합복지관 바자회

후원 보건복지부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불교조계종 |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 남양주시 |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LabGenomics | BS HLA Laboratory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Catholic Hematopoietic Stem Cell Bank